3대째 오로지 전통 수제 작설차만을 고집하는 지리산 茶天地
지리산 야생차로 만듭니다
• 농림수산부지정 한국식품식품개발 시범업체 •
• 우리 차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해 생산가 보급(생산자 소비자 직거래) •
0595)83-9665 / 83-3478

현대불교

고객을 크게 서비스는 평생
빅맨평생통장
높이자가 오르면 소준금리도 내립에는 박탈금리도!
교육자금 주택자금 경조자금, 노후생활자금 등 다양한 대출서비스 제공
문의처: 080-023-8000
국민은행

명예회장 노대행 / 발행인 겸 편집인 김종삼 / 논설고문 고은 / 편집국장 최정희 / 인쇄인 김규식 / 등록번호 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737-8881 / 편집국 722-4162 FAX 737-0698 / 광고국 737-0692 / 구독신청 737-0693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39년(서기 1995년) 11월 8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금주의 법구

고귀한 옥은 땅속에서 나고 청정한 계(戒)는 선행에서 나온다. 〈열반경〉

법회 안내

석불사 (02)712-1765
석불화법회 1·3주 일 오전10시
청년화법회 매주 일 오후2시
학생화법회 매주 일 오후2시
어린이화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광주 만덕사 (062)652-4920
연등법회 매월1~3일(음) 오전10시
칠성법회 매월 7일(음) 오전10시
지장법회 매월 18일(음) 오전10시
관음법회 매월 24일(음) 오전10시
청년화법회 매주 토 오후7시

광주 관음사 (062)223-7666
거사불법회 매주 월 오후7시
청년부법회 매주 금 오후6시30분
고등법회 매주 토 오후3시
중등법회 매주 일 오전11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인천 성불사 (032)541-5800
초하루법회 매월1일(음) 오전10시
성심화법회 매월 첫째 토 오후7시
중·고등법회 매주 일 오전11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혜진선원 (032)693-3326
초하루법회 1일(음) 오전10시30분
보름법회 15일(음) 오전10시30분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30분

대구 구도회 (053)654-8533
정진법회 매주 토 오후8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참아행정진법회 매월 마지막주 토

대구 공덕원(053)741-0077
거사법회 매월 첫째 금 오후8시
청년화법회 매주 수 오후8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법회안내를 원하시는 사찰·포교당은 전화(722-4162) 팩스(737-0698)로 연락바랍니다.

지면부족
법공양판 발행
타블로이드 4면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정상화 더이상 미룰 수 없다"

'佛放사태' 1년 6개월…방송 質저하 우려

사장선임 이해얽혀 결론 못내

공공매체이며 교계 최대의 전법기관인 불교방송이 지난 10월 31일로 사장직무대행을 겸임해온 이사장 종하스님의 임기가 끝나 '사장 공석'이라는 사실상 경영공백 상태에 처하면서, 그 어떤 명분일지라도 더이상 정상화를 미뤄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당초 교계 한 신문의 보도기사와 관련 양측 언론사 관계자의 명예훼손 공방으로 야기된 불교방송 분쟁가 정규프로그램에 나간 PD협회의 성명 방송으로 그 파문이 조계종으로 급비화되면서 1년6개월 넘게 혼미를 거듭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불교방송 김태호사장의 사퇴 강행밀전무의 해임등 대폭적인 인사 단행과 방송의 질저하 비난, 나아가 교계 각 구성원간의 갈등과 반목으로까지 파장이 확대됐다. 이제는 실질적으로 불교방송의 정상화를 주도해나갈 새 사장 선임이 사태해결의 실마리를 풀 초미의 관건으로 떠올랐다.

불교방송 사장은 불교진흥원이 추천한 후보를 법인이사회에서 의결토록 되어있는데, 불교진흥원은 9월 22일사장후보로 정동호의원을 추천해 놓고 지난 10월 28일 "조속한 시일내 이사회를 개최해 달라"는 공문을 불교방송 재단사무국에 냈다. 그러나 불교방송 이사회는 3일 현재 열리지 않았다. 불교방송 이사장 종하스님은 성명서를 통해 "조속한 시일내 이사회를 열어 전 종도가 수긍할 수 있는 사장을 선임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새사장의 선임에 대해서는 그동안 불교방송 관련 주체들이 나름대로 인물 찾기에 부심해 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사안을 둘러싸고 조계종 이사, 방송특위 스님들과 불교진흥원과의 드러내지 않는 긴장감을 잃으키고 있다.

사장 전무 상무 등 최고 경영진이 모두 공석으로 당분간 파행운영이 우려되는 불교방송이 공공성을 찾고 본래 기능과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불교방송 이사회 진흥원 이사회 조계종 불방특위와 조계종 총무원장 등 4개 주체가 적극적인 사태 해결의지로 대화를 통한 합의를 이루어내야 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특히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 총무원장은 법적으로 책임의 위치에 있지 않더라도 교계 정서상 원만한 수습을 위해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교계의 주문이다.

〈위영란 기자〉



교계 첫 포교사 고시

조계종 포교원(원장 정락스님)이 실시하는 첫 포교사 고시가 지난달 29일 서울을 비롯 전국 6개 도시에서 열렸다. 필기·면접으로 진행된 이번 포교사 고시에는 7백7명의 예비포교사가 응시해 성황을 이뤘다. 합격자는 20일경 발표되며 이들은 포교사연수를 받은 후 재적사찰에서 포교사로 활동하게 된다.

〈동국대=고영배 기자〉

내년 예산 97억원 종회상정

조계종, 직영사찰 수입 상향 조정·종책사업 책정

조계종 총무원은 지난 2일 종무회의를 개최해 1996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을 의결, 중앙종회에 상정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총 96억8천8백77만원으로 95년도 66억원에 비해 30억8천8백77만원이 인상(46.8% 증)되었다.

세입중 직영사찰 수입을 대폭 상향 조정했고, 세출에서는 종책 사업부문을 따로 책정했다.

금주 20면 발행

고속철 경주통과 반대서명 · 16 · 17면
불교 전산화 특별 좌담 · 9면

목어

우유는 대다수 국민이 즐겨 마시는 식품이다. 그런데 '고름우유'라니 말만 들어도 구역질이 난다.

우유생산업체들이 자기네 회사 제품은 '이상없다'고 발뺌을 하면서 서로 비방하는 공방전을 하고 있으나 어느 편을 믿을 것인가. 소비자를 우롱하는 이같은 논쟁은 오히려 국민의 비위를 거슬리게 하여 우유소비량을 줄일 뿐이다. 실제로 '고름우유' 시비가 계속된 1주일동안에 우유소비량이 7%나 줄었다고 한다.

'고름우유' 파동은 7년전에도 있었다. 그때 한 우유회사는 광고를 통해 '우리 후손에게 건강한 신체를 물려줍시다'고 역설했다. 그렇다면 또다시 이런 논쟁을 하기보다 국민건강을 위해 업체끼리 상의하여 잘못된 점이 있으면 솔직히 사과하면서 계선책을 강구하여 소비자를 이해시켰어야 한다. 이제 '고름우유다' '아니다'를 가리기에 앞서 기업이념을 외면한 우유생산 업자들에게 '혹시 마음에 고름주머니를 차고 있지 않느냐'고 묻는다면 실례일까.

고름주머니를 찬 사람들이 어디 우유업자 뿐이겠는가. 노씨의 비자금 파문도 다 고름주머니를 몇개씩 차고 앉아 정·관·경제계의 욕망 채우기에서 비롯됐고, 그러다보니 '부정부패 세계 15위'라는 오명을 남기게 되지 않았나.

고름주머니는 언젠가 터지게 마련이다. 그러면 덧나지 않고 새살이 돋아나도록 치료를 잘 해야한다. 노씨 비자금 비리도 그렇다. '나는 깨끗하고 너는 부정하다'식보다 속히 이물어 우리사회가 새로워지는 전기로 삼을 때 오늘의 울분과 아픔은 그 값을 지닌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잡초는 논밭을 망치게 하고 욕망은 사람들을 망치게 한다'고 경계하시면서 '황금이 소나기처럼 쏟아질지라도 사람의 욕망을 다 채울수 없다. 욕망에는 깜은 쾌락에 많은 고통이 따른다'고 일러주셨다.

방장스님 친견법회


◇ 혜암스님


◇ 승찬스님

현대불교신문이 창간 1주년을 맞아 그동안 성원해주신 독자님들께 보답하고자 한국불교 4대총림 방장스님 친견법회를 갖고 있습니다. 지난 10월15일 조계종 종정 월하스님(통도사 방장) 친견법회를 성황리에 가진 것을 시작으로 해인사 수덕사 송광사의 4대총림 방장스님을 친견하는 귀한 법회에 사부대중 여러분들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3차 11월 18일(토) : 조계총림 송광사 승찬 방장스님
4차 11월 25일(토) : 해인총림 해인사 혜암 방장스님

※ 문 의 : 수미산 여행사 국내부 (전화 : 732-0181~3)
각 회차별 참가비 2만원

신행이야기를 찾습니다

11월25일 마감 … 원고지 30매

현대불교신문이 창간 1주년을 맞아 신행수기를 공모합니다. 가슴에 묻어두기엔 너무나 아쉬운 신행의 이야기들을 불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신행수기 공모는 이웃과 함께 피안의 길을 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푸짐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으며 현대불교신문 지면에도 실리게 되는 신행담 공모에 적극 동참바랍니다.

■ 신행수기 공모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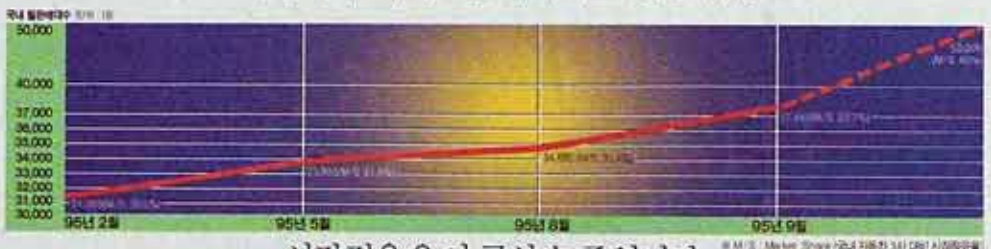
△ 공모내용 : 생활속 수행이야기 · 부처님 가르침으로 고난을 이겨낸 이야기 등
△ 원고분량 : 200자 원고지 30매 내외
△ 접수마감 : 95년 11월 25일
△ 접 수 처 :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전 화 : 722-4162 팩스 : 737-0698
△ 참가대상 : 불자면 누구나 동참 가능
△ 당선작발표 : 현대불교 96년 신년호 지면 당선작은 본지에 연재
△ 시상내용
· 유마상 : 상장, 상품(부처님상 조각 순금메달)
· 중단협의회장상 : 상장, 상품(부처님상 조각 순금메달)
· 본사 사장상 : 상장, 상금
· 특별상 : 상장, 상품
· 응모자전원 : 기념품 증정

현대불교신문사

인기상승! 기아가 달린다


고객이 원하는 차만을 만들고 있습니다.


차종마다 빅히트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시장점유율이 급상승 중입니다.

지금, 기아를 주목해 주십시오.
기아가 점점 빠르게 달리고 있습니다.

차종별 특성이 살아있는 진정한 풀라인업 구축,
소비자 중심의 신차개발과 잇따른 빅히트,
세계랠리와 세계시장에서 입증된 탁월한 품질,
하나의 목표를 향해 하나로 뭉친 勞와 使…
그결과,
기아차를 찾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내 자동차시장에 큰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新기술의 힘으로, 고객 여러분의 사랑으로
지금 기아의 성장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습니다.
기아를 계속 주목해 주십시오.

인간을 먼저 생각하는—
KIA 기아자동차

사 설

한·일 불교의 양심적 교류

해방 이후 한·일 사이의 갈등은 여러차례 거론되어 왔다. 그러나 근본적인 인식의 차이가 시정되지 않는 가운데 특히 최근 일본 지도층에서는 과거 식민지 통치에 대한 망언이 연달아 나왔다.

10월 30일부터 3일간 경주에서 한·일 불교문화교류 16차 대회가 열렸다. 지금까지 여러차례 인권, 평화, 상호이해 등 거창한 주제로 진행돼 왔으나 주최측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러한 불교도의 만남이 실질적으로 한 일간의 갈등 해소에는 기대하는 만큼 도움이 되지못해 왔다는 의견이다.

대회때마다 서로간에 진지한 토론은 그때뿐이고, 회의가 끝나면 속된 말로 '도로아미타불'이 돼왔던 것이 그동안의 실정이다. 회의 표제가 거창할수록 보다 빨리 그 여운을 허공에 흩어버리고 마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일본인은 불교도이며 한국도 인구의 반이 불교도이다. 만일 한 일 불교도가 진지하게 한 일간의 갈등해소에 노력을 해왔다면 한 일간에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을 것이다. 지금까지 한일·일한 불교문화교류대회는 양국간을 오가며 15회나 대회를 열어왔으나 그 내용이 너무나 추상적이었기 때문에 '공염불(空念佛)'이 되고 말았던게 아닌가 싶다.

같은 불교, 같은 경전을 가지면서도 한국·일본 불교의 내용은 크게 다르다. 이 흐름을 인식하지 않은 채 '불교' 또는 '불자'라는 공통적인 명칭만을 믿고 토론을 거듭한다면 진정한 뜻은 전하지 못할 것이다.

6세기 중엽 백제에서 일본에 건너간 불교가 효시가 되어 널리 보급되었으나 중세 이후 일본에서는 조사신앙(祖師信仰) 불교종파를 창시한 고승 개인에 대한 신앙)이 되고, 특히 근세 에도(江戶) 막부의 종교정책으로 사원은 말단 행정기관이 되고 말았다. 때문에 일본불교는 두드러지게 세속화되고 체제에 순화될 수 밖에 없었다.

그무렵 한국불교는 탄압을 받았으며 선(禪)과 수도를 주류로 삼았다. 어떤 시점에서 보면 한국불교와 일본불교의 차이는 불교와 기독교만큼의 차이를 느낄 수 있을 정도다. 하지만 불교가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 대승적으로 상호간에 보편적인 정신기반을 구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한·일 양 민족사이의 갈등은 한국인의 입장, 또는 일본인의 입장에서 해결방법을 거론할 때에는 항상 같은 말의 되풀이 밖에 없으며 그 패턴을 벗어날 수도 없다. 피해를 입은 한국인의 입장에서 일본인에게 항의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류적 차원에서 일제의 만행에 대한 반성을 촉구해야 하고, 또 일본측에서는 일본이 아닌 인류적 차원에서 과거에 대한 성찰이 나타나야 할 것이다. 바꾸어 말한다면 세계와 인류의 양심으로 한·일간의 과거와 미래가 논의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번 회의의 주제 '세계 종교 갈등과 불교의 평화노력'의 논의에 앞서 '한·일 불교관의 갈등'의 해소를 생각해야 할 것이며, 불교도의 양심으로서 한·일간의 미래문제가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불교를 포함한 모든 고등종교는 그 진면목을 보편성에 두며 인류의 진정한 평화와 번영을 목표로 삼고 있다. 개별민족과 국민차원의 번영이 아니라 인류·세계 전체를 위하는 것이다. '보살의 아픔은 중생에 대한 대비의 마음' 〈유마경〉은 바로 인류(중생)에 대한 대비이다. 불교는 그런 뜻에서 인류적 차원의 양심이기도 하다.

전세계의 고등종교는 K.야스퍼스가 지적한 바와 같이 추축시대에 거의 동시적으로 형성되었다. 저마다 문명권에 있어서의 문화적 전통은 다르나 한결같이 그 사회의 양심을 강조한 것이다.

세계적 위기상황을 통감하는 시점, 여러 인류는 새로운 정신혁명(추축시대)을 맞이했으며 불교가 국경·종파를 초월하여 공통의 양심에 자각되어야 할 것이다. 한·일 불교에 있어서 그 길은 먼 곳에 있지 않으며 바로 이웃하는 민족·나라를 인류적 양심으로 조명하는 일이다.

현대만평

박구원



자! 이제 마음을 비우고 입을 열게나…

열린마당

불교의 정치윤리

지도자의 덕목 — 정천구 〈인천대 교수〉



불교에서의 정치윤리는 한마디로 반야지혜를 덕목으로 들고 있다. 경전을 통해서 통치자에게 강조했던 것을 종합하면 지식보다 혜안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철학자이며 정치학자인 막스 베버가 지도자의 덕목으로 들었던 책임감, 정열, 통찰력 가운데 통찰력이 반야지혜와 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지도자는 자비, 중도, 평등, 평화 정신에 입각하여 나라를 이끌어야 한다.

작금의 '통치자원의 비자금'이란 관행은 지도자로서 혜안이 없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지도자로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일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은 혜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는 불자들에게도 반성해야 할 부분이다.

자비·지혜로운 통찰력 우선

한국의 정치상황으로 볼 때 불자들의 정치의식이 요구된다 하겠다. 국민의 대다수가 불자인 상황에서 단지 불자라는 이유만으로 검증없이 주권행사를 잘못했을 때의 결과는 엄청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번 통치권자의 비자금 파동을 계기로 우리 정치에 있어서 정치의식과 제도에 있어서 새로운 틀을 만들어 나가야 하겠다. 특히 대외적으로 북한, 일본,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 어려운 이 시기에 국내문제를 빨리 해결해야만이 국제적으로 뒤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경전에 나타난 지도자의 길

"왕이란 백성의 부모여서 도리에 의거해 사람들을 거두어 보호하여 굉안케 해주는 까닭에 왕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니건자경〉에 나오는 이 말은 불교에서 훌륭한 지도자와 올바른 정치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또 부처님은 왕의 지위로 백성을 억압하는 프라세나왕에게 이렇게 일깨웠다. "대왕이시여, 오직 외아들을 사랑하듯, 백성을 사랑하시오. 억압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스스로 자신의 욕망을 억제하며 악덕을 제어하고 바르지못한 가르침을 버리고 바른길을 가시오. 타인의 불행위에 자신의 행복을 쌓아서는 안됩니다. 괴로운 자를 돕고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며 병든 자를 구하시오. 왕의 지혜를 특별한 것으로 생각지 말고 아부하는 자의 말을 따라서는 안됩니다… 〈중략〉… 백성의 행복을 해치지 말며 백성들의 행복이 흔들리지 않는 토대를 닦아 주시오."

불교의 정치철학은 한마디로 민본에 있다. 이를 위해 불교는 통일과 평등을 중요시하며, 유심론의 입장에서 자유주의를 고수한다.

그래서 〈화엄경〉 입법계품에서는 국왕에 의한 수탈, 측근들의 횡포, 부패관료들의 횡포, 도둑의 날뜀, 외부의 침략 등 다섯가지 공포를 없애는 것이 나라를 다스리는 기초라고 말하고 있다. 특히 불교는 통치자의 자질과 성품에 대한 자격을 엄격히 제시하고 있다.

〈수호국계주경〉에서는 제왕이란 탐욕과 사치스러움이 없어야 나라를 제대로 다스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또 〈니건자경〉은 오직 제몸만의 이익을 꾀한다든가, 재물을 받고 치도(治道)를 굽힌다든가, 백성을 속여 나라를 어지럽게 만드는 제왕을 국가 최대의 악한 도둑으로 규정하고 있다.

백성을 외아들 사랑하듯…

모든 경전이나 문헌에도 있듯이 왕이란 제왕이 아니라 그의 제도하에서는 모두가 평등한 권리 및 정치적, 경제적 자유를 포함한 국가의 안녕과 백성을 위한 도덕적 지배자를 뜻한다. 〈우〉

백성의 사표가 된 참 불자 왕

아쇼카왕 〈중인도 마가다국〉

관리들 준법정신 강조

법을 실천하고 증장시키기 위해 일반 대중들에 대한 도덕적인 교화에 힘썼으며, 인도사상 최대의 제국을 건설했다. 국내 각지로 법의 순행을 하고 그 지방의 주민들에게 법을 가르쳤으며 법대관을 설치해 모든 사람들이 평등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모든 백성을 친자식처럼 아끼고 사랑했다.

특히 아쇼카왕은 "관리들은 모두 법에 따라 업무를 바르게 수행하고 범법하기 쉬운 자들을 일깨워 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보호, 법에 의한 처리, 법에 의해 안락을 주는 것, 법에 의해 언어와 행동을 삼가하는 것, 이것이 관리가 준수해야 할 규칙이기 때문이다"라며 흐트러지기 쉬운 공무원들의 준법정신을 일깨우곤 했다.

지 륜 왕 〈동인도 죠조리국〉

덕으로 다스린 평등 왕

착하게 세상을 다스려 불법을 널리 선양했으며 공정하고 덕있는 선정을 펴 만 백성을 편안케 한 임금. 그는 "이 국토에 사는 온갖 백성들은 언제나 밝은 법률에 의해 잘 다스려져야 한다. 굶주린 자는 구제되고 가난한 자는 동정을 받으며 국민이 죄를 지었을 때는 공평히 판결받아 억울함이 없게 하라"고 항상 일렀다. 이에 도둑이 없어지고 백성들은 안락을 누렸으며 국민들은 제 부모처럼 임금을 공경했고, 모두 평등왕이라 불렀다. 왕은 대전 앞에 누각을 짓고 큰 종을 주조해 걸어 소송할 것이 있는 자로 하여금 누각에 올라가 그 종을 치게 해 억울함을 하소연하게 하는 등 백성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시 론

盧씨도 불자라는데…

살얼음이 얼었다. 때 아닌 천둥 폭풍 불더니 낙엽 수북한 마당 한켠 비수처럼 얼음이 돋아나 더욱 춥게 한다.

계절의 변화에 따라 시시때때로 그림자를 바꾸는 숲은 예기치 않은 변화에 감기를 앓은 듯 수척하다. 세상이 늘 기계적 예측대로 변하는 것이 아니지만, 변덕 많은 날씨를 탓하기엔 너무 수상쩍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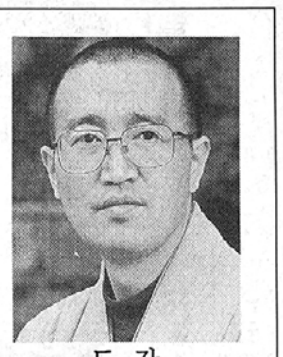
사람들은 이 한 때를 무엇인가 쌓으며 보낸다. 알곡을 거두고 땔감을 준비하고 두툼한 옷도 꺼내 입는다.

숲은 비워냄으로써 겨울을 준비한다. 가지 끝 나뭇잎 하나 마져도 바람에 실려 보내고 온 몸에 가득한 수분도 다시 땅으로 내려 보내 단단한 줄기만 겨울 바람에 드러낸 채 추위를 견디는 것이다.

쌓아둠의 겨우살이와 비워둠의 겨우살이의 차이가 섭리처럼 대비되는 까닭은 무엇인가.

불행히도 올 겨울은 차분한 겨울 준비의 미덕도 자연스럽지 않다. 나라의 안팎이 온통 전직 대통령이 부정하게 끌어모은 재물의 축재로 들끓고 있다.

한때나마 우리의 최고의 수장으로 모셨던 사람의 어이없는 행각은 분노를 넘어서 말문을 막히게 한다. 더욱 분노케 하는 것은 스스로 불자임을 자처했고, 대선에서도 불교도의 막대한 지지속에 최고의 권좌에 오른 인물이라서 우리의 배신감은 더욱 크다. 불교수행의 최고 덕목이 보시의 실천에 있음은 다시 말할 필요조차 없다.



도 각
〈사자암 주지〉

그런데는 검은 돈을 끌어 모으기에 바빴지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너무나 인색했다. 그가 교계의 복지단체에 성금을 보냈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다. 더구나 기막힌 일은 어떤 종교의 복지원에 매달 1천원의 성금을 냈다는 기사를 보고는 인면수심의 두 얼굴을 보는 듯하여 아연할 수 밖에 없었다.

한점 의혹없는 조사

이제 사과 성명을 발표하고 검찰에 불려가 조사도 받고 있으니 행위의 전말은 밝혀지겠지만, 이 또한 한점 의혹도 없이 낱낱이 파헤쳐져 국민의 바탕을 충족할지는 미지수다. 저들이 상투적으로 남용하는 정치적 관단에 의해 적당한 선에서 사건은 미봉에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에 얽혀있는 제반의 상황은 이러한 결과를 유도하기에 많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심판하는 자나 심판을 받는 자 모두 공히 이러한 부정한 굴레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역사의 행간에서 너무나 많이 보아왔고, 궁극적으로 이런 상황이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이번 사건에서도 불행히 우리가 마주치게 되는 벽은 이러한 정치적 흥정이나 거래일 것이다.

돌이켜 보면 우리는 우리의 역사에서 우리자신의 힘으로 역사의 부정적 퇴적물을 한번도 걸러내 보지 못했다. 민족 공동의 명제나 이익에 앞서 힘있는 자의 정파적 이해나 지역적 종교적 편견에 의해 이러한 선택이 강요되어 온 것이 사실이기도 하다. 우리는 그들에게 부끄러움 하나 없이 또 권력을 주지 않았던가. 이러한 관단 또한 우리의 부족하고 무지한 소치는 아니던가. 우리 또한 돈의 물신에 권력의 맹신에 양심을 저버리고 지조를 팔아오지는 않았는가. 문제는 이제 우리에게 허물어진 양심을 추스리고 의지할 언덕이 없다는데 있는지도 모르겠다.

업보사슬 벗는 참회

고서의 책 갈피속에 묻혀진 허유(許由)와 소부(巢父)의 고사에서 허물어진 양심의 소리를 듣고 싶다. 허유가 요(堯)임금으로부터 왕위를 물려주겠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자 허유는 귀가 더럽혀졌다면서 영천(潁川)으로 달려가 귀를 씻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멀리서 쳐다보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때마침 소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 소를 몰고 영천으로 온 소부였다.

소부는 허유에게 물었다.

"냇가에 와서 귀를 씻고 있구려. 대체 무슨 일이오?"

"글쎄, 내게 임금의 자리를 준다지 않소. 그래, 그런 말을 들어 내 귀가 더럽혀졌으니 이렇게 씻고 있는 거라오."

이렇게 대답한 허유는 돌아서 기산(箕山)으로 들어가 버렸다. 소부는 막 물을 먹으려던 소의 머리를 잡아 돌렸다.

"더러운 말을 씻어냈으니, 이 물 역시 더럽혀졌네. 소에게도 물을 먹일 수 없지."

마음을 비웠다는 이들의 각축장에서 차지한 최고의 자리에서 마음을 비우지 않은 싸움을 보면서 비움으로 겨울을 준비하는 숲으로 들어가 잠시라도 겸허해지고 싶다. 소에게도 물을 먹이지 않은 지조의 사람은 정녕 우리 곁에 없는지. 스스로 못난 노태우라고 칭한 노태우씨는 이제라도 자신의 못남과 그 업보의 사슬을 벗는 길은 차가운 감옥에서 마음을 비운 뼈깎는 참회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받아 들여야지, 과거의 환상에 사로잡혀 긍지를 벗어나려고 코먹은 소리를 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은 자신의 변명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허물을 과감하게 드러내는 결단으로 비참한 지금의 현실을 조금이나마 바꾸어냈으면 한다. 이렇게 비워냄이 없으면 아무리 쌓아두고 뭉쳐두더라도 이 겨울의 추위를 이겨낼 수 없을 것이다.

불교방송 정상화에 즈음하여

불교방송인의 사명은 무엇보다도 부처님의 교법을 이땅 구석구석까지 전파매체를 통하여 홍포함으로써 정토실현의 향도적 역할을 담당함에 있습니다. 1990년 5월 1일 2,000만 전 불교도의 염원과 원력의 총화로 출범한 우리 불교방송은 그간 5개 여 성상을 지내오는 동안 괄목할 만한 발전을 해왔습니다. 감동 감화를 주는 큰스님들의 설법과 질 높은 교리 방송은 신행의 올바른 길잡이가 되었고 양질의 교양프로는 국민의 정서를 순화하며 종교방송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왔던 것입니다. 특히 '무명을 밝히고'나 '거룩한 만남' 또는 각종 뉴스프로 등으로 사회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불교의 위상을 높이고 불교의 자비정신을 생활 속에 구현함은 물론 불교적 의지를 세상에 천명하는 데 남다른 기여를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뿐만 아니라 5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지방국을 4개소나 설립 또는 추진하여 전국을 가청권으로 묶기 위해 지금도 우리 불교방송의 130여 임직원 모두는 정성을 다해, 좋은 방송프로를 개발하기 위한 맡은바 업무에 매진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과는 전 종도들의 깊은 관심과 물심양면의 큰 배려 속에서 가능했던 것이라고 보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방송국 문제로 인하여 교단 안팎에서 많은 비판과 질책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재단법인 불교방송 이사회에서는 몇 번의 이사회를 개최하며 방송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해왔고, 고심 속에 문제가 되었던 임직원을 사퇴케 하는 한편 역동적으로 방송프로를 개편하는 등 제반 노력을 다해왔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조계종 스님들의 방송출연 금지 및 협찬금지 조치도 해제되고 이제 점진적으로 불교방송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회복해가고 있음은 오직 전 종도들의 관심과 배려 덕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10월 말까지 신임사장 선임 등 모든 업무를 종결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업무상 여러 가지 난관이 있어 다소 늦어지고 있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또한 여러 이사님들의 고견과 업무계획에 따라 조속한 시일 안에 이사회를 거쳐 모든 종도들이 수긍할 수 있는 경영 책임자인 사장을 선임하고 본인은 이사장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것임을 지상을 통해 밝히는 바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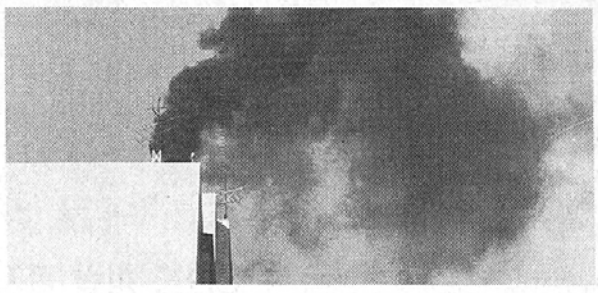
이제 우리 불교방송은 제2의 창업을 하는 비장한 각오로, 신심을 바쳐 매사에 임할 것입니다. 오늘의 이 아픔이 내일의 도약을 위한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뜨거운 관심과 물심양면의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불은에 보답하는 자세로 어떤 난관도 극복할 것임을 밝힙니다.

불기 2539년 11월 1일

재단법인 불교방송 이사장 사장 직무 대행 박 종 하 합장

암 · 산성비 · 식물고사 등의 주범

부처님의 지구 사랑 — 전 재 성 ㉛



◇각종 공해에서 비롯된 유독물질은 대기를 오염시켜 생태계에 악영향을 준다.

기름·석탄·가스연소시 발생…이산화황 가장 위험
인체내 중금속 67% 호흡통해 유입 성인병 유발

대기오염 물질

부처님께서는 바람의 세계가 언제나 청정한 바람의 즐거운 세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수행승들이여, 만약 여기 바람의 세계가 즐거움을 수반하고 즐거움을 드러내고 괴로움을 드러내지 않는 순전한 즐거움이라면, 뭇 삶들은 바람의 세계를 싫어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바람의 세계도 괴로움을 수반할 수 있고 괴로움을 드러낼 수 있는 괴로움의 세계이므로 공해에 시달리고 있다.

청정한 바람을 오염시키는 물질은 주로 화석화된 연료인 기름, 석탄, 가스를 연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특히 그 가운데 위험한 것은 이산화황(SO_2)과 이산화질소(NO_2) 또는 그와 유사한 물질의 발생이다.

구체적으로 이산화황은 화력발전소 및 열관리설비에서 가장 많은 50~60%가 발생하며 그밖에 일반 산업체에서는 30~40% 정도, 가정용 연료소비에서는 10% 정도, 자동차와 교통공해에서 5% 정도 발생한다.

거기에 비해 이산화질소는 거꾸로 자동차와 교통공해에서 가장 많은 60~70%가 발생하며 화력발전소나 열관리설비에서 20% 정도, 그밖의 산업체에서 20% 정도이며 가정용 연료에서 5% 정도이다.

이러한 이산화황과 이산화질소는 산성화하지 않고도 바로 식물의 잎의 숨구멍을 통해 세포속에 들어가 신진대사를 저해하며 영양분을 파괴시키며, 동물체내서는 기관지염을 일으키고 폐기능을 손상시킨다. 또한 가스의 상태로 공중에 부유하며 바람속의 수분과 만나 거기서 황산이나 질산을 형성한다. 이러한 황산이나 질산은 비나 안개, 눈, 서리, 이슬 등을 오염시켜 결국 무서운 산성비의 원인이 된다.

특히 교통공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이산화질소는 공기중의 햇빛의 작용으로 오존(O_3)을 형성한다. 특히 이때에 탄산수나 강한 햇빛이 존재하면 그 반응이 가속화되어 오존의 생산이 증대한다.

$$\text{이산화질소}(NO_2)+(O_2) \xrightarrow[\text{탄산수}]{\text{햇 빛}} \text{오존}(O_3)$$

이때에 발생되는 오존은 특히 식물체의 생장점에 직접 작동하여 그것을 파괴시키는 역할을 하며, 동물과 인간에게는 폐기능을 손상시킨다.

그밖의 대기오염 가운데 중요한 요소로서 플로오르의 화합물질들이 있는데, 그것은 알루미늄의 포장이나 벽돌공장, 쓰레기소각 처리에서 생겨나며, 식물들의 잎이나 침엽에 침투하여 신진대사를 방해하며 오존층을 파괴한다.

또한 대기오염물질로 교통공해에서 발생하는 에틸렌과 같은 탄화수소계통의 화합물질이 있는데 그것은 식물의 잎을 멍들게 할 뿐 아니라 인체에 직접 작용하여 무서운 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지막으로 꼭 언급해야 할 대기오염의 중요한 물질 가운데 중금속오염이 있다. 납, 카드뮴, 아연 등은 열기관, 금속포장업체, 쓰레기처리장, 중화학공업단지, 군사기지 등에서 대량으로 방출되어 공중에 부유하며, 특히 산성비에 용해될 경우 거기서 일어나는 화학반응은 모든 환경공동체에 작용하며 특히 생체내에 침투 축적됨으로써 항구적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현재(1994년 10월) 서울의 대기중 납오염도는 모두 환경기준치를 훨씬 초과하고 있다. 영등포구 문래동의 경우 0.2865ppm으로 환경기준(0.1ppm)의 3배이고, 불광동이 0.2882ppm, 신림동이 0.1691ppm, 광화문이 0.1623ppm을 기록하고 있다. 각종 암을 비롯한 성인병을 일으키는 성인들의 체내에 축적된 중금속의 67% 정도가 공기호흡을 통해 흡수된 것이라고 하니 가공할 대기오염의 실상에 걱정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한국불교대 교수〉

'95 신행 캠페인

참다운 불자가 됩시다

불자라면 누구나 법회때 삼귀의(三歸依)를 올린다. 거룩하신 부처님과 그 가르침과 스님들께 귀의한다는 내용이다. 삼귀의는 단순히 돌아가 의지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일방적이고 막연한 의지는 종교적 행위라 할 수 없다. 자신의 투철한 신심과 공경의 마음이 배어 있을 때 삼보(三寶)에 대한 의지가 종교적인 의미를 갖게 된다. 이는 겸허한 신앙생활의 발로이기도 하다.

그러나 최근 불자들의 삼보에 대한 공경심이 흐려지고 있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공경심이 약해진다면 아무리 훌륭한 법문을 듣고 경서를 읽어도 자신의 삶에 종교적 환희심을 주지 못할 것이다. 또 승단에 대한 공경의 수준이 하락한다는 것도 제대로 불교에 의지한 삶을 살지 못하는 요인일 수 밖에 없다.

금주의 주제 — 삼보 공경

우리는 무의식중에 타인에게 삼보를 낮춰 얘기하기도 하고 이유없이 비하시키는 사람들을 만나는 경우가 있다. 뿐만아니라 스스로 불자임을 자처하면서도 삼보를 가볍게 여기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그 배경에 삼보가 청정하지 않다거나 위의가 흐트러져 있는 경우는 없다. 다만 스스로의 마음이 흐트러져 있거나 아만해져 있기 때문에 삼보비하 또는 비방의 목소리를 내게 되는 것이다.

최상의 귀의처 · 불자되는 첫 조건
형식보다 마음으로 섬기며 의지해야

삼보는 언제나 청정하다. 언제나 청정 그대로의 위의로 존재하고 있는 삼보를 자신의 잣대에 비춰 흐려 놓는다면 그것은 큰 죄업이 된다. 간혹 승려로서의 위의를 흐트리는 스님을 보았다 하더라도 그 행위나 보여지는 외형을 두고 거북스런 언행을 했다면 그 구업은 결국 자신의 것으로 돌아 오게 된다.

보다 불자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청정심을 체득해 나가야 한다. 자신의 일방적인 견해로 남을 해롭게 하는 것도 큰 죄업이 될 것인데 삼보를 공경하지 않는 언행을 일삼는다면 그는 불자로서의 기본자세가 안되어 있다고 봐야한다. 입으로만 부르는 '삼귀의'는 노래에 불과하고 마음으로 정성껏 섬기며 의지하는 삼보는 신앙생활의 환한 거울이자 지침임을 잊지 말자.



◇백련이 초암을 짓고 수도하던중 그 장소에서 흰 연꽃이 솟아나와 창건했다는 백련사는 오랜 역사의 굴곡 속에서도 끊임없는 법통을 이어오고 있다.

신행수첩

'남 돕는 것이 참불공'
성철스님문도회 모금운동

"부처님께서는 오직 중생을 이롭게 하고 도와주는 것이 참다운 불공이라고 하셨습니다. 몸과 정신으로 또 물질로 남을 돕는 것이 모두 불공입니다."

성철스님의 '남 모르게 남을 돕자'는 말씀이다. 성철스님문도회는 이같은 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 이웃돕기 자비의 모금' 운동을 소리없이 펼치고 있다.

올해는 유난히 사건사고가 많았다. 다리가 무너지고, 가스가 폭발하고, 백화점이 내려앉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가족을 잃은 슬픔과 고통, 사고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슬픔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그러한 우리 이웃을 위해 그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하는 불자들은 다음의 구좌로 성금을 보내주시되, 송금자 이름 뒤에 '자비'라고 적어 넣으면 된다. (0599)32-7300

(국민은행: 658-01-0238-800 · 예금주=해인사 백련암)

통일 준비하는 마음가짐
btn 구룡사서 초청특강

머지않은 장래 통일시대를 맞을 불자들은 어떻게 해야할까? 21세기 통일을 준비하는 불자들의 마음가짐을 제시해주는 강연이 열린다.

불교텔레비전은 오는 13일 오후 12시30분 양재동 구룡사 문화회관 1층에서 정용길 동국대 행정대학원장을 초청, '통일시대 불교인의 역할'을 통해 불자들로 하여금 사회에서 실천해야 할 길을 제시해 준다. (02)3270-3387

수도도량 이름난 백련사
두레문화기행 26일 답사

덕유산 중심부의 해발 900m 고지에 자리한 백련사는 옛부터 수도장으로 이름난 절이다. 6·25때 소실됐으나 1961년 재건된 백련사는 관광붐에 힘입어 본격적인 중창불사가 진행돼 현재는 대웅전을 비롯 원통전, 선수당, 보제루등 적지 않은 사찰규모를 갖추고 있다.

두레문화기행이 이곳 백련사로 오는 26일 불교유적답사를 떠난다.

유구한 역사도 그렇지만 일주문을 들어서면 매월당 부도와 서산대사의 수계사인 일선대사 부도가 눈길을 끈다.

특히 매월당 부도는 대석과 탑신으로 구성된 간단한 석종형부도로서 정상에 복련을 조각한 보주(寶珠)가 놓인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여관촌에서 백련사까지는 6.2㎞ 거리인데 계류에 따라 잘 닦아진 외길이므로 초행자도 쉽게 찾을 수 있다. 백련사까지 오는 도중엔 인월화상이 인월사를 창건하고 수도하였다는 인월담이 있으며, 구천폭포를 지나 이속대에 이르면 울창한 숲사이 계곡의 거암을 타고 떨어지는 폭포소리가 장관이다. (02)712-5812

석굴암엔 신라의 미소가
부산불교교육원 사찰 강좌

백문이 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이라고 했던가. 역으로 백견이 불여일문(百見不如一聞)이면 어떨까?

보고 듣던, 듣고 보던 사전지식이 있다면 무슨 일에든 수월할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런 기회를 부산불교교육원이 제공한다. 아마 강의를 듣고 석굴암을 보면 통일신라의 이상적인 미소와 인물을 느끼게 될 것이다. 또 동해를 보고 앉아서 왜구를 막고자 하는, 본존의 방향을 보고 국토보존을 열망하는 의미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즉 미술적 관점으로만 접근하였기에 어렵고 전문적으로만 느꼈던 문화재를 부산불교교육원은 불교적 관점으로 접근, 선조의 삶을 쉽고 자세하게 이해시키는 계기를 마련한다.

세계관 · 삼문 · 종각 · 한국탑의 이해, 불보살의 상호와 신앙, 지옥세계, 석등 기타 석조물의 내용으로 매주 첫째 월요일 강의로 불교 · 민족사상을 통한 사찰에 담긴 뜻을 되새겨 보자. (051)466-4080

민족의 정신적 고향 불교
청년여래회 불교학당 열어

우리민족에게 있어 역사와 불교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불교는 우리역사에서 민족의 정신적 귀의처로 자리잡아 왔기 때문이다.

청년여래회가 청년불자들의 역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오는 21일까지 불교학당을 열었다.

이번 불교학당에서는 만화가 박재동씨의 '일본문화의 침투와 대책' 한승원씨의 '불교문학세계' 등 모두 10개의 강좌가 열린다.

강좌는 매주 화 · 목요일 두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02)725-8818

군법당에 법사님 모셨으면…
설법자료 · 테이프도 부족

저는 경기 연천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며 군법당 정립사에서 군종병으로 복무하고 있는 박경재입니다.

저를 비롯해 몇명의 군종병들이 막연히 신심 하나만으로 법당을 꾸려가고 있지만 저희 법당에 설법을 해주실 법사님이 계시지 않아 법회를 진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평소 현대불교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는 있지만 법회를 이끌어 가기에는 너무도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특히 기본적인 법회의식과 예절 등은 책을 통해 배울 수 있지만 설법을 할 만한 책이나 자료가 없어 군불자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 군불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부처님 말씀을 더 전하기 위해 여러 불자님들께 설법자료나 설법 테이프 등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가르침과 격려 보내주시길 기대합니다.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왕림리 사서함 92-21호

정림사 군종병 박경재

대한불교 조계종 중앙신도회 발기인 대회 및 창립준비위원회 결성식 공고

귀의 삼보하옵고

1600년의 역사와 민족 종교로서의 전통을 자랑하는 대한불교 조계종의 재가불자를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신도조직인 중앙신도회의 창립을 위한 발기인 대회를 개최합니다. 지난 해 사부대중 모두의 원력으로 시작된 개혁불사를 통해 변화를 시작한 조계종의 건강한 주체로서의 재가불자의 결집을 위한 이 자리에 뜻있는 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일 시** : 불기 **2539**년 **11**월 **11**일 (토) 오후 **3**시
■ **장 소** : 조계사 대웅전
■ **식 순** : 식전행사 : 길놀이, 사물놀이—오후 2시
본행사:발기인 대회 및 창립준비위원회 결성식—오후 3시
뒷풀이:풍물놀이
■ **법 어** : 송월주 스님(총무원장)
■ **유의사항** :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기인 동참 자격

개혁차원의 새로운 전국 신도대표기구 결성 취지에 찬동하고 신심과 애종심이 있으며 신행경력이 인정되는 사람이면 누구나 동참할 수 있습니다. 교구 본말사의 전현직 신도회장 및 임원과 전국규모의 직능 신행단체의 본부 임원 및 지부 지회장, 연합 신행단체의 중앙본부 임원 및 산하단체 임원과 지역 및 개별 신행단체의 임원, 기타 발기 취지에 동감하는 개별 인사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중앙신도회 창립 발기인 동참 보시금

1인당 ₩**100,000**원 이상(이 보시금은 중앙신도회 결성을 위한 준비기금으로 사용됩니다.)

■ 발기인 승락서 및 동참 보시금 접수

접수처 : 포교원
계좌번호 : 국민은행 **023-01-0533-326**
예금주 :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주소: 서울 종로구 견지동 **45**번지 포교원(〒 **110-170**)
전화 : **720-7060~4** / 팩스 : **720-7065**
동참보시금 발기인 대회 당일 접수 가능

대한불교 조계종 중앙신도회 결성준비 실무위원회



국내 선방돌며 수행지도



숭산스님(화계사 조실)은 미국 등지의 해외 홍법원에서 포교활동을 하다가 지난 10월 28일 귀국했다. 화계사에 주석하며 국제선원과 계룡산 심원사등 선방 수좌들의 수행을 지도할 계획이다.

월정사 주지 유임



현해스님은 지난 2일 산중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월정사 주지에 재선됐다. 민주적 방식인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된 스님은 총무원장의 발령으로 유임이 확정된다.

고형곤 박사 초청 '禪' 강연



법산스님(동국대 정각원장)은 오는 14일 오후4시 정각원에서 고형곤 박사(전 전북대 총장)를 초청, '한국의 선'을 주제로 법회를 갖는다.

한·미얀마교류협 준비위장



법혜스님(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 의장)은 지난달 25일 동국 관광호텔에서 열린 한·미얀마 문화교류협회 발기인 총회에서 창립추진준비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대각국사 탄신기념 보살계



지허스님(태고종 선암사 주지)은 오는 20일 오전10시 조계산 선암사에서 대각국사탄신 9백40주년기념 보살계 및 만등불사를 봉행한다.

보살계 대법회 봉행



광진스님(정중선원 주지)은 오는 27~12월 11일까지 무진장스님을 증명법사로 보살계 대법회를 봉행한다.

승가대 총무처장에 선임



해관스님(구미포교원장)이 지난달 30일 중앙승가대학 직원인사위원회에서 총무처장으로 선임됐다.

獨·伊등 유럽 7개국 순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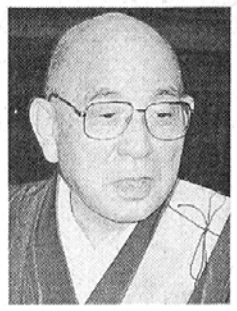
황학현(불교교육연구원장)은 대한불교소년소녀합창단 유럽공연 준비차 지난달 15~29일까지 독일·이태리등 유럽7개국을 순방했다.

한국회화협회 전시회



이억영씨(한국회화협회장)는 제15회 한국회화협회전을 오는 8일까지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열고 있다.

日韓불교교류협의회장 다나까 닛쥰 스님



"양국 우호관계 정립 불자의 몫"

90여명의 참가단을 이끌고 제16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에 참가한 일·한 불교문화교류협의회장 다나까 닛쥰스님(82)은 "한 일 양국은 싸움 많이 하면서 자라는 형제"라는 말로 한일 양국 관계를 표현했다. 국가라는 개념에서 한 발자국만 떠나면 얼마든지 친밀할 수 있는 관계이기에 한국과 일본의 불자들이 두나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데 첨병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이 두번째 한국 방문이라는 스님은 "한국과 일본 양국의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로서 한일 불교교류대회가 양국 불자들에게는 무척 소중한 기회"라면서 불교행사마다 수많은 대중이 모여드는 한국불교를 부러워했다. 일본은 국민의 85%가 불자지만 전국적으로 큰 행사를 치르더라도 많은 대중을모으기가 힘이 든다고 양국을 비교했다.

지난 9월 일본의 각 종파가 모여 일한 불교교류협 회장으로 추대했을때 처음엔 고사했지만 한국과의 인연으로 취임을 수락했다는 다니까 회장은 특히 경주와 같이 아름답고 그윽한 천년고도에 와보게 돼 무척 인상적이라고.

"많은 불교유적을 지닌 경주에 고속철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유적파괴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다. 다나까 스님은 일련종 대본산 지상본문사 주지로, 차기 일련종 종정으로 지목되고 있다.

〈경주=이경숙 기자〉

게시판

▲불교발전강연회=부산불교실업인회(회장 김정태)는 오는 24일 오후2시 국제문화센터 대강당에서 근일스님(부석사 주지), 송석구박사(동국대 총장)를 초청, 불교발전대강연회를 개최한다. (051)466-7174

▲충북 불교방송 현판식=충북불교방송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월성스님)는 오는 8일 정오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삼호빌딩 4층 추진위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거행한다. (0431)211-2090~1

▲우리는선우 수련회=우리는선우는 19~20일 누가나 참여 할 수 있는 수련회를 영주 부석사에서 실시한다. 안동 봉정사도 참배. (02)278-8672~3

▲제56회 다보법회=진흥원은 오는 8일 오후2시 불교방송 3층 공개홀에서 박용운 고려대 사학과 교수를 초청 '고려시대 그 문화일반'이란 주제로 강연을 연다. (02)703-0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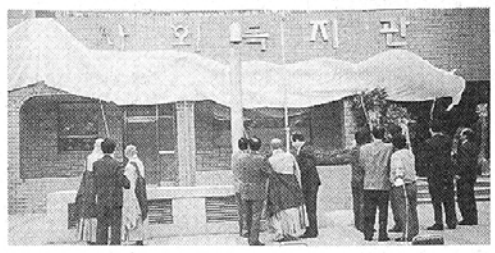
화촉 불교방송 조사자료부 박호창씨가 주상미씨와 오는 19일 오후1시 대구경북대 동창회관에서 화촉을 밝힌다. (053)943-6992



대한민국 종교음악제 성료

제6회 대한민국 종교음악제가 지난 2일 오후7시부터 국립중앙극장 대극장에서 열렸다.

이날 음악제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 주돈식 문체부장관 불교방송이사장 종하스님 기독교 방송사장 권호경 목사 평화방송사장 박신언 신부 천도교 김재중교령 NCC 김동완총무 광우스님등 각 종교계 지도자들이 참가 종교의 화합을 염원했다.



부천 덕유사회복지관 개관

조계종 석왕사 부설 덕유사회복지관(관장 영담스님)이 지난달 28일 부천시 동복지관에서 개관식을 거행했다.

덕유복지관은 지하 1층 지상 2층에 아동에서 장애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복지시설을 갖추었다. 이날 개관식에는 영담스님시현스님 안동선·배기선(국회의원) 김장호씨(원미구청장) 한병환등 3백여명이 참석했다.



동국대 정보통신교육센터 개원

학교법인 동국학원(이사장 녹원스님)은 지난 1일 오전 11시 전자계산원에서 정보통신교육센터 개원식을 봉행했다.

9월15일 (주)데이콤과 산학협력협정을 체결하고 개원한 정보통신교육센터는 최첨단 통신시설을 갖추고 동국학원 산하학교 재학생, 교직원 및 일반인 기업체 임직원등을 대상으로 교육할 예정이다.



김인덕교수 화갑기념논총 헌정

'현강 김인덕박사(동국대교수) 화갑기념논총 헌정식'이 지난달 28일 롯데호텔에서 열렸다.

김인덕교수는 인사말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정직하고 성실히 살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장에는 대산 삼론종정, 김영태 한국불교학회장, 송석구 동국대 총장, 정태수 내무부차관등 사부대중 3백여명이 참석했다.

"본받을 만한 말·행동하는게 포교"

포교사 고시 응시한 미화원
명 순 식 할머니



"문제지를 받고보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군요. 그래도 돋보기를 대고 꼼꼼히 살펴보니 문제들이 불교대학에서 듣고 배운 것이어서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29일 조계종이 실시한 포교사고시에서 젊은이들과 함께 시험을 치른 동국대 미화원 명순식(68세 법명 보명화) 보살은 "난생 처음 받아본 시험지가 얼떨떨해 내내 관세음보살만 찾았다"고 웃는다.

명보살은 "일찍 남편을 여의고 미화원을 하면서 세 아이를 남부럽지않게 키운 것은 부처님전에 기도한 덕이었다"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세히 알고 싶어 공부를 시작했고 포교사고시에 응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명보살은 "배우지 못하고 능력이 부족하여 정식포교사 활동은 하지 않을 것"이며 "학생들과 같이 생활하다보니 이들에게 본보기가 될만한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곧 포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염〉

"소홀했던 분야 찾아서 일 할래요"

우리는선우 학생회
황 경 수 초대회장



"단순히 법회만 보는 학생회가 아닌 움직이는 불교학생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월 28일 구룡사에서 창립법회를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간 우리는 선우 학생회 황경수(항공대 3년) 초대회장은 "젊은 불자답게 해야할 일을 찾아서 일하는 학생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회장은 "그동안의 불교가 정적인 어른들의 불교였다"고 지적하고 "우리는 선우학생회는 깨어있는 새로운 불교활동을 펼치겠다"고 포부를 내보였다.

황회장은 구체적인 활동으로 환경운동, 자원봉사활동 등을 들면서 "그동안 불교계가 소홀했던 분야를 찾아 일하는 학생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30여명의 회원이 등록한 우리는선우학생회는 성태용교수(건국대)를 지도법사로 우리는 선우 사무실에서 매주 일요일 법회와 교리공부를 하고 있다.

탐 방
대구 개인택시정법회

'달리는 법당' 최일선 포교사

86년 창립 회원 5백여명… '둥글은 삶' 지향
염주달기·효도관광·소년가장 후원 벌여



◇ 정법회회원들은 매월 첫째 셋째 목요일 개최되는 정기법회를 통해 신심을 다진다.

대구시내에서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이면 누구나 고승대덕의 법문을 쉽게 들을 수 있고 달랑거리는 염주를 볼 수 있다.

이렇듯 택시에 염주달기가 보편화된 것은 개인택시 운전불자로 구성된 대구 개인택시불교정법회(회장 김주본)가 87년 4월부터 '영업용차량 염주달기 캠페인'을 벌였기 때문이다.

거리의 포교사 혹은 달리는 법당으로 일컬어지는 정법회는 지난 86년 원각스님(정법사 주지)의 원력으로 부처님의 정법수호 및 회원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창립됐다.

올해로 창단 10주년을 맞는 정법회는 그동안 회원배가운동과 알찬 신행활동으로 현재 등록회원 5백명, 활동회원 2백60여명이나 되는 대규모 신행단체로 발돋움했다.

88년 자체법당을 마련한 이후 매월 첫째, 셋째 목요일마다 정기법회를 보고 있는 정법회는 바쁘게 달리는 차량만큼이나 신행활동도 왕성하다.

전국기능올림픽 임원 및 선수 수송에서부터 맹인불자 등 반대회 수송 및 안내, 예천 연꽃마을 돕기, 소년소녀가장돕기, 양담바 불매운동, 효도관광 등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손꼽기 어려울 정도.

특히 차량으로 인한 대기오염이 날로 심각해 짐에 따라 만회라도 하려는듯 지금까지 6차례에 걸친 자연보호 캠페인도 벌였다.

법문테잎을 틀어준다거나 경전의 말씀을 직접 전함으로써 포교하는 회원들은 먼길 떠나는 나그네의 발이 되어 주는 한편 승객들의 마음의 짐까지 덜어주는 보살행을 실천하고 있다.

빠듯한 수입으로 인한 생활불안정, 장기간의 운전으로 인한 만성 소화불량과 하체약화 등을 감수해야 하는 어려운 여건속에서 대부분 7년 내지 10년이상의 무사고 모범운전자들임을 감안한다면 정법회원들이 모범불자임을 짐작하기란 그리 어렵지 않다.

둥근 차바퀴처럼 둥근 운전대처럼 둥글게 회전하는 차의 궤적처럼 원만구족한 삶을 지향하는 정법회 회원들은 물의 흐름과도 유사한 교통의 흐름속에서 삶의 순리와 역리를 깨닫기도 한다.

달리는 법당의 최일선 포교사인 정법회원들은 앞으로 전국의 군소 시·군에 운전자 불자회를 결성하는 것과 타종교인이 들어도 부담없고 좋은 법문 테잎을 제작하는 서원도 세워놓고 있다.

한대의 택시를 하루평균 1백여명 이상의 승객이 이용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택시포교는 김주본회장의 말대로 '황금어장'인지도 모른다.

이윤호 기자

(사) 한국불교 발전 연구원
'95년 추계 세미나 및 동국대학교 승가 총동문회 정기총회

주제 : 21세기 한국승가의 선교육 후득도(先敎育 後得道) 제도 방안

다가오는 21세기 한국사회의 시대상황속에서 승가가 시대요구에 적절히 대처하며 사회를 계도하는 정신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하려면, 근본적으로 현 승가교육제도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아래와 같이 본 행사를 개최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아 래 —

▩ 일시 : 불기 2539년 11월 13일(월) 오후2시
▩ 장소 : 소피델 엠베서더 호텔 서궁

• 기조강연 — 한국불교 出家衆의 교육제도에 관한 試論…현해스님/월정사주지 본연구원 상임이사
소 주제 1. 21세기 한국사회에서 성직자의 역할…윤원철교수/서울대종교학과
2. 선교육 후득도 제도의 구체적 방안…홍선스님/중앙승가대교수
• 사 회 자 — 정인스님/중앙승가대교수
• 토 론 자 — 법산스님/동국대교수
향적스님/조계종교육원 교육부장
박선영교수/동국대교육학과
• 자료집 부록 — 원불교 성직자의 교육과정과 개선방안…정성길교무/원불교서울교구청
천주교 성직자의 교육과정과 개선방안…양재오신부/한국외방선교회
개신교 성직자이 교육과정과 개선방안…이정희목사/한국신학연구소
*당일 17 : 00부터는 동국대학교승가총동문회 정기총회가 동장소에서 개최됩니다.

문의 ☎02)736—6202~3

주 최 (사)한국불교발전연구원
주 관 동국대학교승가총동문회
후 원 대한불교 조계종 교육원

담화문
—승가 기본교육 이수를 촉구하며 —

개혁회의를 통해 종단 교육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갖추고자 교육원이 새로이 개원되었습니다. 이에 교육원은 설립취지에 맞게 종헌종법의 규정대로 모든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승려법 제18조에서 **비구·비구니계를 받으려는 자**는 '첫째, 연령 20세 이상인 자, 둘째, **종단에서 설치 또는 지정한 기본교육기관인 승가대학 또는 기초선원과정을 이수한 자**'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본교육기관으로서는 중앙승가대학·지방승가대학·기초선원**이 있습니다. 특히 지방승가대학은 교육법 제67조에 의거 교육원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된 승가대학을 이수해야만 기본교육이수자로 인정**됩니다. 다만 교육법 부칙 제3조에 의거하여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을 이수하는 자에 한에서는 기본교육이수자와 동등한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제법 제7조에서 예비승인 사미, 사미니, 식차마나니는 만의를 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원이 개원된 올해(불기 2539년)부터, 즉 **제8기와 제9기 행자교육원을 이수한 예비승인 사미(니)는 반드시 만의가사를 착용해야만 합니다.** 각 본사 및 승가대학에서도 이를 숙지하시고 학인들로 하여금 모든 의식 때 반드시 만의를 착용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기본교육기관 이후로 전문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전문교육기관은 학림·승가대학원·율원·선학연수원**입니다. 기본교육기관을 이수하고 수행과 교육을 계속하고자 하는 자는 전문교육기관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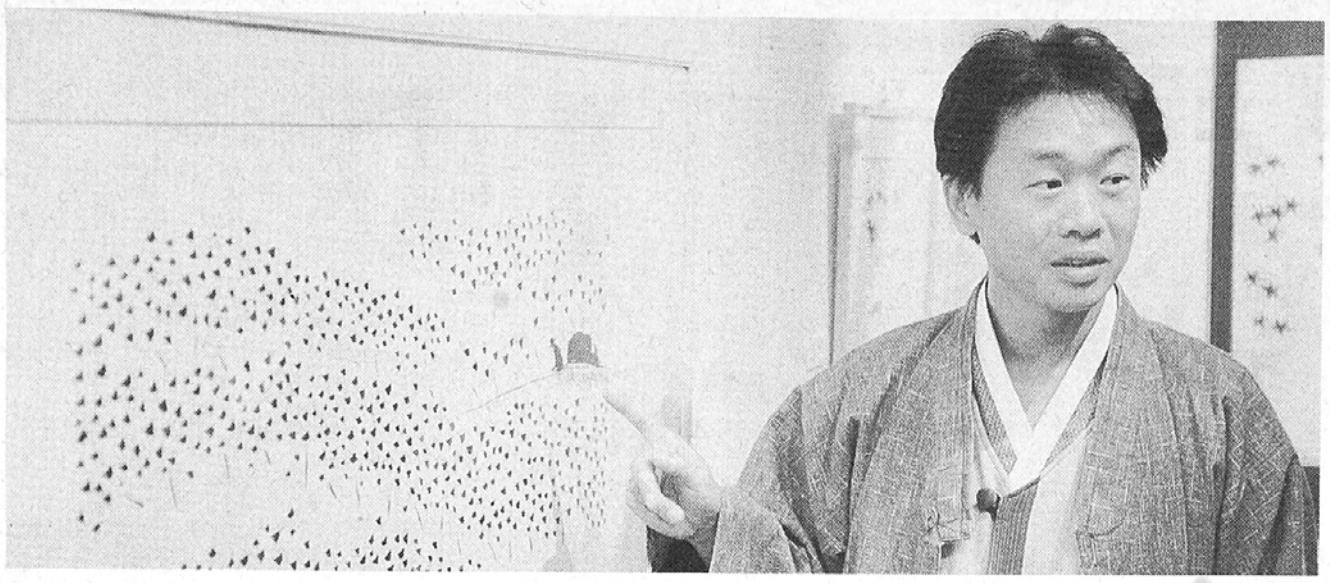
그리고 **종단의 모든 스님들은 승려법 제26조에 의거하여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교육법 제108조에 의거하여 법계심사와 종단의 인사에 있어 불이익을 당합니다.

자아완성과 정토구현을 위해 끊임없이 정진해야 할 우리 승가들에게 기본교육과 연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하기를 공고합니다.

석가세존의 자각각타 각행원만한 근본교리를 봉체하며 직지인심 견성성불 전법도생함을 종지로 하는 우리 종단의 모든 수행자들에게 심심한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정진에 원만한 성취·회향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불기 2539년 11월 일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장 김 원 산



산문밖의 禪

"제 삶에 대한 반성의 기회로
그림의 여백을 충분히 살립니다
여백을 통해 다시 한번
나라는 존재를 반조해 봅니다"

禪판화가 **이철수** 씨

"相을 새기면서 아상을 버리죠"

목판 삼매 빠져들수록 '無相의 도리' 마음에 각인

실상사, 다 왔다!
이 간판 없으면,
세상에 없는 것인가?
실상사!

〈'손가락' 철수 95〉

금강경에서는 불취어상(不取於相)이라는 말로 상(相)을 취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그러나 화가는 어차피 상을 화폭에 담는 방법을 버릴 수 없다. 선(禪)판화가 이철수씨(41)는 나무에 칼로 그 많은 상을 새기면서 도대체 어떤 상 아닌 상을 노려보고 있는 것일까?

3년만에 선보인 1백여점의 작품을 서울을 비롯한 전국 8곳의 화랑에서 10월 18일부터 오는 12일까지 동시에 선보이고 있는 선(禪)판화가 이철수씨의 그림을 주시하고 있노라면 영락없이 의문을 품게 된다. 그 의문은 과연 이 작가가 표현한 것은 유상(有相)인가 무상(無相)인가 하는 존재론적인 것에서 출발된다.

'해인' 동화삽화가 인연

"마음에 이는 것들을 부지런히 그림으로 그려낼 뿐이죠."

그의 판화는 불의와 억압과 폭력으로 얼룩진 80년대의 혹독한 세월을 지내오면서 울분과 합성과 저항으로 각인되었었다. 그러니까 유상(有相)의 시절인 셈이다. 그렇게 민중미술작가로 알려졌던 이씨가 온갖 갈등에서 벗어나 오늘의 선화(禪畵)에 매료돼 자연스럽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의 마음'을 목판에 새겨낼 수 있게된 배경에는 80년대 후반에 맺었던 불교와의 인연이 절대적인 자리를 굳히고 있다.

"87년도쯤 되었을 겁니다. 시대가 입혀준 때 묻은 옷의 무게에 겨워 불가의 납승(納僧)들이 안거에 들듯 두손 딱 놓고 긴 칩거에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당시 〈해인〉지의 편집장이셨던 법연스님을 만나 권정생선생의 동화삽화를 부탁받게 됐습니다. 그것이 인연이 돼 불교와 끊을 수 없는 인연을 맺게 되었죠."

그후 그는 줄곧 선화를 새겨왔다. 무상(無相)의 세계로 긴 여행을 떠난 것이다. 그 여행길에서 이씨는 언제나 '말이 없는 곳에서 말이 없는 곳으로 이르는' 도리를 칼끝으로 각인시키고자 노력한다. 그러나 그는 때때로 세간의 한 '조각장이'로 남아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거부하지도 않는다.

"불교를 무척 아끼고 사랑합니다. 하지만 생활 일반에 대해 갖는 거리만큼 불교에 대한 시선으로부터도 떨어져 있으려고 합니다. 모든 것이 밀착돼 있으면 앎이 있을 수 없는 법이거든요."

이씨가 말하는 그 거리는 이해를 위한 것이었다. 결국 그의 작품에 등장하는 불교적 소재 하나하나들은 작가의 마음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흐름에 적극 조응하는 것들로 떨어져 있지만 하나인 셈이었다.

작품에 임하는 마음도끼를 다져먹기까지 불교 못지 않게 그에게 있어 영향을 끼쳤던 것은 자연의 향취요, 순리였다. 이철수씨는 충북 제천군 백운면 평동마을, 천등산 아래에서 푸성귀들을 일구며 산다.

"흙을 가까이 하면서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시골생활은 저로하여금 때묻지 않고 나날이 새롭게 태어날 수도, 창조의 삶을 살 수도 있게 합니다. 언젠가 박달재를 찾아 오신 법정스님도 '날마다 새날이라는 느낌으로 살아라'고 하셨지요."

이철수씨의 그림과 글은 이런 흙과 자연에서 빚어진 것이기 때문에 흙향기처럼 우리들 가슴에 산뜻하게 묻어나는 것 일게다. 이씨의 글에서는 저녁 연기 피어오르는 산촌에서 쇠여물 삶는 질박하고 구수한 냄새가 난다. 단순하고 질박한 그의 판화에 곁들인 간결한 화제는 그림과 어울려 선미(禪味)를 풍겨준다.

그의 작품에 있어 쭝디는 여백에서 절정을 이룬다. 여백은 뽐내지 않는 멋스러움을 두드러지게 하지만 알고보면 그 여백도 작가에게는 치열할 구도의 현장이다.

"저는 제 삶에 대한 반성의 기회로 그림의 여백을 충분히 살립니다. 여백을 통해 다시 한번 나라는 존재를 반조해 보죠."

내년 판화제 작품준비

관화를 찍어도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는 부분, 형태가 없는 그 부분을 새기면서 그는 많은 피안을 꿈꾼다고 한다. 그가 빠져든 '목판삼매'의 본질은 다름아닌 '여백삼매'였던 것이다. 이씨는 내년 열릴 관화제에 출품할 작품준비와 함께 기한도 없이 시작한 사찰시리즈를 1~2년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염주알이 플렸다
나 다녀간다 해라
먹던 차는
다 식었을 게다
새로 끓이고
바람부는 날 하루
그 곁에 다녀가마
몸 조심들하고
기다릴 것은 없다

〈'좌탈' 철수 92〉

한 생애를 마감하는 자리에서 스스로 자신과 타인에게 남길 말은 어떤 것이겠는가. 음미할수록 가슴이 저리는 여운이다. '나 다녀간다 해라. 몸 조심들

도필선 기자

목정배 교수가 쓰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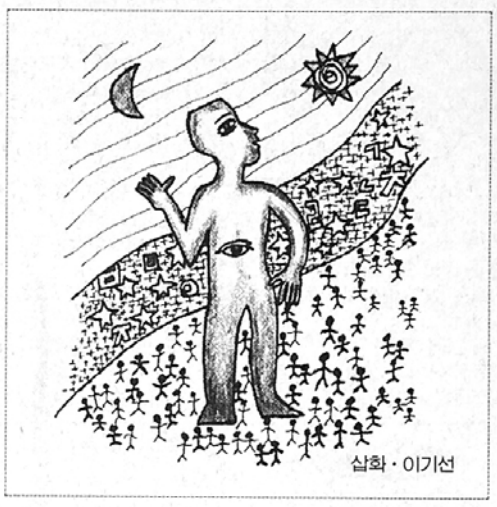
오늘의 불교 ㊾

삼명(三明)

숙명·생사·번뇌를 아는 지혜

지식이 아무리 많다해도 세상사를 다 알 수는 없다. 한계가 있으므로 전공부문이 있기 마련이다. 불교 전반을 다 알면 삼장법사라는 대칭호를 받을 수 있지만 각자의 수행과 교학에 대하여 이름이 지어지게 된다. 고승전의 편찬을 눈여겨 살펴 보아야 그 시대 스님들의 전문성을 이해하게 된다. 부처님의 제자도 십대제자가 있음은 모두가 여기에 연유한 까닭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부처님의 세계는 불가사의한 것이라 일체지를 깨쳤고 일체사를 성취하셨다.



삽화·이기선

첫째로 전생을 아는 것이라 하였다. 어느 사람을 막론하고 금생의 일도 불민하다. 내가 이 세상에 어떻게 왔는가를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 있는가. 부모에 의하여 태어났으리라고 막연히 유추할 뿐이다. 사람이 과거의 자신을 안다면 무섭기도 하지만 지금 사는데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다. 과거의 나는 무엇이었고 어떤 일을 하였고 왜 모든 것이 성취되지 못하였는가를 명명백백하게 환히 뚫어볼 수 있다면 지금의 자신을 이끌어 살아가는데 허물이 없게 할 것이다. 그러나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 헤아릴 수 없기에 하찮게 마음 놓고 사는 것이다. 숙명을 통달하는 것은 현존의 좌표가 될 것이다.

둘째로 생사의 모습을 환히 안다는 것은 육도윤회의 실체를 밝히는 일이다. 윤회가 '있다' '없다' 하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생사의 본상을 알게되면 이러한 의심은 저절로 소멸될 것이다. 분명히 생사는 이어지고 소멸되고 또 생기하는 연기의 고리를 갖고 있는 것이다.

셋째, 번뇌가 다하는 지혜를 증득하는 것은 최상의 단계이다. 살고 있는 중생은 모두가 삶의 번뇌를 갖고 있는 것이다. 이 삶의 번뇌가 욕망이다. 생존욕, 식욕, 색욕, 수면욕, 명예욕 등으로 분화되지만 제일 근본은 식과 색의 번뇌이다. 생명의 욕망 행복의 욕망, 이것이 번뇌욕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생명의 근본욕망이 제거된다면 삶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 부처님께서 삼명의 깨침을 제자들에게 새삼스럽게 설법한 것이 아니라 불교의 깨침은 바로 삼명성취에 있기에 가만가만히 말씀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된 자리이므로 깨침이라 하고 그 깨침은 삼명(三明)으로 표현된다.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서 연기법이나 사제법의 설명이 아니라 세가지 밝음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세계에 깨쳐가야 한다고 부촉하신 것이다.

「다 배운 이의 세가지 밝음이 있다. 어떤 것이 셋인가. 숙명을 아는 지혜의 신통(宿命智證通), 생사를 아는 지혜의 신통(生死智證通), 번뇌가 다한 지혜의 신통(漏盡智證通)이다.

어떤 것이 다 배운 이의 숙명을 아는 지혜의 신통인가. 성인의 제자는 갖가지 전생일을 안다. 곧 한 생에서 백천 만 억 생에 이르기까지 나아가서는 이룩되고 무너진 겁수(劫數)와, 자기와 중생들이 지낸 과거에 어떤 이름, 어떤 생(生), 어떤 성을 가진 것과 어떤 음식을 먹은 것과 어떤 괴로움과 즐거움을 받은 것, 얼마만한 수명으로 오래 머무른 것과 어떤 신분을 받았던 삿된 법의 인연을 받았으므로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난 뒤에는 지옥같이 나쁜 곳에 난다고 한다. 또 이 중생은 몸과 입과 뜻으로 착한 행을 행하고 성인을 비방하지 않으며, 바른 견해를 성취하였으므로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난 뒤에는 천상이나 인간의 좋은 곳에 난다고 한다. 이것이 이른바 생사를 아는 지혜의 밝음이다.

근본욕망 제거돼야 자유누려

어떤 것이 생사를 아는 지혜의 밝음인가. 성인의 제자는 사람 눈보다 뛰어난 하늘눈으로, 모든 중생들의 죽는 때와 나는 때, 좋은 얼굴과 나쁜 얼굴, 귀한 몸과 천한 몸이며, 나쁜 곳으로 향해 업(業)을 따라 태어나는 것들을 본다. 그리고 이런 중생들은 몸으로 나쁜 행을 행하고, 입과 뜻으로 나쁜 행을 행하며, 성인을 비방하고 삿된 견해로 가를 다 알고, 또 자기와 중생들이 여기서 죽어 다른 곳에 나고 다른 곳에서 죽어 여기에 난 것과, 어떤 행(行), 어떤 인(因), 어떤 믿음으로 갖가지 전생 일을 받았던가를 다 밝게 안다. 이것이 이른바 숙명을 아는 지혜의 밝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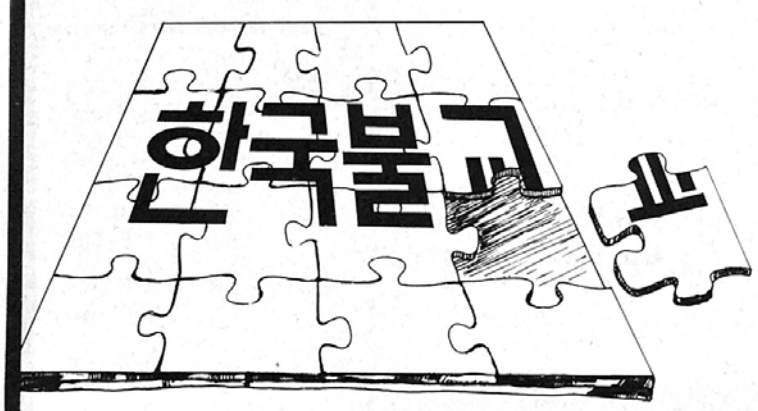
어떤 것이 번뇌가 다한 지혜의 밝음인가. 성인의 제자는 〈이것이 괴로움〉이라고 알고, 〈이것은 괴로움의 원인, 이것은 괴로움의 사라짐, 이것은 괴로움을 없애는 길〉이라고 안다. 그는 이렇게 알고 이렇게 보므로 탐욕의 번뇌에서 마음이 벗어나고, 존재와 무명의 번뇌에서 마음이 벗어나고, 그리고 벗어난 줄을 알고 보아, 나의 태어남은 이미 다하고 범행은 이미 서고 할 일은 이미 마쳐 다시는 뒤의 몸을 받지 않는 줄을 스스로 안다. 이것이 이른바 번뇌가 다한 지혜의 밝음이다.」

위의 말씀을 다시 풀이하면

창립, 새 불교운동 전국 승가회

창립법회
불기 2539년 12월 1일(금) 오후 3시
조계사 문화회관 1층

새로운 승가상 확립으로 불교 중흥의 전기를 만들겠습니다.



— 거리, 일터, 산사! 이 모두가
수행 도량임을 선언합니다.

— 언제, 어디서나 대중과 함께
호흡하는 승가이기를 발원합니다.

— 오늘날 사회의 혼탁은 바로
종교인 모두가 본분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사실의 반증입니다.

총체적 전환 국면에서 새롭게
거듭나라는 사부대중의
여망을 받들어
새 불교운동 전국 승가회를
발족하고자 합니다.
여법한 승가상, 수행하는
승가상 확립을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합니다.

새 불교운동 전국승가회(가칭)
전화 720-7097 / 팩스 723-9120

항일·불교개혁 '범란스님' 조명

교단의식 통일·국민계몽등 만해정신 계승…김경집씨 밝혀

불교학회 학술발표회

한국불교학회(회장 김영태)는 지난 3일 동국대에서 제24회 추계불교학술연구발표회를 가졌다. '현강 김인덕박사 화갑기념논총' 발간과 동시에 열린 이번 학술발표회에는 논총에 수록된 22편의 논문중 9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이날 눈길을 끈 논문은 김경집씨(동국대 강사)의 '이영재의 불교혁신사상 연구'. 김씨는 일제의 탄압에 저항하며 불교계의 혁신을 도모했던 천재스님 범란(梵爛) 이영재(李英宰;1900~1927)의 사상을 본격적으로 조명했다. 이씨는 범란의 혁신사상이 "조선불교계가 처해있는 시대적 모순을 파악, 무질서를 바로잡고 혁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교단을 정비해 그 총체적 힘을 사회로 확대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범란의 이같은 생각이 구체화된 것이 교헌(敎憲)의 제정과 교단내에 만연했던 갖가지 의식의 통일이다. 또 교단의 조직체계는 조선불교의 전통을 계승하는 한편, 교정(敎政)에 있어서의 민주적 운영방식과 재가자의 참여를 강조한 대승적 화합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포교의 혁신도 불교를 통한 국민계몽과 문서포교등의 제시로 나타났으며, 사회개혁은 교계의 경제적 혁신과 사회사업을 통한 증생구제등으로 제시됐다.

김씨는 "범란이 만해의 〈조선불교유신론〉을 대부분 이어감으로써 1910년대의 불교혁신운동을 1920년대로 계승했다"고 말했다.


◇이영자교수


◇김경집씨


◇한종만교수

"천태종 사상확립에 부암대사 공헌" 이영자교수

이어 '부암대사 무기의 성불구제관과 정토사상'을 발표한 이영자교수(동국대)는 부암무기(浮庵無寄)의 〈석가여래행적송〉을 통해 고려불교계의 정토사상과 당시 신흥종파였던 시흥종(始興宗)의 계파를 분석, 고려불교교단사에서의 천태종의 변천사를 조명했다. 이교수는 "의천의 천태종 개종 이후 교단에서 드러난 분은 백련사 1세인 원묘요세(圓妙了世)이지만 사상적인 특징을 선명하게 남긴 분은 운묵(雲默)스님인 부암무기"라고 밝혔다.

조선초 유·불·도 삼교에 능통했던 김시습의 불교사상을 조명한 한종만교수(원광대)는 '설잠(雪岑) 김시습의 천태사상 연구'를 통해 "설잠은 당시 거의 맥이 끊어진 천태사상을 선사상과 융합시키면서 새로운 사상체계를 세웠다"면서 천태사상의 핵심인 제법실상설이 설잠의 〈법화경별찬〉에 어떻게 밝혀져 있으며, 그가 〈법화경〉의 해석을 통해 천태사상과 선사상을 어떻게 융합시켰는지를 조명했다.

인도 중관학파내의 불호(佛護)의 연기관에 대한 청변(淸辯;490~570)의 비판을 중심으로 '청변의 연기설'을 분석한 이현옥씨(동국대 강사)는 "중관학파내의 사상대립은 불교사상을 오히려 심화시키고 모호한 문제들을 명확하게 밝혀주었다"며 "불호와 청변은 중관사상의 본질을 상이한 시각에서 꿰뚫을 수 있게끔 역할 했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목각탱 양식 종합적 연구' 첫 논문 나와

이종문씨 발표

조선후기에 조성된 목각탱(木刻幀)에 대한 고찰을 통해 불상의 양식변천을 다룬 논문이 처음으로 발표됐다.

전북대 강사인 이종문씨가 지난달 10월28일 한국미술사학회(회장 강경숙) 제95회 학술발표회서 발표한 '조선후기 목각탱연구'는 지금까지 상(像)의 소개와 배치, 신앙적인 성격등을 부분적으로 다뤄온 목각탱에 대한 전체적인 양식고찰과 함께 조선후기 불화와의 비교를 시도했다.

이씨는 논문을 통해 "17~19세기에 걸쳐 조성된 목각탱은 중국·일본의 조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불교조각품이며, 명문(銘文)이 있어 조선후기 조각양식을 서술하는데 기준작이 되는 중요한 조각상"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또 "목각탱들은 후불탱(後佛幀)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하나의 독립된 상(像)으로 조성되어 불화와 조각이라는 두가지 측면을 동시에 수용하는 특징을 가진다"며 "현존하는 7점의 목각탱이 모두 아미타여래를 본존불로 하는 아미타극락회상으로서 조선후기들어 유행했던 아미타신앙의 일면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목각탱 연구를 통해 △불화를 그린 화사(畵師)나 불상을 조각하는 조각장(匠)의 구별이 엄격하지 않았고 △상을 조각한 장인이 일반서민이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천 용문사 대장전의 목각탱(1684년).

조선후기 불화와 구체적 비교 시도

"미륵신앙 농경문화와 결합됐다"

장지훈씨 '신라미륵…' 서

삼국시대 이래의 미륵신앙과 농경문화와의 결합현상을 용신(龍神)사상과 입석(立石)문화와의 관계를 통해 조명한 논문이 발표돼 눈길을 모았다.

장지훈씨(고려대 강사)는 지난달 28일 역사민속학회(회장 장철수) 연구발표회서 '신라미륵신앙의 민간신앙적 전개'란 논문을 통해 미륵신앙의 민속신앙적 요소를 분석했다.

장씨는 "미륵신앙은 용신사상과 결합됨으로서 미륵불은 수신(水神)적 존재, 농업수호신적 존재로 신앙되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또 미륵이 돌 입석 거석(巨石)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는 것도 미륵신앙의 농경문화와의 결합현상으로 보았다.

'향토사와 지역문화' 발간

문체부, 연구방향 지침서

문화체육부는 최근 향토사연구에 대한 기본지침서라고 할 수 있는 〈향토사와 지역문화〉를 발간했다. 향토사회의 현장에서 다년간 조사경험을 쌓은 필자들의 논문을 엮은 이 책은 △현재 각 지역사회가 안고있는 숨겨진 문화재의 발견 보고문제 △유·무형 문화재의 보존과 전승 △향토자료관의 방향 등 향토사와 지역문화에 대한 거의 모든 과제를 논의하고 있다.

김용사 요사

剎塵心念可數知
(찰진심념가수지)
大海中水可飮盡
(대해중수가음진)
虛空可量風可繫
(허공가량풍가계)
無能盡說佛功德
(무능진설불공덕)

세상 티끌 모두가 세어 알 수 있고
가없는 바닷물을 모두 마셔버릴 수도 있고

한국 사찰의 주련

권 영 한

부처님 공덕 인상깊게 표현

허공을 헤아리고 바람도 붙잡아 맬 수 있어도
부처님 공덕만은 능히 다 달할 수 없네

해설 요사란 절의 대중들이 함께 공양(식사)을 하거나 잠자거나 일을 하는 등의 대중적 처소로 쓰이는 집이다. 또 신도들이나 기도객이 머무르며 자고 식사하는 곳으로도 쓰인다.

김용사의 요사도 이런 대체적인 관례에 따라 사용되고 있는데 그 주련의 내용은 매우 인상적이다. 부처님의 공덕이 무엇보다 큰 것임을 설명하고 있다.

단지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일들의 가능성을 잔뜩 예로 들고난 후에 부처님의 공덕을 헤아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맺고 있다. 어쩌면 매우 장황한 설명에 극도로 단정적인 결론을 갖고 있는 것이 이 주련 내용의 참맛이기도 하다.

많은 대중들이 드나드는 건물의 외벽에 이 지극히 명료한 결론으로 훈시를 주려는 의도는 쉽게 짐작이 간다. 대중들의 근기 자체가 천차만별일 수 있기 때문에 이같은 단정적인 문구로 부처님께 귀의 시키려는 의도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안동 경안중 교사〉

천도재에 음식 차리는 이유는

문 친구의 조상 천도재에 참석했었습니다. 이것저것 갖가지로 음식차려놓고 지냈는데 제 생각에는 저런 형식이 왜 필요할까, 그냥 조상 영가들과 함께 한다는 마음가짐이면 족하지 않나싶어 건성으로 향 피우고 절을 했습니다. 따로 음식 차리지 않고 평소 식사 때에 일체 조상과 함께 한다고 생각하면 그른 것입니까. 〈차충헌·대구 서구 중리동〉

답 함께한다는 생각은 좋습니다. 산 세상 죽은 세상이 다 한마음이니까요.

그런데 마음만으로 족하다고 하는 것은 처사님 생각이지만 영가들은 그렇지 않겠죠? 살아있는 사람들도 다 마음이 천차만별이듯이 영가들이라고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더우기 마음도리를 모르고 돌아가신 분들이야 더 말할 나위가 없지요. 그렇기때문에 여러가지로 음식을 차려놓게 됩니다. 산 사람이 볼 때도 차린 게 없으면 섭섭한데 죽더라도 살던 습이 떨어지지 않았으니 차린 게 없으면 섭섭타고 야단일게 아닙니까.

나는 제사 지낼 때나 천도재 할 때에 둥그런 떡 서너개하고 삼색과일 한 그릇에 초·향만 켜놓고 지내라고 합니다.

지내는 사람도 둥그런 떡 하나에 마음을 기울이고 조상님 마음도 한마음으로 다 넣고 그런 마음으로 하라고 합니다. 조상들의 습에 얽매인 마음을 풀어드리는 것이지요. 둥그런 떡 하나가 영가에겐 칠보로 가득찬 큰 도량으로 보일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한마음으로 둥글릴 수 있다면 떡 하나로 산 세상 죽은 세상을 다 먹이고도 떡 하나가 되남게 됩니다. 생각을 지어내서 이치로 파고들려해서는 안됩니다.

원과 기복은 어떻게 다른지요

문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스님의 말씀 가운데 '돈을 벌어도 내가 번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듣고부터는 월급액이나 세금에 대한 불만이 없어졌습니다. '그래 내가 번게 아니라 모든 사람의 힘이 합쳐져 내게 이런 돈이 생겼구나' 하며 감사하게 느끼는 큰 변화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해외연수를 받고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회사로부터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엔 연수를 보람있고 효과있게 마치고 싶다는 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원이 기복과는 어떻게 다른지요.
〈장영문·대구 중구〉

답 한 생각 원을 세운 것과 비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비는 것은 비는 대상이 있어서 하는 것이고 처사님은 말하자면 마음의 중심에 한생각 우뚝 세운 것이지요.

원래 이 마음공부가 다른 말로 하면 심성과학이랄 수 있는데 의학·물리학·천문학… 등이 다 포섭됩니다. 쉽게 말해 한 생각 일으키면 입자가 화해서 원자, 분자가 되듯이 한 찰나에 사대로 통신이 되어 밖으로 벌어지고 제각기 소임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구족한 상태니까 절로 통신이 되고 통신이 되면 그냥 한마음인 것입니다. 마음도리를 안다면 원을 세운 그 마음은 한마음이라 바깥 경계도 같이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그게 안되고 배기겠습니까. 늘상 말하지만 한 생각에 부모 조상의 묵은 빚 갚고 세세생생 자식에게 빛이 되어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성삼보에 진짜로 귀의하는 지극한 마음, 그것은 부처님과 둘이 아닌 마음입니다.

장기이식때 업보도 따라오는지

문 요즈음 장기기증운동이 세인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장기이식 기술도 많이 발달해서 점차로 보편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불자로서 장기기증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장기를 이식할 때 그 장기와 함께 유전적인 요인이나 업보까지도 함께 이식되는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진철·서울 서초구 우면동〉

답 그로써 한 생명을 건지는 일이니 선과(善果)중의 선과이겠지요. 유전성이나 업보성을 염려하시는 데 눈을 기증한 사람, 콩팥을 기증한 사람이 벌써 다른 사람을 둘로 보지 않았던게 아닐까요. 받는 사람도 준 사람을 둘로 보지 않는다면 그대로 자기이니까 아무일 없을겁니다. 그러나 둘로 본다면 어쨌거나 인과가 됩니다.

생활속에 정진이 되는 공부방법

문 저는 매일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제대로 살았나 되돌아 봅니다. 제나름의 참선방편입니다. 어떻게 하는게 마음공부의 정진이 되겠습니까?
〈최이문·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답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이걸 누가 하는가? 그걸 증명해 보아라!

그렇게 하는게 직속으로 들어가는 참선이자 관법입니다. 나를 발견하기 전이니까 잠자기 전에 30분쯤 그렇게 해보면 도움이 될겁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온갖 인연 습성에 얽혀 돌아가는데 그걸 벗어나지 못해서는 결코 똥밖 세상을 구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습대로 업식따라 나오면 나오는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데 한 생각 굴리고 되돌릴 줄 모르니까 그 습이 절대로 떨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인이고 네가 주인이니 알아서 하라고 턱 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놓는 것은 한생각 되돌리는 것이지요. 습에 얽매여서야 어느때 성품을 볼 것이며 해인(海印)을 얻겠습니까.

습이 습인줄도 모르기 십상이지요? 순간순간에 되돌려지지 않는다면 조용한 시간에 자기를 돌아보고 참나를 관하는 것은 좋습니다.

지상상담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행에 관해 의심이 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스님께 묻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96학년도 전기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

석사 및 연구과정

1. 모집 학과 및 전공 : ① 불교학과 : 불교학, 선학 ② 불교사학과 : 불교사, 예술사 ③ 불교사회복지학과 : 사회복지학, 포교학
2. 모집 과정 및 인원 : ① 석사학위과정 : ○○명 ② 연구과정 : ○명
3. 응 시 자 격 : ① 국·내외에서 4년제 정규대학 학사 학위 취득자 및 취득 예정자 ② 외국에서 16년 이상 정규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③ 기타 법령에 의거하여 자격이 있다고 판정된 자
4. 전 형 방 법 : ① 필기시험(영어, 전공) 및 면접 : 석사과정 ② 서류전형 및 면접 : 연구과정
5. 전 형 일 자 : 1995년 11월 16일 (목) 14:00
6. 제 출 서 류 : ① 입학원서 1통(본 대학원 소정양식) ② 사진 5매(3개월 이내 반명함판) ③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 예정 증명서 ④ 대학 전학년 성적 증명서 ⑤ 주민등록초본 1통(병적사항 기재 요) ⑥ 본교 정각원장 추천서 1통 및 이력서
※ 해외 자매 대학 유학 및 연수에 참가할 기회 부여함

●공통사항
1.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1995년 11월 1일(수)~11월 13일(월) 평일 09:00~17:00(토·일요일은 제외)
2. 전 형 장 소 : 불교대학원 교학부에 게시함
3. 합격자 발표 : 개별통지
4. 전 형 료 : 30,000원 원서대 : 2,000원
5. 기 타 사 항 : 우편으로 원서를 제출할 때는 주소, 성명을 명기하고 반신료 980원을 우표 및 전형료와 동봉하여 본 대학원 교학부로 보낼 것,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않음.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입학 허가 취소함

관리자 과정 제11기

1. 모 집 인 원 : ○○○명
2. 전 형 방 법 : 서류전형 및 면접
3. 자 격 : ① 조계종의 대덕 법계 품수 승려 / ② 각종단의 간부 / ③ 각 신행 단체의 간부 및 대표 / ④ 신심이 돈독한 자
4. 전 형 일 시 : 1995년 11월 17일 (금) 13:00
5. 제 출 서 류 : ① 입학원서 1통(본 대학원 소정양식) / ② 반명함판 사진 5매 / ③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④ 주민등록 등본 1통 / ⑤ 본교 정각원장 추천서 1통 (※ 구미를 비롯한 각국 자매교와 학술 교류 및 상호방문)

㉾ 110-715 서울시 중구 필동 3가 26번지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교학부 ☎ 02) 260-3097, 3098

奉 **靑潭大宗師 24週忌 追慕 大法會 案內** 行

靑潭大宗師 24週忌追慕大法會를 다음과 같이 奉行함을 門徒스님과 사부대중에게 알려드리오니 무루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 시 : 1995년 11월 15일 수요일 오전 11시
장 소 : 삼각산 도선사 호국참회원 강당
문의처 : 도선사 주지실 (02) 993-5002
종무소 (02) 993-3161~3

불기 2539년 11월 1일

大韓佛敎曹溪宗 護國懺悔祈禱道場 **三角山 道詵寺**
청담 문도회 일 동
도선사 주지 차동광 합장

"2천만에 깨달음을"

나를 바로 보고, 세계를 바로 보고, 참수행으로 이끄는 신행의 길잡이!

현대불교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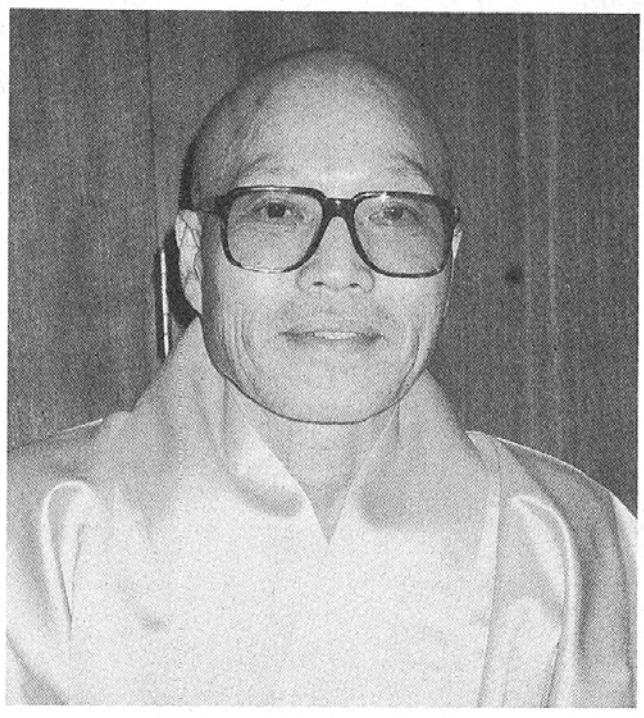
구독신청안내

본 사	• 대표	02-737-8881
	• 팩스	02-737-0697
	• 광고국	02-737-0692
	• 전화신청	02-737-0693
부산지사	• 전화	051-634-5114
	• 팩스	051-634-5188
광주지사	• 전화	062-375-9986
	• 팩스	062-371-7544
대구지사	• 전화	053-427-8008
	• 팩스	053-425-8356
경기지사	• 전화	032-613-4027
	• 팩스	032-665-0965
목포보급소	• 전화	0631-281-2534
공주보급소	• 전화	0416-55-0020

"수계는 계율실천 자기맹세"

조계종 단일수계산림 전계대화상 일타스님

10월26일부터 11월1일까지 조계종 제16회 단일계단 구족계 수계산림법회가 범어사에서 열려 일타스님을 전계아사리로 비구 148명 비구니 156명 등 모두 304명의 새 스님이 탄생됐다. '간경변에 의한 식도정맥류'란 병으로 네차례의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지만 승려의 길에 들어서는 눈 푸른 새 납자들에게 율강의를 하는 등 올곧은 승풍확립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 일타스님을 범어사에서 만났다.



수요 인터뷰

은해사 율도량으로

—계를 받을 때는 스님들뿐 아니라 일반 재가불자들도 비장한 모습으로 각오를 새롭게 다지게 됩니다. '계를 받는다'는 의미는 무엇인지요.

▲자동차 운전을 하는데도 신호를 지켜야 하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일입니다. 어느 사회, 단체를 막론하고 그 근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틀이 필요하지요. 승, 속을 망라한 불가의 사부대중에게 해당되는 기본적인 틀이 경 율 론 삼장 중 제 일장인 율장입니다. 율장은 불자가 지켜야 할 법규로서 '수계'란 곧 이를 실천하겠다는 자기맹세입니다.

—조계종이 선 우위의 선교양종을 표방하고 있음에도 실제 수행에 있어서나 재가들의 신행에 있어서, 또 사찰별로 특성이 두드러지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범어사 가서 말 잘하는 체 하지말고 해인사 가서 경 아는 체 하지 말라는 말이 있듯이 계율과 상관없이 사찰별로 뚜렷한 특성이 있었습니다. 그런 말들은 어찌보면 한국불교가 조선조 5백년, 일제 36년간을 지나면서 계율부재의 시대를 경험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계율이 제대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수행의 밀도가 그만큼 낮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단일계단이 성립한 뒤부터는 올곧은 계율정립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최근 승단의 지계정신이 과거에 비해 흐뜨러지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올바른 승풍을 확립할 수 있는지요.

▲그점에 대해서 나는 낙관적으로 보고 싶어요. 대학생들이 공부하지 않고 데모만 한다고 비난하지만 그들이 결코 공부를 게을리 하는 것은 아니거든. 일부 몇사람들이 계율을 어기는 경우는 있으나 열심히 수행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근본은 그렇게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율장의 내용을 시대에 맞게 고칠 것은 고쳐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율장의 근본정신을 잘 요해하지 못한데서 나온 이야기 같습니다. 율장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초가집을 짓는 방법과 고층건물을 세우는 방법은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춧돌을 놓고 땅속 깊이 기초공사를 하는 정신은 똑같은 것입니다. 지엽적인 것은 변할 수 있어도 근간은 변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지엽적인 부분에 한해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것은 승단의 중지를 모아야겠지요.

—이번 구족계에 앞서 올초부터 비구계에서 비구니 율장강의를 비구니교수사에게 맡겨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개념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비구니는 비구에게 배우라'고 율장에 명시돼 있습니다. 반면 '식차마나니, 사미니는 비구니에게 배우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일부 비구측에서는 포괄적으로 비구에게 배우라고 한데서 말썽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 수계법회에는 식차마나니(正學女라 함)들이 비구니가 되기위해 비구니스님에게 강의를 들었어요. 좀더 구체적으로 말해보죠. 설계(說戒 계를 설함), 송계(誦戒 계를 외움), 강계(講戒 계를 강의함), 학계(學戒 계를 배움), 교계(敎戒 계를 가르침)라고 하는게 있어요. 이중 강계와 학계는 비구니가 식차마나니를 가르치는 것을 말하며, 교계는 비구가 비구니에게 가르치는 것을 이르는 것입니다. 설계, 송계란 비구는 비구에게, 비구니는 비구니에게 각각 가르침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덧붙이자면 '이구승수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는 비구니는 일단 계를 받아 비구에게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소 복잡한 개념이 차후에는 정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비구스님들이 비구니스님들을 지도하는 것이 사실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한 예로 여성의 생리문제를 비구스님이 어떻게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까.

불교병원 건립 절실

—지난해 은해사 주지로 취임하시면서 은해사를 계율근본도량으로 만드시겠다고 하셨는데 장기적 구상은.

▲내가 율장깨나 보았다고 여러 사람들이 추켜세워 율사라는 말을 듣고 있는데 나는 지금도 율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지 않아요. 그러나 나 개인의 자질을 떠나, 어디 내놓아도 손색없을 계율근본도량 하나쯤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은해사는 약 7백여평의 대지를 마련해서 강의실, 강당 등을 세우기 위한 설계시안을 이미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각 종단에서는 노스님들의 복지·예우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마련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조계종 원로회의 의원 스님들을 보면 세수 90세 이상이 셔분, 80세 이상은 열분도 채 안됩니다. 원로스님들이 많지도 않아요. 나는 원로스님들의 예우나 복지문제 등에 특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스님네들은 마음 하나만 잘 쓰면 얼마든지 대접받습니다. 소망이라면 십자가 밑에서 스님들이 진료받지 않게끔 불교병원 하나 건립됐으면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최근 노태우 전대통령의 비자금 파문과 관련하여 사회가 시끄럽습니다. 사회의 모범이 되는 스님들의 수행이 한층 더 청정해져야 한다고 생각되는데요.

▲비자금 사건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온 국민을 경악스럽게 하는 이런 국가적 수치는 한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이 사회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청정승가가 모범을 보여 국민모두가 계율지키기에 동참해야 사회악 청산이 가능합니다.

—후학들에게 늘 당부하는 가르침이 있다면 일러주시지요.

▲잘 배우고 지계(持戒)하라는 말을 합니다. 조석예불시 '계향~'으로 시작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그대로 계가 향기롭기 위해서는 스님들의 철저한 지계와 수행이 우선입니다. 계법이 머물러 있으면 불법은 삽니다. 지계정신은 바로 조고각하(照顧脚下)하는 정신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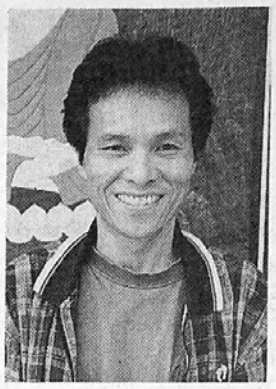
범어사=박병근 기자

교통법규 상식이듯 율장 기초정신은 불변

"계법 살아있는 청정승가 사회악 청산 거울"

나의 수행일기

정부기 〈작곡가·중앙대 교수〉 下



'초파일송가'의 가사는 광덕스님의 글인데, 고인이 되신 한상림 선생님을 통해 전달되었다.

며칠의 진통끝에 선율이 만들어졌고 하루만에 합창과 피아노 부문을 완성하였다. 이 곡속에는 부처님의 탄생에 대한 찬탄과 환희가 서로 대조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선율은 5음음계로, 반주는 현대적으로 처리하였다.

이 곡은 널리 불려지게 됐고 현재는 나의 대표작이 되었다.

대학 3학년 때 내게 좋은 기회가 주어졌다. KBS방송국에서 EBU(유럽방송연맹) 주최 세계 합창경연대회에 출품할 작품을 모집하였다.

네 작품이 선발되었는데 세 곡은 서울대 및 연세대 교수님의 작품이었고 나머지 한 작품이 나의 곡이었다.

법화경 중에서 방편품 일부와 다라니경, 찬불게, 사홍서원을 합창곡의 가사로 사용하였으며 곡의 제목은 '염불'이었다. 작품을 완성한 후 기쁜 마음으로 합창단 지휘자를 만났으나 마감 3일전에 거절당하고 말았다.

왜냐하면 지휘자 선생님이 독실한 기독교신자로, 그 방면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이었기 때문이었다.

처음에는 실망이 대단히 컸으나 하는 수 없이 재 작업을 시작하였다. 고등학교 때 이미 만들어 놓은 선율을 이틀만에 합창곡으로 편곡하고 하루동안 사보를 하여 곡을 완성하였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던 선생님께서 몇번의 연습끝에 곡의 의미를 파악하고는 합창연습실로 나를 초대하였다.

연습전후의 상황이 상당히 바뀌었고 극진한 대접을 받게 되었다.

시골에서 아버님과 열심히 예불을 하며 군복무(방위)를 하고 있을 때 50여개국이 참가한 세계 합창제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뻤고 작곡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접동새'라고 하는 합창곡이며, 현재도 현대음악 분야에게 확고한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 얼마전에는 합창곡 '접동새'를 70여개국에서 과제곡으로 사용한 때도 있었다.

훌륭한 곡이란, 노력의 결과이기보다는 한순간의 실수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나는 작가보다는 기능인이나 기술자들을 동경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시간의 노력에 대한 대가를 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창작은 시간과 관계가 없는 것 같다. 영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보장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예술을 추구하는 이들의 정신적 갈등이 더 심하고 믿음에 대한 필요성을 더욱 느끼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한다.

'초파일송가' 이후에 나는 열심히 찬불가를 작곡했고 합창단도 맡아 지도하였으며, 한국불교음악연구회를 만들어 불교음악의 기초를 확립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쉽게 풀리지만은 않았다. 가장 어려운 것은 경제적인 것과 인간관계였다. 전자는 물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정신적인 고충은 없었으나 후자는 그렇지 않았다.

한국, 중국, 일본인들을 생각해 본다. 서로 같은 황인종이고 같은 동남아시아국가인데 틀린 점이 있다면 언어와 풍습 그리고 인간성인 것 같다.

중국계의 화교들은 전세계적으로 엄청난 부를 형성하고 있으며, 일본인들은 그들의 노력과 단결력으로 경재대국을 건설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보리고개를 졸업하긴 했으나 졸부의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것 같다. 불교와 기독교를 비교해 보자. 교육적인 측면에서, 인간관계에서, 사회활동에서, 종교를 대표하는 이들의 질적 측면에서, 종교활동에서 종교문화의 입장에서 어느것 하나 자랑할만한 것이 없다. 무엇 때문일까 고민을 해봐도 근거가 없다.

그들은 서로 협조적이며 우호적이다. 헌금을 기쁜 마음으로 낼 수 있는 것이 그들이다. 우리는 같은 사찰내에서도 매끄럽지만은 않은 것 같고 보시하는 자세도 그들 같지가 않다.

우리에게는 인연이라고 하는 좋은 언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로만 하고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된다. 이런 상황에서 불교음악 이외의 모든 예술분야에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다.

우리를 위해 우리의 미래를 위해, 다시한번 생각해 볼 시기가 되지 않았나 싶다.

몇 군데만 있었던 합창단이 이제는 2백여개의 합창단으로 확산되었고 찬송가 스타일의 찬불가는 교향곡과 교성곡으로까지 확대되었으며, 모든 행사나 의식에서 불리워지는 삼귀의와 사홍서원은 불교음악의 미래를 밝게 한다. 그러나 그 노력의 주체가 누구였는지는 확실하게 짚어봐야 할 것이다.

불교음악 작곡은 신심의 산물

기독교 음악인들 비협조에도 꺾이지 않아



선우도량 창립 5주년 기념 「신문으로 본 한국불교 근현대사」 출판법회

귀의 삼보하옵고,
불조의 혜명을 이어받아 시대의 등불이 되고자 창립된, 좋은 벗들의 모임인 "선우도량"이 올해로 창립 다섯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올바른 승가상의 확립'과 '승풍진작'을 기치로 출발한 선우도량은 그동안 근본도량 실상사를 중심으로 매년 2회의 수련결사를 개최하였고, 전문강원 화엄학림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불교 근현대사 연구회〉를 부설로 두어 불교정화운동 관련 자료수집 활동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이번에 마련한 법회는 창립 5주년을 기념하여 한국불교 근현대사 연구회의 첫 실적인 「신문으로 본 한국불교 근현대사」 자료집의 출판법회를 갖고자 합니다.

그동안 저희 선우도량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참여해 주신 보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마련한 출판법회에 수희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도량 공동 대표 현봉·혜담·도법 合掌

■일 시 : 2539년 11월 18일 토요일 오후 2시 ~ 5시
■장 소 : 조계사 문화 교육회관
■준비물 : 스님—대가사
■문의 및 안내 : 서울 사무실 전화 (02)278-8674 / 실상사 전화 (0671)34-3757, 34-3772

임현담불교에세이
배움

「붓다를 사랑한 가톨릭의사」의 파격적 「삶」사냥

구도자적 닥터에겐 세상의 모든것들
그것이
미니스커트였건,
붓다였건
모두가 스승이었다

조선·동아·한겨레
불교TV 등 유력 언론들은
이렇게 격찬했다

"가톨릭의사가
「삶과 죽음」의
화두로
불교성지
히말라야로
뻘려
들어갔다"



불교 산문 미학의 극치!

- 매독, 지방간 등에 얽힌 진한 인간 이야기는 어느새 철학의 향기를 내품고 있었다...
- 원초적 욕설, 브리지트 바르도, 죽은 김일성 등의 질펀한 소재들은 이미 종교세계를 넘나들고 있었다...
- 손바닥 크기 작은 책에 다름아닌 우주가 담겨 있었다...



4·6판/252쪽/5,800원

불교서적 판매 집계
7·8월 1위
9월 2위



신국판/304쪽/6,000원

효형출판 TEL:756-0262, 874-0263 FAX:873-8716

히말라야·인도에 빠진 닥터

나주에 불교박물관 선다

'만하불교박물관' 추진위 구성 "지역불심 모으자"

97년 완공 목표…불화·고탱화등 전시 교육마당 활용

불교미술 전문박물관이 전남 나주지역의 각 단체 지도자들과 단청장(중요무형문화재 48호) 박정자씨에 의해 설립된다.

불화를 중심으로 불교 조각·탑 등을 전시할 만하불교박물관(卍霞佛敎博物館)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이재학)가 최근 나주시 유력인사들을 구성원으로 결성됐다. 추진위에 참여한 이 지역 지도자는 이재학(나주투자개발단장) 김동준(시의회의장) 구귀인(시의원) 이광남(시의원) 김명국(전남도교육위원) 이옥만(시교육행정자문위원) 양해섭(시교육행정자문위원) 박기동(시교육행정자문위원) 박준영(시문화원장) 박천도(시불교신도회장) 이영범(前다시면장) 등 1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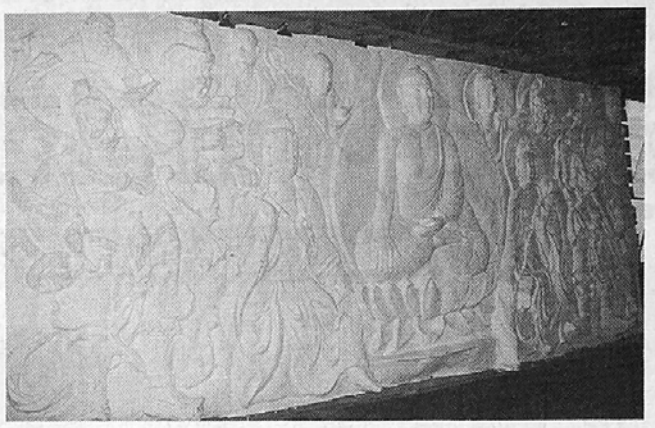
또 추진위의 이면에는 최인기 농림수산장관과 국회의원 김장권, 나인수 나주시장, 도의원 김평기, 박경중 백남식, 윤승혁, 신정훈씨와 최정기 나주시교육위원장 등은 명예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역 각 단체장들이 불교문화발전에 발벗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있는 일로 만하불교박물관의 설립은 지역 불심을 한데 모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 참여 인사들의 소신이다. 추진위는 박물관을 나주군 다시면의 폐교인 신광국민학교(2천평규모)나 97년 폐교예정인 다시남국민학교(1만평규모)로 점찍고 있다. 전시실과 수장고를 겸한 신축 건물을 지어 박정자씨의 작품 5백여점을 전시하며 불교미술품을 확보해 상설 전시한다는 계획이다.

장소가 결정되는대로 늦어도 97년 가을에 개관하게 될 만하불교박물관은 전시기능 외에도 지역민들에 대한 불화와 동양화교육의 장으로도 개방된다. 추진위는 개관즉시 불화·동양화 무료강좌를 열고 불교도서관도 갖춘다는 계획을 세우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고 있다. 또 매년 지역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방학기간동안 수련회를 갖고 불화그리기 대회를 개최 우수 작품들을 상설전시한다는 방안도 내놓고 있다.

박물관에 금니가사탱화(84년 전승공예대전 특별상) 불설대부모은중경(85년 전승공예대전 대통령상) 등 작품을 내놓게 될 박정자씨는 내년 가을 연세대 박물관에서 대형 전시회를 갖는다. 전시회 이후 나주지역으로 이사를 해 박물관 사업에 몰두할 계획인 박씨는 "지역 인사들이 불교문화 발전에 앞장 선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박물관을 통해 불교포교와 재능있는 인재 배양이 가능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임연태 기자



◇80여일간의 작업끝에 완성된 지불부조탱은 질감과 조형미가 우수해 새로운 불교미술의 영역으로 평가된다.

닥종이로 만든 부조탱

최춘근씨 80일 작업 완성

따뜻한 질감·균형미 강조

한지를 뜨기 전의 닥종이섬유를 소재로한 후불탱 부조작품이 만들어 졌다.

'지불부조탱(紙佛浮造幀)이라는 다소 생소한 장르를 개척한 주인공은 한지의 고장 전주에서 흙조각 활동을 해온 최춘근(34세)씨. 최씨는 최근 80여일간의 작업끝에 순한지 부조 후불탱을 완성했다.

지불부조탱화는 흙으로 만든 원형에 석고 모본을 뜨고 다시 모본에 한지섬유를 부어 형태를 떠 내는 공정으로 제작된다. 그러나 이 작업은 매우 치밀하고 세심한 손질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게 최씨의 설명이다. 특히 종이가 응고되면서 발산하는 장력 때문에 완성단계에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

한 스님이 법당에 모실 토판(土板)후불탱을 의뢰한데서 발단이 돼 종이부조후불탱을 만들기까지 수차례의 실험을 거친 최씨는 질감이 따뜻하고 조형미가 돋보이는 지불부조탱의 완성을 계기로 새로운 작품 만들기에 몰두하고 있다.

"순수 한지를 사용해 만든 만큼 질감과 조형성이 우수하며 한국인의 정서에도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아직 첫 시도에 불과하지만 보다 포괄적인 연구를 통해 다양한 작품을 만들 생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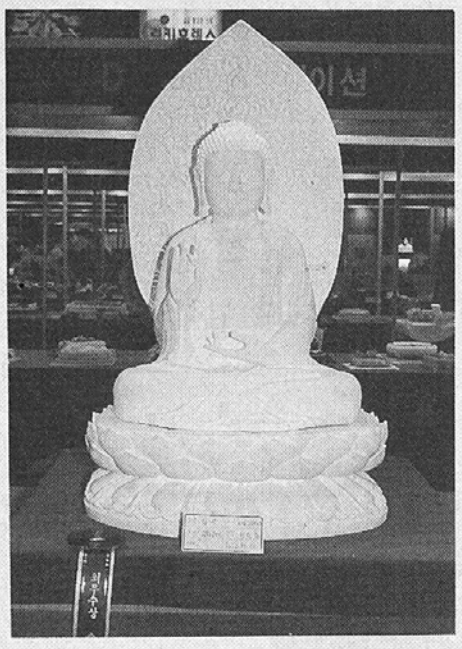
그가 우선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한지에 물을 들이는 것이다. 자신이 개발한 향토분채(8~9백도에 구운 흙을 갈아 입자를 한지 섬유에 먹인 것)로 만든 한지로 부조 작품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종이의 질에 대한 연구와 부조물의 채색여부, 도상의 정통성 획득등 최씨가 풀어야 할 숙제는 많지만 종이로 뜬 부조탱이 법당에 모셔질 날은 멀지 않는 듯하다.

부조 모본만 있으면 대량생산도 가능하지만 최씨는 "질료의 독특성을 추구한 것은 사찰과 시대적 특성을 최대한 갖는 예술품의 창작을 위해서였기 때문에 대량생산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전주=임연태 기자〉



◇최춘근씨



달콤한 부처님 대한제과협회가 지난 10월30일부터 2일까지 삼성동무역전시관에서 개최한 제4회 국제 빵·과자전에서 대한불과회 정판수회장의 설탕으로 만든 부처님이 최우수상을 받았다. 〈사진=고영배 기자〉

진철문씨 종이조각전 '가고싶다 그곳'

8일부터 조형갤러리

'그곳'에는 무엇이 있을까.

독특한 조형언어로 불교조각의 영역을 넓혀 온 진철문씨가 8일부터 12일까지 인사동 조형갤러리에서 다섯번째 전시회를 갖는다.

'가고싶다 그곳'을 주제로 마련된 이번 전시회에서는 한지나 폐품등을 활용해 만든 수행상등 각종 조형물이 선보인다. 깨달음을 향한 우리시대의 과제가 무엇인지를 느낄 수 있는 작품들을 통해 진씨는 고정화의 틀을 깬 자신의 작품세계를 보여준다. 특히 폐지를 활용해 만든 수행자들의 군상(20점)이 주는 인상은 '황량함'과 '의연한 기운'을 동시에 느끼게 한다. 이를두고 미술평론가 옥영식씨는 "역설의 아름다움"이라고 평했다.

오늘의 비극적인 불교현실이 하나의 단면으로 치부되지만 작가에게는 또다른 가능성의 현재적 고찰로 승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시인 황청원씨는 전시될 작품들을 통털어 "가벼움의 실체라고 할 종이를 통해 진한 존재의 무거움을 보여주고있다"고 해석했다.

이석조씨 '소리' 전

10일 대구동원화랑

만다라 화가 이석조씨의 '소리'전이 오는 10일~23일 대구 봉산동 동원화랑에서 열린다.

해학과 풍자 은유 상징 우화를 포괄하는 수법으로 표현한 작품들이 선보인다. '소리'라는 전시의 주제 역시 시각적인 만다라의 이미지를 청각화 시킨 것으로 그의 그림세계가 갖는 해체와 비약의 풍조를 대변해 준다.

'성자의 길' 시리즈

한승구씨, 경인미술관

한승구씨의 '현실, 그 명암전'이 3일~9일까지의 일정으로 관훈동 경인미술관 제1전시실에서 열리고 있다.

동국대를 나와 불교미술의 현대화풍을 모색해 온 작가 한씨는 이번 전시에서 '성자의 길' '얼굴'등 시리즈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장지에 수묵채색으로 주제의 선명도를 강조한 작품들이 관객의 눈길을 끌고있다.

부산에서 활동을 하면서도 서울에서 '동작전'(90년) '불심전'(93년)등 꾸준한 개인전을 갖고 있는 한씨는 월간 〈불교세계〉의 편집위원으로도 참여하고 있다.



◇원로작가 '이경모 고희기념사진전'이 지난 3~8일 문예진흥원 제2전시실에서 열렸다. 사진은 이씨의 1954년 10월 작품 '서울 봉은사'.

새 찬불가 100곡창작 불사 마무리

BBS 5개년 사업 최종 20곡 완료

내년초 국립극장서 발표회

불교방송이 91년부터 추진해 온 찬불가 정비작업의 일환인 신작찬불가 1백곡 창작사업이 완료됐다.

불교방송은 최근 마지막 해당년도인 금년도 신작찬불가 20곡이 완성됐다고 밝혔다. 금년에 창작된 신작찬불가들도 예년과 같이 귀의·찬탄등 10여 분야로 나눠져 완성됐다. 불교방송의 관계자는 또 이번이 1백곡 목표를 달성한 마지막 공연인만큼 보다 큰 무대를 꾸밀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작 찬불가를 발표할 불교방송 어머니합창단을 이달 중순부터 연습에 들어간다.

불교방송은 개국 다음해인 지난 91년 찬불가의 정비와 모든 불자가 함께 부르는 통일된 불교노래의 보급을 목적으로 이 사업을 시작했다. 그 해부터 매년 20곡씩의 신작찬불가를 '음악공양의 밤'을 통해 발표해 왔다. 이들 신작찬불가는 귀의·예배·찬탄·발원·청법·공양·회향·참회·절기·행사 등의 분야로 고르게 나눠져 권위있는 작사·작곡가에게 의뢰해 창작돼 왔다. 김동환, 김희조, 정부기, 장일남, 김희경, 이상규씨 등 작곡가들이 매년 참여했으며 정운스님, 성우스님, 지성스님, 정완영, 황청원, 문정희씨 등도 필력을 보태 가사를 내놓았다.

그러나 불교방송은 내년부터 그간 창작해 온 1백곡의 찬불가들을 불자들이 보다 쉽게 배워 법회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새로운 과제를 안고 있다. 이와관련 방송국은 신작찬불가집을 발간 배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방송을 통해 신작곡들을 소개하는 일도 꾸준히 전개할 계획이다.

환경생태보존 예술인연합회 발족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환경오염으로부터 지구촌을 보호하겠다는 불자미술인의 '민족환경생태보존예술인총연합회(환예총·대표 강행원)'가 지난 10월28일 조계사 산중다원에서 발족됐다.

한국불교재가회의 문화예술 분과를 모체로 하는 환예총은 강행원 이덕환 서영석(한국화) 박찬갑 이미숙(조각) 김영만 황남채(판화) 정경연 홍기자 두시영(서양화) 김상섭(한국화) 등 총 11명에 의해 발기됐다.

환예총은 환경보호는 물론 민족문화와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해 인간성 회복에 일익을 담당한다는 창립 취지에 걸맞는 예술활동을 해나갈 계획이다. 또 순수미술운동의 특수성에 입각한 창작방법론의 강구와 연구에도 전력한다는 방침이다.

96년 부처님 오신날을 전후해 창립전시회를 계획하고 있는 환예총은 불교교리를 통한 창작영역개척은 물론 환경 이벤트와 설치전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전시회 기간에는 작가와의 대담시간도 갖는다는 복안이다.

東大국악과 정기연주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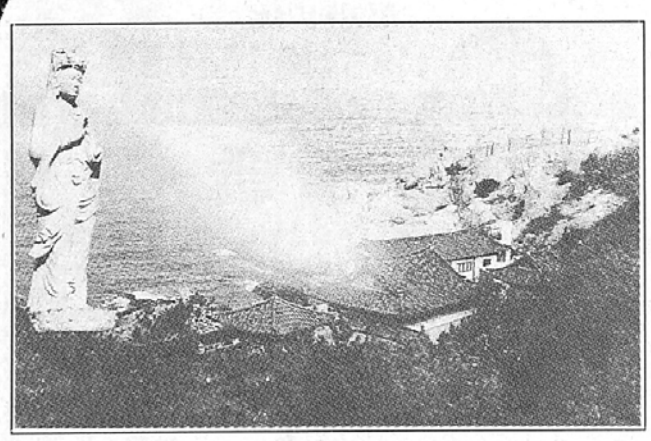
동국대 불교문화대학 국악과 학생들의 첫 정기연주회가 8일 오후7시 대구 대백프라자 예술회관과 9일 오후7시 경주 서라벌문화회관에서 잇따라 열린다.

영산회상곡 중 염불도드리와 판소리 바라춤 등의 악·가·무 순서와 국악찬불가 관현악과 민요·사물놀이를 위한 국악관현악등 관현악의 순서로 진행되는 이번 연주회는 불교음악의 미래를 담보한 학생들의 첫 무대란 점에서 매우 기대를 모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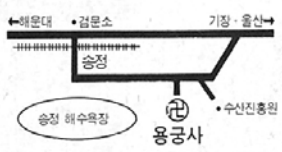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海水觀音 방생도량

해동용궁사는
뒤는 산이요, 앞은 푸른바다에 펼쳐진 절경으로
관세음보살님의 진신(眞身)이 상주하시는 관음기도도량이며 방생도량입니다.
금번 용궁사에서는 관음대불을 봉안하옵고 많은 기적과 불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용궁사는 특히 삼사순례나 방생법회를 하시는 데 가장 좋은 곳으로 유명하오니
전국의 주지스님과 신도님께서 방문하시면 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입장료 무료
대형주차장 완비
방생물 예약 준비해드림
해운대-용궁사 10분 거리



海東龍宮寺 기도영험도량

용궁사 오시는 길 해운대 달맞이길 → 송정 해수욕장 → 용궁사 (051)722-7744, ⓕ 722-7755

중국명문 한의대 남경중의약대학

박사 과정 연수

대 상	한의사, 한약사, 스님, 기공에 관심있으신 분
기 간	8박 9일
주요연수내용	중풍, 당뇨병, 좌골신경통 등의 침구치료, 비만치료법, 기공 등
연수후	박사과정 연수 수료증 (침구·기공)
인 원	15명 이내
출발일	1995년 11월 27일(월요일)
남경중의약 대학	중국 남경 660-7129

문의처

자매대학-삼화불교대학

TEL : (02) 511-2026, 2027, 2028, 1080
FAX : 511-1080

불교 정보 95년도 신판 발간

(불기 2539년-1995년-가을호)

불교계의 자료집으로 제작·보급되는 불교정보는 불교계의 모든 정보와 자료를 보다 정확하고 알차게 갖추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후원 있으시기 바랍니다.

◉ 기재된 내용
1) 불교 종단의 임원 및 주소, 전화번호, 역사 등
2) 사찰의 건립 및 중창 역사, 주소, 전화번호, 현존 문화재, 소속종단, 조실 및 현 주지 등
3) 전통사찰에 전해 오는 설화와 사찰 기록
4) 사찰과 포교당의 법회, 위치 및 교통편 안내
5) 불교계 언론 및 잡지사, 출판사, 불교용품 전문점 등
6) 불교계 각종 학교, 신도회 및 일반 신행회 안내
7) 사찰과 신행회는 각 시도별로 가나다 순으로 분류하였습니다

※ 위와 같은 자료를 제공하여 주시면 개정판에 기재하겠습니다.
※ 불교정보 1권당 1만원입니다.
※ 책 대금을 다음의 통장으로 입금하여 주시면 접수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농협중앙회 053-12-023151
외환은행 150-13-11760-5
국민은행 832-24-0006-924
서울신탁은행 15501-2537606
체신부(우체국) 011965-0066025
조흥은행 390-04-164932

예금주 : 이성호

도서출판 다모다

☎ 02-921-6669, 6670

화면으로 대장경 열람 '불교 세계화 기여'

대장경 전산화 입력완료 — '정보화 사회와 불교의 변화' 특별좌담 (본사·장경연 공동주최)

지난 10월 15일 멀티미디어 전자게시판 '부다피아'를 개통하여 새로운 매체포교의 장을 연 본지는 해인사대장경연구소(이하 '장경연구소')와 공동으로 '정보화 사회와 불교의 변화'를 주제로 특별 좌담회를 열었다.

이번 좌담회는 사회적 관심속에 진행해온 고려대장경의 전산화 작업이 마침내 오는 12월초 총 4천4백만자에 달하는 고려대장경 원전을 온전히 입력하게 되는 뜻깊은 시점에 맞추어 마련됐다.

대장경 전산화 작업은 그동안 장경연구소에서 소장 종림스님을 비롯한 8명의 전문 연구원들과 45명에 이르는 입력요원이 참여해 추진되었다. 〈편집자 주〉

참석자
- 종림스님(해인사대장경연구소 소장)
- 향적스님(조계종 교육원 교육부장)
- 성태용씨(건국대 교수·철학과)
- 김형균씨(불지사 대표)
- 사회/현기스님(해인사대장경연 기획실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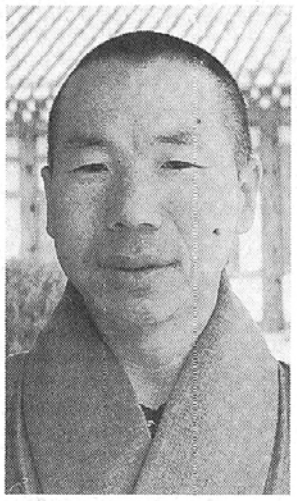
□ 일시 : 1995년 10월 31일 오후5시
□ 장소 : 해인사대장경연구소 회의실



◇사회 현기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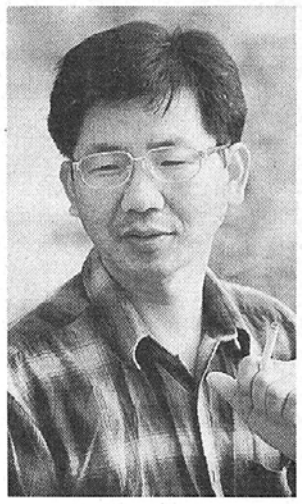
종림스님



향적스님



성태용씨



김형균씨

열려진 정보 활용이 관건… 지원·참여 계속돼야

'21세기 경전 결집' … 윤택한 신앙생활 보장

종림스님 — 한국불교 세계화로 학문발전 기대
향적스님 — 종무 전산·실용화 기회삼아야
성태용씨 — 경전 창조적 재해석 가능
김형균씨 — 불교용어 표준화 대중의 정보공유

수행 존중받는시대 도래

김형균:저는 대장경 전산화가 '21세기 경전의 결집'이라는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컴퓨터 화면으로 대장경 전체를 볼수있게 된 것은 집안에 부처님을 모시는 신앙적 의미도 크다고 봅니다.

사회:지난 1년동안 사업을 주체적으로 이끈 종림스님께선 고려대장경 초벌입력을 바라보는 감회가 남다르실텐데 감회와 함께 대장경 전산화 동기를 밝혀주십시요.

종림:그동안 불교를 변화시키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사회의 정보화 추세와 보조를 맞추는게 가장 시급한 길이라고 느껴 한글대장경 전산화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고려대장경의 초벌입력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다다른 것을 지켜보니 한국불교가 이제 세계로 진일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사실 불교는 지금까지 정보사회 속에서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정보화 사회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전산화가 가져올 불교 내부의 변화에 대해 말씀해 주시지요.

성태용:정보화 사회란 모든 사람이 체계화된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사회입니다. 또한 홍수처럼 밀려오는 정보를 빠르게 검색할 수 있는 정보체계 역시 요구되는 사회입니다. 그러나 불교가 사회변화 추이에 편승하지 않는다면 도태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정보의 공유'역시 보장되는 사회라는 것을 강조해야겠군요. 다시말해 대중적인 정보사회로 지칭할 수 있습니다.

사회:성교수님의 정의를 좀더 확대하면, 자본주의 이념 처럼 사유할 수 있는 정보의 양에 따라 삶의 질이 변한다고 가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삶의 질을 결정 짓는 정보의 윤리적인 측면도 고려해야겠습니다.

성태용:정보화 사회에서 정보가 전적으로 인간의 삶을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인간이 어떻게 이용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정보 사용의 불평등 구조가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좋은 사회를 창조하기 위해 불평등 구조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종림:인간 자체의 삶을 규정하지 않는다는 성교수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대장경 전산화의 의의도 여기에 있습니다.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노력이기 때문입니다.

김형균:과거 일반대중들은 불교를 단지 전통문화에 국한지어 보아 왔습니다. 이러한 편견은 불교가 현대화·정보화 시대에서 벗어나, 시대조류의 건너편에 서 있는 형국을 만들었습니다.

한편 불교 내부에서도 불교가 정보화 사회로 부터 고립된 원인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정보화 사회에 대한 불교의 인식부족입니다. 또한 불교와 관련해 진행되는 일련의 정보화 작업이 있기는 하지만 불교의 특수한 영역에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처럼 어렵게 구축된 불교관련 정보가 단지 불교계 특수한 계층에 한정되어 공급되는 실정입니다.

사회: 정보사회에서 도태될 때 한 집단, 한 조직이 무너진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겠군요.

그렇다면 불교 역시 종단행정의 전산화를 시급히 꾀해야 하고 전문인이 앞장서 불교 정보화에 노력하여 불교 발전을 견고히 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서둘러야 할 것이 바로 '정보관리체계 확립'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김형균:정보관리체계라기 보다는 '정보 정리'가 더 적절한 표현이 아닐까 합니다.

성태용:그렇습니다.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이 급속히 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변화가 빠른 시대에서 오래되고 소외된 자료는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불교는 여기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우릴 때입니다.

'정보 특수계층' 형성도

향적:일반대중이 한국불교를 단지 수행에만 국한시켜 지금까지 정보화 사회에 대해 수동적인 대응만을 보여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교육원이 실시한 멀티미디어 교육에 60대의 중진 스님들이 의외로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또한 강원스님들이 최근 상용전산망을 이용하여 선(禪)지식을 교류하고 있습니다. 종단 역시 포교사업, 교육사업 등을 비롯 종무행정에 있어 전산화의 필요성을 절실히 인식하고 있으며 실용화를 위해 현재 일부 지원비를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사회: 지금까지 거론된 의견을 통해 불교 전산화에 대한 필요성이 충분히 공유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전산화가 가져올 불교의 변화상에 국한지어서 의견을 피력해 주십시요.

종림:불교가 전산화 되면 모든 사부대중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지금까지 지속된 불교의 악습과 교학의 관념에서 탈피해 진정한 부처님 법인 '인간해방'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더불어 공개된 장소에서 불교 교리의 검증이 가능해 기존 관념들이 사라지고 불교의 '학'적인 새로운 개념이 생겨날 것입니다.

향적:인간해방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종림: '인간해방'이란 고정관념에서 탈피하고 새로운 자아, 새로운 관계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사회: '해방'이란 개념은 모든게 재편성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성교수님이 학계에 있어 불교의 변화상을 지적해 주시죠.

성태용:한마디로 불교는 덕을 볼 것입니다. 불교관련 정보들이 전산화 되면 불교, 특히 경전에 대한 독단적인 해석이 불가능해 집니다. 또한 체계화된 불교정보의 공유로 인해 경전에 대한 창조적인 재해석이 활발히 진행될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현재 추진중인 '한글대장경 전산화'는 경전을 자유롭게 불러내고 비교 검증이 가능한 정보체계를 갖출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자기식 경전 해석은 한편으로 위험한 발상이 아닙니까.

종림:다양한 해석은부처님의 진정한 가르침입니다.

사회:불교에 대해 학계의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출판업계에는 적잖은 타격을 예상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김형균:정보를 공유한다는 것은 공통분모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대장경의 한글화 전산화는 불교언어의 표준화를 더욱 빠르게 진행시킬 것입니다.

불교방송이 개국한 뒤 불교계의 가장 큰 변화로 지적된 것이 바로 불교언어가 생활언어로 변화한 것은 좋은 예입니다.

성태용:불교의 전산화는 당연히 체계적인 정보 구축과 표준화·개념화된 불교언어를 낳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재가불자들의 심도있는 불교이해를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결과는 불교계 전반적인 소양상승과 더불어 불교의 비약적인 발전을 예견하게 합니다.

사회:지금까지 불교의 개념이 확실해지고 승가와 재가의 사상적, 학문적 율타리가 없어지는 등 불교 전산화가 학계, 출판계 등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진단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종단, 작게는 종무행정에 있어서도 개혁의 단초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면을 기대해볼 수 있겠는데요.

향적:개편되야죠. (일동 웃는다) 특히 종무행정에 있어 예산절감, 시간절약 등이 선행될 것이고 궁극적으로 행정의 투명성을 이끌 것입니다.

다시말해 불교가 종교로서 진정한 자리매김을 할 것입니다.

사회:종단의 통일성, 투명성이 불교 전산화와 정보의 평등한 공유로 비로서 완성된다고 할 수 있겠군요.

성태용:그렇습니다. 민주적인 불교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통일화 된 종무행정 전산망을 통해 '전 불교인의 소리'가 종단에 여과없이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김형균:사찰문화재가 일반인에게 쉽게 공개되며 공유될 수 있다는 변화도 지적해야 합니다.

사회:성교수님의 '전 불교인의 소리'는 신선한 지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불교의 전산화가 종교로서 불교의 위상을 새롭게 가져올 부분도 놓칠 수 없을 것 같은데.

향적:불교의 전산화는 지금까지 높은 곳에 있었던 불법을 낮은 곳으로 흐르게 할 것입니다. 또한 책 보다도 컴퓨터에 더욱 친숙한 젊은세대도 보다 용이하게 불법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는 긍정적인 면도 지적해야겠습니다.

김형균:그의에도 일반대중의 신앙생활이 더욱 윤택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찰에서 벗어나 컴퓨터 화면에도 부처님이 나투실 것이며 대장경 전산화로 편리하게 경전 열람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낮은곳으로 향하는 불법

사회:신앙생활이 윤택해진다는 김실장의 지적은 본인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전산화가 가져올 불교의 변화 모습을 살펴보면 종림스님이 '인간해방' 성교수님이 '경전의 창조적인 재해석' 김실장님이 '표준화된 불교언어' 향적스님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 불법' 등으로 지적되었는데, 이것은 '21세기 경전의 결집'이라는 커다란 울타리를 갖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태용:그렇습니다. 불교의 본질이 일반대중에 직접 와닿는 거대한 태풍이며, 불교계에 가장 시급한 불사가 아니겠습니까. 또한 불교연구가 상당부분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볼 때 국가적인 업적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장경연구소의 대장경 전산화 지원과 관심에 인색한 현 정부와 불교계의 모습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사회:좋은 지적입니다. 지금까지 대장경 전산화의 동기와 그로인한 불교의 변화상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결과를 얻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외부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종림스님께서 향후 대장경 전산화에 관련하여 계획을 밝혀주시죠.

종림:현재 한글대장경 사업을 진행시키기 위해 약 50억 정도의 예산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 조차 대장경 입력, 교정, 검색 프로그램 제작, 교육비 등의 전산화 제반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예를 들어 오는 12월 초 입력을 마치게 될 고려대장경 교정에 드는 비용이 어림잡아 30억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장경연구소는 대장경 전산화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수륙제 등 다양한 이벤트와 캠페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까지는 한자입력의 초교와 한글입력을 끝마칠 계획입니다.

〈정리=오종욱 기자〉

도움주실 분을 모십니다

14세 중학 입학을 앞두고 있는 한 신체 장애자의 어머니입니다.
집안형편이 넉넉지 못하여 충분한 병수발도 들어주지 못하는 터에 학교통학만이라도 좀 편하게 해주고픈 마음에 아이를 「태우고 다닐 수 있는 차량」으로 도움 주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자비하신 마음으로 도움 주실 불자님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연락처 454-3059

사찰에 주석하실 스님을 모십니다

귀의 삼보하옵고
70된 노거사입니다.
본인은 일찍이 불법홍포에 원력을 세운 바 충주 계명산에 사찰건립최적지를 발견하고 일심으로 불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석굴본존불, 해수관음, 아미타불, 5층석탑, 요사채가 완공이 되어 최초계획의 70%가 완성되었으나 가장 중심이 될 대웅전 건립을 앞두고 불사금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간절한 마음으로 「불사완성에 참여하실 스님, 독지가」를 구하오니 인연 닿으신 분께서 연락을 주시면 참여조건을 몇 가지로 의논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0441-851-3666(집 조식) / 0441-853-2996(사찰 12시)



72세 할머니가 본 제도를 이용하여 2년만에 중졸·고졸과정을 거뜬히 마쳤습니다.

개인적 사정으로 학업의 기회를 놓치신 분을 위하여 학원에 가지않고 가정에서 졸업장을…

한글반 회원모집중

년2회실시 4월·8월 검정고시 국졸·중졸·고졸

⊙ 자신감을 갖고 집에서 공부하도록 합격의 길을 안내합니다.

국교 졸업과정	한글반·재수생·직장인·주부반
중학 졸업과정	⊙ 쉽게 풀이된 해설 「강의해설교재」
고교 졸업과정	⊙ 학교수업식 「강의 녹음」 학습
대학 졸업과정	⊙ 철저한 1 : 1 「담임 관리제」 ※ 한글 속성 1개월 쉽게 터득 가능

축
신영희(72세, 할머니) : 中·高과정(24개월)
박순희(45세, 주부) : 中과정(5개월)
이상수(39세, 직장인) : 中·高·大과정(36개월)

■ 특전 : 합격보장 총정리문제집 제공
95년전원졸업목표 ➡ (영·수) 「비디오강점교사」 특별제공 (1인1지도)
철저한 학습관리! 전화접수(비밀보장 PM 9 : 00)
기초(영어,수학)가 약한 분을 위한 별도 해설집 제공

◆지는 어려운 가정에서 국민학교를 2학년 다니다 중퇴한 것이 사회에 나와서는 두고두고 학력차이로 인해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마침 대한교육평가원에 노크하여 94년 4월 4일에 등록했고 약 두 달후인 5월 21일에 국민학교 졸업과정 시험인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했으며 다시 중학교 과정의 공부를 시작하여 3개월후인 8월 19일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하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지는 지금 희망에 차서 고등학교 졸업과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발전하도록 힘이 되어준 대한교육평가원에 감사드리며 부족하나마 저와 같은 길을 가고자 하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격려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 최경일(남, 27세) 드림 —

학사학위취득전문교육 대한교육평가원
우110-410 서울 종로구 인의동 해운항만청별관 2층 213호
상담전화(비밀보장) (저녁 9 : 00까지 접수) 02)766—9090
(수신자 부담) 크로바써비스 080—023—4600

다시 푸는 경서 치문경훈 (34)

慈恩法師出家箴 (자은법사출가잠)

捨家出家何所以 稽首空王求出離
사가출가하소이 계수공왕구출리
三師七證定初機 剃髮染衣發弘誓
삼사칠증정초기 체발염의발홍서
去貪瞋 除癡憒 十二時中常謹愼
거탐진 제비민 십이시중상근신
鍊磨眞性若虛空 自然轉退魔軍陳
연마진성약허공 자연전퇴마군진

집 버리고 출가한 것은 무슨 까닭인가. 부처님께 머리조아려 출세간 법 구함이요

삼사칠증으로 처음 마음기틀 정하고 머리 깎고 먹물 옷 입어 큰 서원 세움이로다

탐진을 버리고 세속의 하찮은 욕심 제하여 하루 종일 근신하라

너의 참 본성 밝혀 티끌없는 허공같이 된다면 마구니는 절로 물러나리라.

勤學習 尋師匠 說與同人堪倚仗
근학습 심사장 설여동인감의장
莫教心地剗如麻 百歲光陰等閒喪
막교심지란여마 백세광음등한상
踵前賢 躅先聖 盡覆聞思修證得
종전현 효선성 진가문사수증득
行住坐臥要精專 念念無差始相應
행주좌와요정전 념념무차시상응
佛眞經 十二部 縱橫指示菩提路
서 이 몸 견고하다 보장하겠는가

누에 먹이지 않으면서 옷 얻어입고 밭 갈지 않으면서 밥 먹으니 길쌈하는 여인과 밭가는 농부의 피땀흘린 노력이다.

도업 이루라고 시주한 것이거늘 도업 이루지 못하고 어떻게 그 업장 녹이리오.

哀哀父 哀哀母 嚥苦吐甘大辛勤
애애부 애애모 연고토감대신근
就濕回乾養育成 要襲門風繼先祖
취습회건양육성 요습문풍계선조
一旦辭親求剃落 八十九十無依託
일단사친구체락 팔십구십무의탁
若不超凡越聖流 向此因循全大錯
약불초범월성류 향차인순전대착

슬프고 슬프다. 부모님이여, 쓴 것 삼키고 단것 뱉어(괴로움은 당신 몫, 즐거움은 자식몫으로 돌리며) 큰 고통 견디고 진자리엔 당신들이, 마른 자리는 내게 돌려가며 길러주신것은 가문의 기풍을 따르고 선조를 계승케 하심인데

하루아침에 어버이 이별하고 머리깎으니 팔·구십에 의탁할 곳 없어라

(그대가) 만약 범부를 뛰어넘고 성현의 무리를 넘지 못한다면(득도 해탈 못하면) 한생 머뭇거리는 잠간사이에 크게 그르치게 된다.

"선지식 찾아 머리의 불끄듯 궁구하라"

불진경 십이부 종횡지시보리로
不習不聽不依行 問君 何日心開悟
부습불청불의행 문군 하일심개오

부지런히 닦고 익히되 선지식을 찾아 묻고 기꺼이 도반과 함께 견디어 의지할 지언정 마음이 난마처럼 얽혀 일생을 헛되이 손상케 하지말라

역대조사의 뒤를 잇고 선지식을 본받아 듣고 생각하고 닦기를 다해 증득할 것이니 행주좌와에 오로지 정진, 또 정진하여 생각생각에 어긋남이 없이하면 비로소 (조사·선지식에) 상응하리라

부처님의 참된 말씀 12부(모든 경전)에 가로 세로 보리의 길이 일러져 있거늘 익히지도 듣지도 행하지도 않는다면 그대에게 묻노니 어느 날에 마음 깨칠 것인가.

速須究 似頭燃 莫待明年與後年
속수구 사두연 막대명년여후년
一息不來卽後世 誰人保得此身堅
일식불래즉후세 수인보득차신견
不蠶衣 不耘食 織女耕夫汗血力
부잠의 부전식 직녀경부한혈력
爲成道 業施將來 道業未成爭消得
위성도 업시장래 도업미성쟁소득

모름지기 속히 궁구하기를 마치 머리의 불 끄듯하여 다음해 또 그 다음해를 기다리지 말라

숨 한번 그치면 곧 다음 생이다. 뉘라

福田衣 降龍鉢 受用一生求解脫
복전의 항룡발 수용일생구해탈
若因小利縈心懷 彼岸星繁爭得達
약인소리계심회 피안열반쟁득달
善男子 汝須知 遭逢難得似今時
선남자 여수지 조봉난득사금시
旣遇出家披縷褐 猶如浮木值盲龜
기우출가피루갈 유여부목치맹구

가사와 발우만으로 평생을 두고 해탈을 구할 것이거늘

만약 작은 이익에 마음이 매이면 저 열반언덕에 어찌 도달하겠는가.

선남자여 너는 모름지기 알라. 얻어 어려운 것 만난게 이때인데 이미 출가해 누더기 옷 걸쳤으니 마치 눈먼 거북이가 바다에 뜬 널판지를 만난 것과 같다.

大丈夫須猛利 緊束身心莫容易
대장부수맹리 긴속신심막용이
儻能行願力相扶 決定龍華親授記
당능행원력상부 결정용화친수기

대장부면 모름지기 용맹심의 날을 세워 몸과 마음을 속히 추스리되 쉽다고 하지말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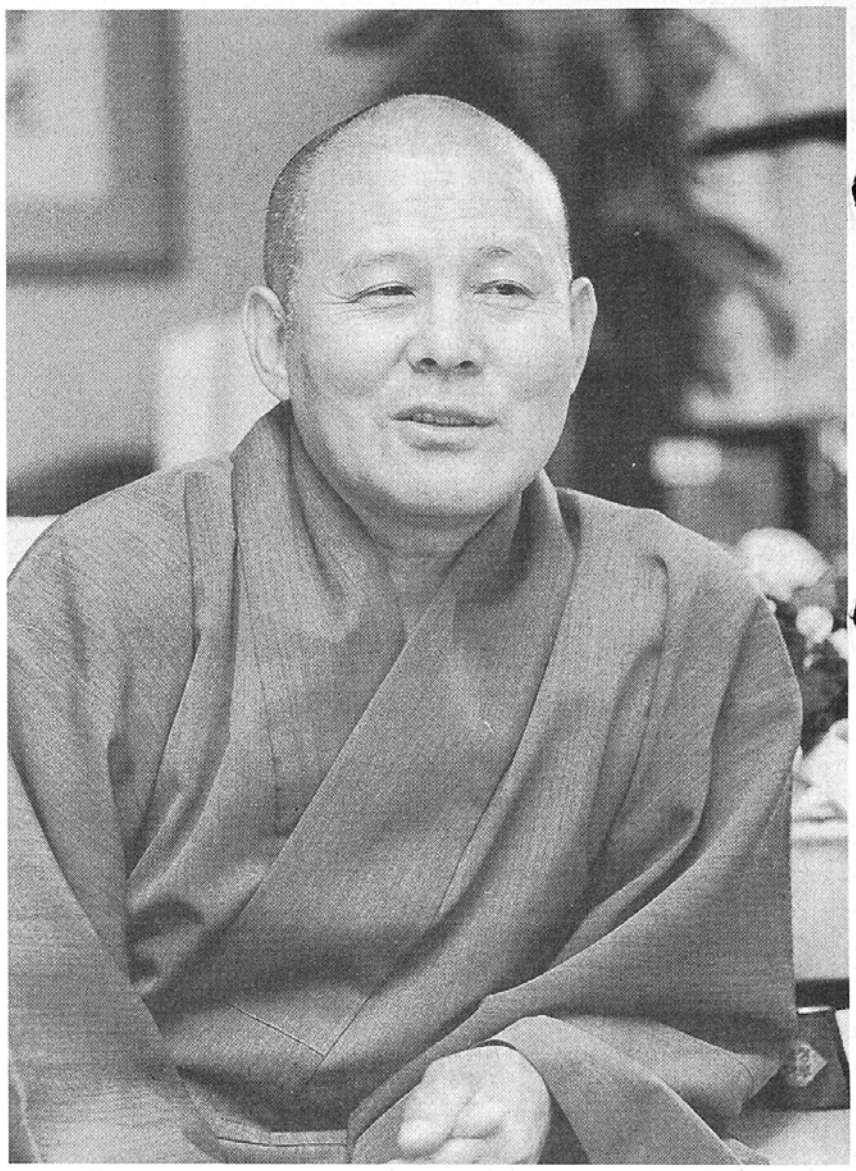
행과 원력이 빼어나 서로 부축이면 결정코 용화세계에서 직접 수기화게 되리라

龍眼

★ 지상법석

"일체생명 나의 한 부분

지관스님 〈해인사 주지〉



약력
- 47년 해인사에서 자운스님 은사로 출가
- 표충사, 동화사, 해인사 강사역임
- 76년 동국대 대학원에서 철학박사 학위
- 86년 동국대총장 역임
- 현재 동국대 교수, 가산불교문화연구원 이사장

"선정의 세계는 시간·공간 장애를 초월 보지못하는 곳까지 보게하고 가지 못하는 곳까지 이릅니다"

종교에 입문하게 되는 사람은 나름대로의 내면적 동기를 갖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그 계기를 일별하여 보리심을 발하였다고 하며, 그 보리심은 깨달음의 발단이 되고 불자들이 이상으로 하는 완전한 자유-해탈의 종자가 되며 궁극에는 이타의 덕성을 함양시켜 밝은 세상을 구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삼독(三毒)으로 얼룩진 무한생사의 풍랑 속에서 진정한 보리심을 발한다는 것은 밝기를 헤아리기 어려운 등불을 밝히는 것이요 세간의 빛깔에 비유할 수 없는 장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무변광명과 무한 장엄-지혜와 자비를 계발하는 일, 이것이 참으로 보리심을 발하는 일이며 출가입신(出家入信)하는 길입니다. 삼독을 여의는 길이 출가요 보리심을 발하는 것이 입신의 길이니 참으로 완전히 비우면 만덕(萬德)이 꽉차게 되는 것입니다. 진공묘유(眞空妙有)는 이를 두고 이른 말입니다. 삼독을 비우고 만덕을 기르는 일은 삼학을 근본으로 합니다.

삼독의 과랑은 거칠고 끈질깁니다. 무한광명의 여래종자와 오색장엄의 본지풍광이 덮힘도 이 때문입니다. 계정혜(戒定慧) 삼학은 번뇌와 윤회의 사슬인 삼독을 끊는 보리의 방편입니다. 계를 지킨다 함은 만유불성(萬有佛性)의 종자 즉 보리심을 보호하고 증장하는 일입니다.

산 생명을 죽이지 않는일 이것이 바로 불성을 기르는 일입니다. 나아가 산 생명의 선한 의지를 북돋아 주는 일 그것은 더욱더 적극적인 지계의 실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비희사(慈悲喜捨) 네가지 무량한 마음으로 중생을 감싸주는일은 바로 계학의 대승적 기초가 됩니다. 욕망으로 담을 쌓고 극도의 이기심으로 자기를 지키려는 현대 산업사회에서 적극적인 지계(持戒)의 실천은 맑고 투명한 용기로 지켜나가야 합니다. 욕망이 가득한 세상 지계의 실천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선정(禪定)을 수습하는 일 또한 삼독을 제거하고 우리의 본래면목을 되찾는 일 입니다. 회광반조(回光返照)는 이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하늘을 올려다 볼 잠간의 여유도 없이 급격하게 변하는 정보산업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세간법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유한의 조건과 욕망의 밀도를 근거로 지탱하며 또 평가합니다. 속도는 더 빠른 속도로, 욕망은 더 큰 욕망으로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유한한 조건에 얽매어 있는 현상을 불교에서는 유루법(有漏法)이라 합니다.

칼이 칼로서 영원한 승리를 얻지 못하듯 이 욕망은 더 큰 욕망으로 이기지 못하며, 작은 시간을 큰 시간이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유한한 것은 유한한 것으로 정복할 수 없습니다. 선정을 수습하는 일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선정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의 장애를 초월합니다. 빠른 것을 더 빠른 속도로 보려 하는 것보다 정지된 고요함이 오히려 빠른 것을 바로 볼수 있습니다.

달리는 사람은 외경(外境)을 바로 보지 못합니다. 조금 느린 걸음은 보다 조금 더 세상을 내다볼 수 있습니다. 완전하게 정지된 경우 세상은 또렷하게 보입니다. 출렁이는 호수는 풍경을 비추기는커녕 외경을 어지럽힙니다. 고요한 수면은 삼라만상을 완벽하게 비춥니다.

선정은 보지 못하는 곳까지 보게하며 가지못하는 곳까지 이르게 합니다. 우리를 억압하는 시간과 공간은 오히려 마음의 범주를 객관화한 조건일 뿐 입니다. 선정을 수습하는 일은 정보화 사회에서 더욱 중요한 일입니다. 마음의 빛은 그 무엇보다도 빠르며 마음의 광명은 그 어느 빛보다도 밝습니다.

지혜는 수습하기보다 발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계와 선정이 불가분의 공력을 갖듯이 선정은 지혜를 수반합니다. 마치 백촉의 등잔이 백촉의 밝기를 내듯이 아뇩다라삼먁삼보리-무상정등정각(無上正等正覺)에 있어서 정등(正等)과 정각(正覺)은 불가분의 이치입니다.

개인의 구복을 위하여 기도하거나 중생을 상해하거나 괴로움을 주면서 나만의 해탈을 위해 선정에 들려 한다면 바른 선정에 들 수 없거니와 바른 지혜를 얻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없는 깨달음은 대원력과 원행없이 이루어 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석가세존과 모든 부처님에게는 반드시 본생담이 있게되는 것입니다.

분별의 인간 지능이 고도화되어 생명마

'95 미술의 해 기념 불교미술특별전

티베트스님수작
진품 만다라

티베트 독립을 서원하는 스님들께서 광복 50주년과 미술의 해를 기념하여 부처님의 가피와 원력으로 출품한 성보입니다.



■ 액자규격:56×69(cm) ₩700,000
48×56.8(cm) ₩480,000

입체손자수
해수관음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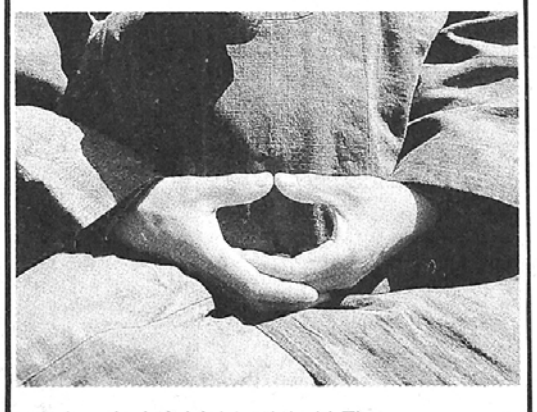
불교사상 최초로 출품한 입체손자수로서 한올한올 수만번의 손놀임으로 완성한 불심과 공덕의 성품입니다.



■ 액자규격:68×113.6(cm) ₩330,000

구입문의 기획제작 三田佛事 (02) 732-6095 732-6096
• 클로버서비스전화 080-023-1101(요금 수신자 부담)

한민족 정통 신선도 수련법



회원모집 : 수시접수 (영구회원 접수중)
수련과정 : 단전호흡법, 철산법, 신선기공 36동작, 생식법, 벽곡법, 토굴에서 생활하는 법, 단식법
문의전화 : (02) 735-6795 · 6796 / FAX (02) 730-9298
서울 종로구 인사동 4-2 중원 B/D 4층

한국 신선도 협회
회장 이해창(성오) 합장

그룹으로 周易 강의합니다

易은 훌륭한 철학서인 동시에 占書이기도 한데 소리에 응하는 메아리처럼 미래에 야기될 사태를 정확히 예고하는 無上의 인식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과정:3개월 / 전화:(02) 723-5665

※ 지방도 출장지도합니다.

20년 전통의 모범업소
행운 결혼 상담소
(관허 53호)
엘리트 결혼·중매

한마음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해나갈 평생 반려자를 불자님께 맺어드리겠습니다.

담당 김춘미 합장

문의전화
주간 (02) 960-2434
야간 (0343) 47-1046

초혼
의사, 박사, 판·검사, 행정고시 합격자

재혼
사업가, 공무원, 회사원

* 책임 성혼

알립니다

노승은 지방사찰에 주석하면서
서울 은평구 북가좌동 한양APT 밀집지대에 포교당을 마련하고 1년 정도 운영해 왔습니다만 건강상의 문제로 서울과 지방을 오가기가 벅찬 상태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일선 포교에 원력을 세우신 스님이 계시면 현재 들어있는 보증금 2000만원과 월세 30만원만 부담해 주시고 현재 시설되어 있는 법당·불상·불구·거실 등의 일체 시설비는 받지 않고자 합니다.
인연 있으신 스님의 연락을 바랍니다.

문의 (02) 372-0037 최보살

지 상 법 석

'차별없는 사랑' 원력 갖자"

"이기심 · 욕망이 팽배한 현대사회에서 지계의 실천만이 본래면목을 찾을 수 있습니다"

慈悲喜捨로 산 생명 돌봄은 불성을 기르는 일
중독된 욕망 정화·청정심 회복에 종교인 나서야

저도 만들어 내는 첨단생명공학의 시대입니다.

분별의 오류를 영원히 넘어선 선정의 수습으로 얻어진 금강반야의 대지혜광명이 그 어느때보다도 빛을 발해야 할 때입니다.

삼학을 수습하여 무상정등정각을 얻으신 도든 부처님은 반드시 중생을 제도합니다. 중생이 없는 부처님은 마음만 있고 몸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불교에 있어서 자비를 강조함은 이타의 선행이나 세간적 구제의 방편 때문만은 아닙니다. 깨달음의 완성은 반드시 자비를 수반합니다.

석가세존께서 이루신 정각의 내용 연기법은 자비의 실천이 왜 지혜의 완성인가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태양계의 분신입니다. 이렇게 나아가 시방삼세 삼천대천세계를 바라다 보면 자비는 단순한 종교의 덕목이 아니고 실존의 필연적인 공존의 법칙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보면 요즈음 강조되고 있는 환경운동 또한 반성할 여지가 있습니다. 인간은 자연파괴로 인한 해독이 인간에게 위해하게 되자 비로소 자연을 보호하겠다고 아우성입니다.

환경이라는 말 또한 인간중심을 부르짖던 서구의 사고방식입니다. 인간중심이란 개념이 바로 인간외의 존재를 평등하게 보지않는 어휘이며 환경이란 말 또한 인간중심의 사고에서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경전에서는 인간이란 개념보다 육취(六趣:지옥아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 사생(四生:胎卵濕化)이란 말로 중생의 범주를 평등하게 다룹니다.

인간을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게 될 때는 오온(五蘊)의 취합을 강조함으로 해서 오히려 불완전한 실존의 상황을 깨닫게 합니다. 나아가 본래성불(本來成佛)을 천명함에 있어서는 일체중생개유불성(一切衆生皆有佛性)이라 하여 생명의 본질적 자각을 인간만의 것으로 자만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얼마나 대자대비한 부처님의 중생 사랑입니까!

우리도 부처님의 무연자비를 생존의 법칙으로 삼읍시다.

환경오염이 우리의 먹을 물과 음식을 더럽히기 때문에 보호하는 것이어서는 안됩니다. 동체대비의 자각으로 유정과 무정을 차별없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보리심을 발하여 원력을 세우고 삼학을 수습하여 원행을 실행하는 무연자비의 불제자라 할 수 있습니다.

자연은 아끼고 보호하면 그 상처는 아낀만큼 정직하게 회복됩니다. 그러나 권세와 명예 그리고 아집은 욕망의 수위가 높아 돌아오기가 쉽지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오염시키고 번뇌를 전염시키는 사회환경의 오염은 참으로 우려할만한 일입니다.

우리 종교인들이 해야할 일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욕망의 중독과 전염을 정화시키는 일입니다. 우리 불교는 오랜 수행의 전통과 민심교화의 역사를 간직해왔습니다. 수행의 공덕과 교화의 원력으로 민족정신사를 장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부처님 가르침과는 다르게 뒤바뀌어 있습니다. 꼬리를 무는 대형사고, 무작위 인명살상, 과(過)소비, 그에 따른 상대적 빈곤과 사회적 불안등 우리는 요즘 국민과 국토가 상처받는 총체적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총체적 위기란 결국 절제하지 못하고 충돌하는 욕망의 집단적 포화상태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마구 쏟아낸 우리들의 거친 욕망이 되돌아 와서 그 원인을 묻는 뼈저린 인과상응(因果相應)의 현실입니다. 일체 생명체에 대한 존엄함의 자각이 배제된 무지한 인간의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은 근원적으로 욕망의 범주에 속합니다.

일상의 삶을 시작하는 일로부터 기업을 경영하고 정책을 입안하는등 모든 생각과 행위의 근본은 일체생명이 존엄하다는 자각에 기초해서 이뤄져야 합니다.

존엄에의 자각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생사윤회하는 중생의 생존이 본질적으로 개체적 이기심과 욕망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며, 나아가 현대산업사회 또한 그러한 개인적 욕구의 성취를 기초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본질적으로 욕망이 기초한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문명이 발전한 만큼 그 밑으로 감춰졌던 잘못된 과정과 욕망의 결과 또한 거대한 중량으로 우리를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은 누구나 몇 개의 카드나 패스포드를 갖고 다닙니다. 이제 온 국민이 필수로 지녀야 할 패스포드가 있습니다. 바로 일체생명이 존엄하다는 자각입니다.

존엄에의 자각을 기초로 반드시 실현해야 할 다음의 과제는 정신의 청정영역(淸淨領域)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향유하고자 하는 맑은 환경은 인간의 청정한 의식과 비례합니다. 즉 인간 마음의 청정이 환경의 청정을 결과하기 때문입니다.

경전에도 일심(一心)이 청정하면 일체가 청정하게 되고 국토 또한 청정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인간을 위협하는 현상계의 더러움은 근원적으로 그것을 싫어하는 인간 자신의 욕망이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무절제한 욕망은 정화하는 정신의 청정영역이 넓게 분포해 있으면 거친 생존은 반조(返照)와 참회의 의례를 거쳐 존엄하고 순수한 존재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 "환경보호는 인간중심의 외침
> 동체대비를 생존법칙 삼아
> 자연을 아끼고 보호하면
> 그 상처는 정직하게 회복됩니다"

불교에 있어 개종(改宗)은 종교를 바꾸는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개종이란 근본을 바꾼다는 말이니, 불교에 있어 개종은 중생을 버리는 일입니다. 보리심과 무연자비(無緣慈悲)를 망각할 때 불제자는 개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본을 잃는 것은 진리를 등지는 일이요 보리심을 끊는 일이니 중생이 광명을 잃는 일입니다.

중생이 광명을 잃은 세상에 개인의 해탈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해탈의 몸은 대신(大身)이어서 모든 중생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무연자비만이 해탈의 길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존재함으로 인하여 저것이 있게 되며 저것이 없으므로 인하여 이것이 존재하지 않게된다. (此有故彼有 彼無故此無)

이것이 일어나므로 해서 저것이 일어나게 되고 저것이 멸하므로 해서 이것이 멸하게 된다. (此起故彼起 彼滅故此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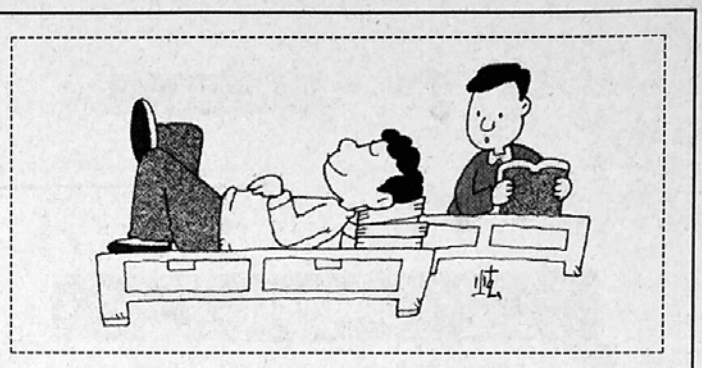
모든 존재와 현상은 상의상존 불가분의 관계속에 놓여져 있다는 연기의 법칙은 진보한 오늘날의 인류종교 사상사에서도 보편적이면서 탁월한 세계관으로 조망받고 있습니다.

우리 불자들은 신심의 기초가 되는 연기의 법칙을 확고한 세계관으로 이해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일심은 시방세계와 삼세로 통해 있습니다. 법신의 체에서 바라보면 이웃은 나의 소중한 부분이며 나 또한 이웃의 한 부분입니다. 인간은 상의상존하는 자연의 분신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인간만이 자기의 욕망으로 자기의 분신인 자연을 상해하고 그 아픔을 되돌려 받습니다.

그러나 〈화엄경〉에서도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초목을 선별하여 비를 내리지 아니하나니 초목을 적셔준다는 마음마저도 내지 않는다 하였으니 자연의 대용을 부처님의 무연자비에 비유하기도 한 것입니다.

행성은 지구의 분신이며, 은하계는 또한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45

양 형 진

諸法無我 諸行無常

우주만물 고정된 실체없이 항상 변화
'나의 존재' 해답 오직 연기법만이 제시

지난 번에는 생명체에 대한 상의상대의 연기를 주로 살펴 보았다. 생명체란 어디까지가 생명체인지 그 공간적 경계도 확실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자성을 가지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끝없는 인연의 복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어서 오로지 연기의 산물일 뿐이라고 하였다.

이제 그 생명체를 하나의 단위로 생각하여 보자. 쉬운 예로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도대체 '나'라는 존재는 무엇이며, 어떻게 정의될 수 있는가. 우선 사회적인 면을 살펴보자. '나'는 작게는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아내에게는 남편이요, 혹은 남편에게는 아내이다. 또한 어버이에게는 자식이요, 자식에게는 어버이이다.

사회에서는 직장 뿐만 아니라 각종 단체에 속해 있으면서, 저마다 자기가 맡은 위치와 역할이 있다. 크게는 한 나라의 국민이기도 하고, 인류라는 종족의 구성원이기도 하다. 그 모두가 관계일 뿐이다. 내 몸을 이루는 것을 살펴보아도 마찬가지이다. 태어난 이후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는 수많은 음식을 먹으면서 내 몸을 만들어 왔다. 어버이에게서 몸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것도 좀 더 따지고 보면 끝을 알 수 없는 무한한 인연의 고리에 연결되어 있을 뿐이다.

그 어떤 면을 살펴 보아도 '나'라는 존재를 확실하게 다른 존재와 구분하여 정의해 줄 수 있는 어떤 요소를 찾아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직 다른 모든 요소와의 관계로서만 존재할 뿐이며, 그런 요소가 변하게 되면 '나' 역시 변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불변하는 고정된 실체를 나에게서 찾아내는 일은 불가능하다.

생명체가 아닌 다른 사물도 마찬가지이다.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물체도 영원 불변의 고정된 실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다.

가령 눈앞에 놓여 있는 책상의 경우, 그 쓰임새가 책을 놓고 공부하는 것으로 만들어졌다고 평범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쓰는 사람에 따라서는 드러누워 잠자는 것으로 쓸 수도 있고 단순히 물건을 쌓아 두는 것으로 쓸 수도 있다. 이처럼 모든 물체는 생명체에서와 마찬가지로 고정된 불변의 실체를 가지고 있지않다.

이는 우리 주변의 물체 뿐이 아니다. 밤하늘을 수놓는 우주의 모든 천체들도 예외없이 자신의 몸을 끊임없이 변화시켜 가고 있다.

가령 항성의 경우에는 외계로 에너지를 내 보내면서 자신을 구성하고 있는 수소를 헬륨으로 바꾸어 간다. 또한 수소로 이루어진 희미한 성간 물질이 모여 별을 이루기도 하고 별이 생명이 다하여 우주 공간으로 흩어지기도 한다.

그렇다면 원자는 고정된 실체라고 볼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원자핵을 이루고 있는 양성자나 중성자는 다시 수없이 많은 소립자로 이루어져 있고, 이들 소립자들은 서로 간의 관련 위에서 끊임없이 생멸하면서 존재한다. 이들 소립자 간의 관계는 고정된 실체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원인이 되는 역동적인 인과 관계를 보여 준다.

우리의 세계는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소립자들이 모여 양성자나 중성자를 이루고, 그들이 모여 원자를 이룬다. 원자가 모여 분자를 이루고, 그 분자들이 모여 생명체를 포함한 갖가지 물체를 이룬다.

그런 것들이 모여 천체를 이루고 천체가 모여 우리의 우주가 된다. 이렇듯 여러 단계가 있고, 각 단계마다 실로 다양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어느 것 하나 불변하는 고정된 자성(自性)을 가지고 있지 않다.

여기에는 단 하나의 예외도 없으므로 부처님은 이를 제법무아(諸法無我)라고 하셨다. 범어로 Anatman인 무아는 곧 불멸하는 실체인 atman과 같은 것은 없다는 가르침이다.

이렇듯 현상에 드러나는 모든 것이 무아이니 제행(諸行)이 무상(無常)일 수 밖에 없다. 여기서 제법과 제행이란 현상으로 드러나는 모든 사물을 일컫는 말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제법이 우주만물을 공간상으로 파악한 것이라면 제행은 이를 시간상으로 파악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일체 만유는 공간적으로 무아요, 시간적으로 무상이니, 이는 부처님이 깨달으신 연기법에 한 치의 오차도 없음을 알게 한다.

〈고려대 교수 · 물리학과〉

아주 소중한 비밀을 그대에게 전하니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라!

- 벼락처럼 단번에 자르는 지혜의 완성 -

2천 5백년 전 붓다가 돌렸던 진리의 수레바퀴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

금강경

오쇼 라즈니쉬 강의 / 손민규 옮김

〈금강경〉은 다이아몬드다. 세상의 모든 책 중에서 가장 소중한 보배다!
'그대안에 잠들어 있는 붓다'를 흔들어 깨우는 인생의 큰 스승
오쇼 라즈니쉬! 그만의 독특한 깨달음의 언어와 강의법, 탁월한 삶의 인식으로 '우리의 내면에 잠들어 있는 붓다'를 흔들어 깨운다.
어떠한 집착도 번민도 없는 무상도의 세계, 구름 너머 저멀리, 깨달음의 밭으로 인도하려는 그의 노력이 우리에게 시공을 초월한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한다.
삶에 찌든 우리에게 생물과도 같은 활력과 생기를 부여하는 유익한 인생의 지침서!
신국판 · 432면 · 값 7,000원

〈법구경〉은 나를 완전히 발가벗겼다!
나는 허상의 옷을 모두 벗어던지고 그를 받아들였다!



값진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들! 그러나 그 방법을 몰라 애태우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 깨달음의 스승 라즈니쉬가 〈법구경〉 강의를 시작한다.
오쇼 라즈니쉬! 그는 잠초가 무성한 법구경이라는 밭을 완전히 갈아 엎는다. 그리고 그 위에 다시 깨달음의 씨앗을 뿌린다. 우리는 그의 법구경 강의를 통해 고타마 붓다의 시대로 돌아간다. 스승의 입을 통해 흘러나오는 깨달음의 언어, 방금 건져올린 물고기처럼 생동감 넘치는 삶의 지혜, 그 무한정의 감동이 우리를 압도한다.

법구경 (上)(下)

오쇼 라즈니쉬 강의 / 손민규 옮김
전2권 / 각권 값 6,500원

"마음을 변형시키고 초월시키는
모든 길이 여기에 다 들어있다!"

●112 가지 명상비법 무삭제 완역공개
인생을 무덤덤하게 살 것인가? 황홀하게 살 것인가?
목마른 영혼만이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태어났는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라는 고민이 없이 삶에의 무지와 무관심, 무감각에 빠져 버린 메마른 의식과 안일한 삶의 태도에서 이젠 깨어나십시오!
인도 5000년의 지혜 '비그아나 바이라바 탄트라'
국내 출판 사상 최초 완역본!



탄트라 비전

오쇼 라즈니쉬 강의 / 이연화 옮김
전4권 / 각권 값 6,500원



삶을 논하는 영혼의 성자, 깨달음의 스승

마조, 조주, 임제를 아십니까?

이 존재들을 모른다면 지성인이라고 자부하지 마십시오. 인간 정신의 가장 차원 높은 지적 유희가 바로 선(禪)입니다.
이 존재들을 만남으로써 비로소 당신은 초범입성(超凡入聖)의 세계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마조가 당신을 만난다면 그 즉시 당신의 머리를 베어버릴 것이고,
조주는 그 남은 몸뚱어리를 부처의 음으로 조각할 것이며,
임제는 부처의 머리를 가져다 그 몸에 붙여줄 것이다.

마 MATZU 조
조 JOSHU 주
임 RINZAI 제

오쇼 라즈니쉬 강의 / 손민규 옮김
신국판 / 각권 값 5,000원

태일출판사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4가 36 대표전화 927-2831 팩스 924-3236

고은 불교 대하소설

수미산

51

도피안사

두 사람은 처음부터 서열이 정해졌는지 모른다. 항상 수월이 먼저였고 과현이 그런 수월을 금간 그릇을 때우듯이 섬기는 것이었다.

어느 때는 그런 서열이 수직(垂直)의 관계로 되어 상하의 차별로 나타나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고대인도의 세존은 그의 수많은 제자들을 하나같이 "착한 벗이여" "벗이여"라고 불렀다. 그는 그의 깨달음으로 세상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깨달음과 미혹 사이를 함께 하는 수평(水平)의 동행자로 여겼다.

거기에는 어떤 수직적인 주종(主從)도 상전과 노복도 심지어 사제(師弟)의 규범도 다 벗어난 진리에의 벗과 벗이 있을 따름이었다. 실로 이 세상에는 더이상 아름다운 것이 없도록 세존과 그의 제자들 사이의 마음은 공등하게 이어져 간 것이다.

그것이 중국으로 넘어온 불교에 중국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의 강다짐같은 사회구성의 윤리가 스며들어 스승과 제자 사이의 법통을 전하는 일에 지나치도록 큰 의미를 부여하게 된 것인지 모른다.

하지만 그런 현상에도 불구하고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때려죽이고 스승을 만나면 스승을 죽이고 어버이를 만나면 어버이도 죽여라!'라는 선적(禪的)인 명제 아래 실로 피를 뿜어내는 험국도 결처졌다.

불교란 불타의 가르침이나 법이 아니라 그 가르침이나 법까지도 다 불태워 없애야 하는 구경에 있다. 아니 그 구경조차 없어진 경지 거기에 불교 라는 것이 죽고죽어 살아나는 것인지 모른다.

하지만 이런 경계와는 동떨어진 조선 산야를 떠돌고 있는 천민(賤民)으로서의 승려야 그들끼리의 묵새김질 밖에는 어떤 과격조차도 함부로 내보일 처지가 못되었다.

중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백정이나 다를 바 없고 갓바치나 다를 바 없었다. 그래서 조선 주자학체제에서의 7천(七賤)에서 불교승려가 빠질 까닭이 없었다.

그것은 오랜 궁증의 내불(內佛)신앙과는 다른 가혹한 현실로 언제 고쳐질 줄 모르는 긴 세월의 누대를 이룬 것이다.

이런 세상에도 길을 나서는 사람이 부딪칠 때우 드물었다.

그러므로 그는 그때문에도 수월에게 의지하기를 마다하지 않았다. 아니 수월이야말로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이게하는 어떤 힘이 들어있었던 것이다.

"나에게는 두 칼이 있지. 하나는 중지에 몰아넣어 공부하는 놈을 다그치는 살인도(殺人刀)가 그것이고 하나는 공부하는 놈을 자유롭게 해서 제대로 터득하게 하는 활인검(活人劍)이 그것이지… 과현스님은 어느 것을 가지고 싶지"

이런 때 과현의 입은 실로 꿰맨 것 같았다.

"아이고! 이 화상(和尙)아. 두 칼 다 녹슬어서 쓸모가 없다고 됫짜를 한번 놓을 줄 몰라?"

이런 통명스러운 수월의 말을 들어야 하였다.

아무튼 그들은 조선중부의 산중 깊이 박혀있는 도피안사(到彼岸寺)에 이르러서야 몸의 고단함을 부려놓을 수 있었다. 그곳은 승려대신 곰보처사가 지키고 있었다.

"주지화상은 출타하셨습니까?"

"주지요? 주지야 내가 맡고 있는 셈입니다. 주지에다가 지전(持殿)에다가 이렇게 객승을 맞는 지객(知客)에다가… 시장하시지요. 곧 잡곡밥이나마 내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공양주(供養主)까지 겸하고 있지요. 하."

말이 척척 나오는 것으로 보아 큰지막한 절간에서 지낸 적이 있는 사람 같았다. 이곳에서 심방협곡을 넘으면 그곳이 바로 금강산으로 접어드는데가 아닌가.

"이 도량에 계신지는 오래 되시는지요?"

"내가 이 철불(鐵佛) 모신 곳에 오기 전에는 임진왜란 이래 아무도 살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폐허였지요. 억새와 바랭이 풀만 우거졌고 널린 기왓장 밑에서 새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랬겠습니다."

"꿈에 자꾸 이곳 부처님이 나타나서 몇 백년동안 굶어서 이제는 앉아있을 힘이 없다고 하셔서… 어서 나에게 밥 한 그릇 갖다 다오라고 하셔서… 이런 꿈이 자꾸 되풀이되어서…"

"그랬겠습니다."

공보처사는 이렇게 과현의 정중한 말씨에 대꾸하고 있다가 그 옆에서 입을 꾹 다물고 있는 수월을 힐끗 쳐다보았다. 마음의 한 구석이 바람을 만난 괄람개비처럼 갑자기 돌면서 한기증이 일어났다.

그가 자리를 피하였다.

"기다리시지요. 산 부처님을 위해서 곧 공양을 지어올리겠습니다."



"그러시면 참선을 하시는지요?"

"그것이야 금강산 도인들이나 하는 것 아닙니까. 나는 그저 혼자 자고 혼자 깨고 합니다. 천년빙어리이신 쇳덩어리 부처님 모시고…"

"아니 어젯밤 묵었던 도피안사가 없어지다니… 그 곰보주지는 어디로"

이 말은 이제까지 당당하던 태도와는 달리 매우 그윽하였다.

두 사람은 법당 겸 거처이기도한 허술한 방에서 멀리 서쪽 산줄기로 해가 넘어가는 그 삭막한 광경을 바라보기도 하면서 지친 다리를 이따금 주먹으로 두들겨주기도 하는 것이었다.

"눈빛 하나는 맑은 사람입니다."

과현이 이곳 곰보주지의 인상에 대해서 말하였다.

"길은 산중에서 한달만 살아도 눈알이 시뻘건 주정뱅이도 도인의 눈이 되겠지."

라고 수월이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사실인즉 과현 자신도 무육도 부근의 바다에서 배가 난파되기 전까지의 뱃사공이었을 때는 그야말로 박은 생선눈깔을 박은 듯이 몹시 눈이 흐렸던 것이다.

그러던 그가 무전과 함께 구조되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엉뚱한 수행자가 된 뒤로는 그 흐린 눈에 맑은 환창에 시꺼먼 동자가 박혀 재법 빛을 내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반찬은 거의 없다시피한 푸짐한 잡곡밥을 차려온 곰보와 함께 배를 채웠다.

밤에는 아예 불을 켜지 않았다. 워낙 초가 귀한 곳이기도 하겠지만 굳이 불을 밝히고 있을 것도 없었다.

"경전(經典)은 보시지 않습니까?"

라고 과현이 곰보에게 물었다.

"나는 아침 저녁 예불도 그저 꾸벅거릴 뿐입니다. 반야심경이라는 이름만 알지… 관자재보살 어쩌고하는 것만 알지 무어 하나 외울 줄도 모르는 땡추랍니다."

"그러시면 참선을 하시는지요?"

"참선이요? 그것이야 금강산 도인들이나 하는 것 아닙니까. 나는 그저 하루하루를 그저 이 절에서 혼자 자고 깨고 합니다. 이 천년 빙어리이신 쇳덩어리 부처님 모시고…"

수월은 어둠 속에서 입을 다물고 누워있었다. 법당 겸 거처라고 하지만 육중한 철불상 아래에서 누워있는 노릇이 여간 부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그가 슬쩍 일어나 앉았다. 권하였다. 그러자 육조(六祖)의 소식이 빨리 다가오는 것이었다. 곰보는 몇마디 말로 상종하다가 어느덧 코를 골기 시작하였다. 코 고는 소리는 박자라도 잘 맞추는 것처럼 규칙적이었다.

거기에 또 한사람의 코 고는 소리가 보태어졌다. 과현의 것이었다. 그들은 코고는 소리로 아까까지 서로 주고받던 얘기를 연장시키고 있는 셈이었다.

이렇게 하룻밤을 보낸 수월과 과현은 다음날 늦으막히 다시한번 잡곡밥을 얻어먹고 길을 나섰다.

"하룻밤 공덕으로 잘 지냈습니다."

라고 과현이 하직인사를 하였다.

"아닙니다. 내가 두 화상님의 공덕으로 심심치 않았습니다. 감사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도피안사 아래의 가파로운 비탈을 갈지자(之) 형국의 길로 내려갔다. 옻나무 잎새의 단풍이 정작 단풍나무의 그것보다 더 핏빛이었다. 그것이 아침 햇발을 받아 그 빨간 빛깔이야말로 어느 빛깔보다 시리고 아픈 것이었다.

서리는 곧 녹았다. 밤새도록 앉아있었던 수월의 몸이 누워서 코를 골았던 과현의 몸보다 더 가벼웠다. 그의 걸음이 여새꽃잎보다 마른 풀섭 위를 바쁘게 놀았다.

길이라고 해야 사람이나 짐승이 자주 다니는 곳이 아니므로 숫제 돌나무서리일 따름이었다.

"아니?"

"아니?"

"아니 저럴리가?"

이렇게 연거푸 과현이 놀라는 것이었다. 과현이 뒤를 돌아다 본 뒤의 일이었다.

"무슨 일이오?"

라고 수월도 뒤를 돌아다 보았다.

과 연 놀랄만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그들이 어제 찾아갔던 도피안사. 그들이 하룻밤 머물렀던 도피안사가 그 자리에서 없어졌던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을 맞이하고 그들에게 잡곡밥을 해주었던 곰보주지는 어떻게 되었단 말인가.

과현이 수월에게 큰 소리로 물었다.

"올라가 볼까요"라고.

수월이 한동안 멈춰 서 있다가 "그냥 갑시다"하고 걸음을 떼어 놓았다.

두사람은 그 놀라운 사실을 오랫동안 가슴 속에 담고 길을 걸었다. 포천땅에서 신었던 짚신이 밤 뒤꿈치에 닿아 걸음이 더디어졌다.

하지만 그들은 마치 어느 상당(上堂) 설법이라도 듣기 위해서 새삼 진지하게 법당에 올라가는 것 같았다. 그렇게 금강산 경내에 접어들고 있었다.

한 산줄기의 마루턱을 넘자 나그네 한 패를 만났다. 그들과 서로 한 마디씩 인사를 나눈 뒤 멀리 금강산 비로봉이 보이는 것이었다.

그들은 발바닥에 불이 났다. 수월을 뒤따르는 과현이 벅찬 숨 때문에 애를 먹었다. 줄곧 없어진 도피안사와 곰보주지에 대한 생각이 이어졌다.

그림 · 조향숙

믿음과 수행과 깨달음으로 가는 길

일타큰스님께서 펴내신 알기 쉬운 불교책!



"불보살의 가피 ! 누구나 입을 수 있습니다."

신간

신국판 / 5,000원

祈禱 기도 — 일타큰스님의 기도성취 영험담 모음집

사람의 한평생 꼭 마음먹은 대로 되는 일이란 지극히 적다. 그러나 살다보면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서라도 꼭 이루어야 할 일들이 생기게 된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기도이다. 하지만 오랜동안 절을 다닌 신도들조차도 기도가 어렵다고 말하거나 방법이 잘못되어 제대로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총 52가지의 기도성취 영험담 이야기 !!

이에 일타스님은 자신과 도반 · 선배 · 제자 · 신도들이 직접 체험한 기도성취 영험담들을 모아 이 책을 간행하였다. 총 6장 52편의 다양한 이야기로 엮어진 이 책을 읽다보면 기도를 통해 틀림없이 부처님의 가피를 입을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게 되고, 이야기 끝에 붙인 큰스님의 해설을 통하여 올바른 기도법과 함께 기도성취의 지름길을 알 수 있게 된다.

I. 나와 가족 · 제자의 기도 이야기 / II. 기도는 깨달음의 지름길
III. 업병도 불치병도 기도를 통하여 / IV. 목숨을 구한 일념의 기도
V. 생활 속의 기도와 득력(得力) / VI. 기도인을 바른 길로

일타큰스님의 윤회와 인연이야기 모음집

시작도 끝도 없는 길

"죽음 뒤의 세상, 인간은 과연 윤회하는 존재인가?"
"내가 지은 업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러한 의문에 해답을 일러주고자, 일타스님 자신과 가족 · 신도들이 체험했던 윤회와 인연이야기를 53가지로 가려 뽑아 책으로 엮었다. 매우 알기 쉽게, 이야기로 들려주듯이 엮은 이 책을 읽다보면 자연스럽게, 누구나 윤회와 인과응보에 대한 궁금증을 풀고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게 될 것이다.

I. 큰스님 주변 이야기 / II. 유명인이 실증한 윤회와 인과
III. 민간에 전해지는 인과윤회담 / IV. 축생으로 태어나기까지
V. 부처님도 순응한 전생업보 / (총 53가지 이야기 수록)

• 49재 법보시용으로 좋습니다.

신국판 / 4,500원

불자들의 입문서 초발심자경문 세권의 해설서, 드디어 완간!

보조국사의 《초심》 강설집
시작하는 마음
초보자를 위한 불교입문의 지침서 '보조국사의 「초심」'을 일타큰스님의 자상한 법문과 많은 이야기로 풀어 읽은 책으로, 누구나 어렵지 않게 깊고 넓은 불교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값 5,000원

원효대사의 《발심수행장》 강설집
영원으로 향하는 마음
영원과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영원과 행복의 문을 여는 비결은? 원효대사의 「발심수행장」을 일타큰스님 특유의 구수한 문체로 알기 쉽게 해설한 이 책은 영원한 삶의 비결과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하게 해줄 것이다. 값 3,000원

아운비구의 《자경문》 강설집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아운비구의 「자경문」을 일타스님이 재밌는 이야기를 곁들여 조목조목 해설했다. 불자의 신심과 원력을 북돋우고 지혜를 길러주는 선행의 나침반이 될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부디 돌아보고 또 명심하여 바른자리 부처를 회복하고 행복이 담뿍 담긴 새로운 삶을 영위하기 바란다. 값 5,000원

부처님과 역대 스님들의 가르침
범공양문
72년 초판 발행 이후 수많은 불자들에게 권해져 읽혀온 책. 불자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부처님과 역대 스님들의 가르침을 일타큰스님의 자상하고 정확한 번역으로 새롭게 중보 발간하여 다시 선보였다. 읽으면 읽을수록 더욱 깊은 맛이 우러나는 책으로 마음의 정화와 중요 모임을 안겨다 줄 것이다. 값 5,000원

일타큰스님의 육성 법문 테이프
감로법문
듣는 것만으로도 깨달음의 세계에 젖어들고 환희심이 일어나는 일타큰스님의 법문!
·큰스님 살아오신 이야기 (테이프 1 - 2)
·마음 · 마음 · 마음 (테이프 3)
·오분향을 이루는 공부 (테이프 4)
·참된 회향 (테이프 5) 5개 1세트 값 10,000원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을 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전화 : (02) 587~6612 · 3 팩스 : (02) 586~9078

비디오법회 영상포교 '새 장'

우리는 선우·불교문화원등 앞장

주부·청년·어린이 모임서 인기



◇영상물을 함께 감상, 토론하는 가운데 불자들은 신행생활의 활력과 동질성을 느낀다.

한편의 영화는 때로 우리가 현실에서 체험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감동을 줄때가 있다.

영상물을 통한 다양한 신행활동 또한 불자들의 생활에 신선한 활력과 동기를 제공하며 바람직한 신행의 모습을 제시해 준다.

최근들어 영상물을 통한 신행활동이 기존의 단순한 불교비디오 법문이나 설법청취에서 한단계 발전해 청년회 어린이법회 주부등 소모임에서 활용되면서 보다 깊고 폭넓은 신행활동의 영역을 넓혀가게 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우리는 선우 청년회의 경우 매월 네째주 토요일을 영화감상 및 비디오 법회 시간으로 활용한다. 회원들은 그 시간을 통해 서로의 다양한 의견을 대화로써 나누고 또 불자로서의 동질성과 친목을 도모해가고 있다.

우리는 선우 청년회의 김혜영법우는 "불교관련 비디오뿐만 아니라 그외 다수의 비디오를 회원들이 스스로 정해 감상하고 법회라는 고정된 형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에서 서로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며 지난 1년간의 경험을 말하기도.

영상물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새로운 소모임을 구성, 구성원 각자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신행의 바탕을 교감할 수 있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영상포교가 생활포교의 새로운 일면으로서 환영받는 요인이다.

한국불교문화원도 매월 두차례씩 비디오를 감상하는 좋은 비디오 보기 모임을 운영하고 있다. 이같은 활동을 통해 한국불교문화원은 좋은 비디오를 선정하는 등의 다각적인 활동을 해왔다.

목동법안정사 어린이법회도 비디오 상영을 주요프로램의 하나로 선택하고 있다. 많은 어린이들이 비디오상영시간을 기다리고 재미있어 한다는 이성훈 지도교사는 "하지만 부처님 일대기등 몇몇을 제외하고 사실상 어린이들을 위한 불교관련 영상물은 전무한 상태여서 건전만화나 가족드라마등을 활용, 어린이들의 사고형성을 돕고 무언의 감동과 교훈을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유도한다"고 말했다.

이와는 또 다른 형태로 여성클럽 광고 모니터회의 활동도 왕성하다. 불교자원봉사연합회의 시민대학에서 방송모니터교육을 받은 주부불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이 모임은 방송광고모니터를 통해 서로의 느낀점을 토론하며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밖에도 불교방송 불교문화센타, 길음복지관, 관음문화원등이 무료영화상영으로 간접적인 프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처럼 영상물을 통한 신행포교활동이 이뤄지고 있기는 하나 아직 타종교단체의 활동에 비하면 초보적인 수준에 불과하다는 일부의 지적이다.

타종교의 경우 전문적 역량을 갖춘 비디오 모임이 결성, 국내의 영상비디오의 수준과 인기도를 측정하는등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불교계도 영상물을 통한 신행활동을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벌여 교계뿐 아니라 사회에서 공정한 감시와 보호기능을 갖춘 단체로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은자 기자

불심·친목 다지는 대화의 장…어린이프로 전무

만 화

法句經 법구경

* 세속의 장 *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이 향 원



이런후 건강칼럼 <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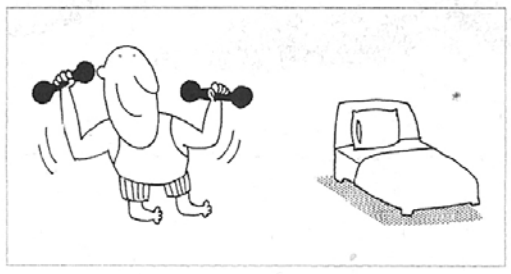
숙면 훈련

"잠 안오면 뒤척거리지 말고 일을 하라"

불면증의 상당 부분은 잠에 대한 예견되는 걱정을 심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성격이 강박적인 사람들에게 많다.

강박적인 성격은 거의 완벽한 것을 추구하고 정확하길 기대하며, 완벽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스스로를 괴롭히는 그런 성격이다. 자신이 해낼 수 있는 범위의 일이면 아주 꼼꼼하게 잘 해내지만 자신의 능력을 벗어나는 일이면 자연히 완벽하게 해내지 못할 것이다. 이럴 때 자신을 덜덜 볶게 된다. 주변을 한번 둘러 보아도 사람들이 완벽하게 처리해낼 수 있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다. 곧이곧대로 말하면 완벽함이란 있을 수가 없다. 하물며 인체의 리듬인 잠을 자신이 소망하는대로 완벽하게 잘 수가 있을까를 생각하면 금방 알 일이지만 사람들은 조금만 잠이 안와도 전전긍긍한다.

잠이 안오면 일어나서 일을 해보는 방법도 있다. 강박적인 성격의 소유자에게는 일을 하라고 권해 본다. 잠을 자다가 어느 시간에 잠이 깨어 도무지 다시 잘 수가 없으면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 몇가지 일을 해보는 것도 역설적인 방법이다. 한밤중에 할 수 있는 일들은 대개 집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다. 세탁을 하거나 청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서류같은 것을 정리해 보는 일도 좋은 것이다. 여러가지 해도 되고 안해도 그만인 그런 허드렛 일들을 한번 해보자. 대개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다시 졸리기 시작하는데 이때를 놓지지 말고 얼른 잠자리에 들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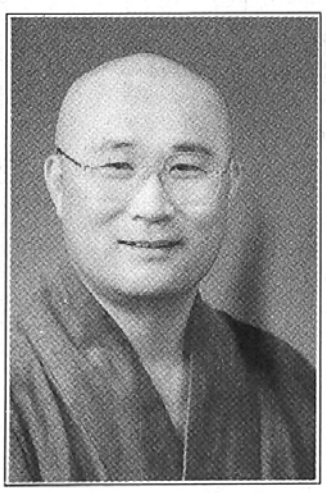
이런 행동도 역시 습관이 들어야 하기 때문에 한두번의 경험으로 원상회복이 되긴 어렵다. 계속해서 하다 보면 졸리울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런 증상이 올 때까지 해 본다. 강박적인 성격은 누가 해보라고 지시를 하면 시키는대로 대단히 잘 지킨다. 그러나 그 지킨 결과에 대해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오면 처음보다 더 큰 걱정을 안고 자신을 괴롭힐 수도 있다.

사분율에도 잠을 충분히 자면 "마음이 법에 들어 간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를 순서를 바꾸어 보면 마음이 바른 법에 들어가면 자연히 숙면을 하게 된다는 말과도 통한다. 실제로 임상에서 보면 마음이 바른 법에 든 사람은 잠의 습관이 일정하고 번잡하지 않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다. 스스로를 완벽하게 꾸미려고 하는 마음의 기제는 자신을 괴롭힐 뿐 바른 마음 가짐이 아니다.

먼저 마음 가짐을 바르게 갖는 훈련을 쌓는다면 잠의 습관은 뒤따라 자연스레 원상회복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잠못 이루는 시간에 일어나 일을 할 수만 있어도 반은 나은 것이다.

마음이 열리면 天堂도 보이지요.

시인 윤지원 스님이 산문 밖 우바이에게 보내는 산사의 편지



情이란 참으로 묘한 것이어서 오랜 세월과 더불어 많은 사연을 동반하게 됩니다.
누구나 곡진한 사연 하나 정도는 가지고 살듯이.
구름을 벗하고 산에 깃들어 사는 수행자에게도 닦아도 닦아도 지워지지 않는 情이란 것이 있지요 —본문 중에서—

산문 밖 우바이로부터 거듭되는 서신을 받고 출가 승려로서 인간적 사랑과 그리움, 연민, 고독과 고뇌, 번민, 원망, 미움, 증오, 시기, 질투, 추억, 깨달음, 현실과 영원 등을 묻고 진솔하게 답한 내용들이다. 산사의 골 깊은 운치와 서정어린 문체로 아름답고 평안한 마음을 열어주는 지혜의 보고이다. 지금 전국 서점서 절찬리 판매 중!

신국판 / 300쪽 / 값 6,000원

서울시 은평구 역촌1동 17-12
전화 : 02) 352-6406~7
팩스 : 02) 389-3262

도서출판 삼보

도서총판 운주사
전화 : 02) 720-9372~3
팩스 : 02) 723-0646

서울대 교수, 전북대 총장, 한국철학회 초대 회장을 역임했던 고형곤 박사의 역작!!

增補版

선의 세계

高亨坤 著

제1권 서양철학과 禪

제2권 한국의 禪

한국불교의 통불교적 성격, 선교일치의 전통을 밝히고 동양문화의 특색을 이룬 선불교와 하이데거의 존재론을 통해 제3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명저

신국판 양장
1권 380쪽 · 13,000원
2권 330쪽 · 12,000원

운주사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전화 720-9372-3 팩스 723-0646

선(禪)수행의 보고(寶庫)!
지관선(止觀禪)의 집대성!

摩訶止觀 大止觀坐禪法

대지관좌선법 전5권

천태대사의 〈마하지관〉 드디어 현대어로 완역

〈마하지관〉은 천태대사가 선수행의 방편을 자신의 수행 경험과 깨달음의 세계를 통해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제시해 주고 있는 책이다. 지관법(止觀法)은 석가세존이 깨달음을 얻으신 방편인 동시에 석가세존에 의해 더욱 구체화되고 풍부하게 된 수행방법이다.

天台智者 大師 述
空綠 金無得 註釋

신국판/값 각권 8,000원

운주사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전화 720-9372-3 팩스 723-0646

불교근현대사 자료집 출간

1920~69년 동아·조선·경향게재 불교기사 총망라

일간신문에 보도된 불교관계 기사를 모두 찾아 주제별로 분류, 정리한 불교근현대사 자료집이 나온다.

선우도량 한국불교현대사연구회(회장 혜남, 대표간사 법진)가 3년여의 자료수집 과정을 거쳐 4·6배판 두 권, 1천4백50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으로 펴내는 〈신문으로 보는 한국불교근현대사〉가 그것으로, 이 자료집에는 현 일간지가 창간된 1920년부터 69년까지의 동아일보 조선일보 경향신문에 게재된 불교관계 기사 및 해설 기고문 등을 망라했다.

또 수집된 자료를 '교단' '각종 행사와 단체활동' '포교당'(이상 상권) '불교일반' '불교문화재 및 사찰탐방'(하권) 등의 주제로 나눠 자료집으로서의 체계를 갖췄으며, 기사제목과 인명·용어 색인을 달았다. 수록된 기사 수는 2천8백3건에 이른다. 이 건수는 6일에 한차례 씩 불교관계 기사가 수록된 꼴이다.

연구회는 자료수집을 위해 각 신문사 자료실과 국립중앙박물관 국회도서관에 보관된 마이크로필름을 일일이 탐색하는 지난한 과정을 거쳤다.

자료집 발간은 애초 선우도량 실행선우모임에서 정화운동사 정리의 필요성에 따라 제기됐다. 정화운동사 자료수집 과정에서 연구범위를 정화운동사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한국불교 근현대사를 조명해보고, 한국불교 근현대사 속에서 정화운동을 재평가하는 방향으로 확대되었다.

자료집 발간의 실무작업을 맡아 진행해온 법진스님은 "불교가 한국 최대의 종교단체로 우리의 근현대 역사에서 나름의 역할을 담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도 치밀한 연구가 없었던 것이 현실"이라고 반성하고 "한국불교가 우리의 근현대 역사속에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떤 역할을 했는가를 밝히는 데 무엇보다 큰 의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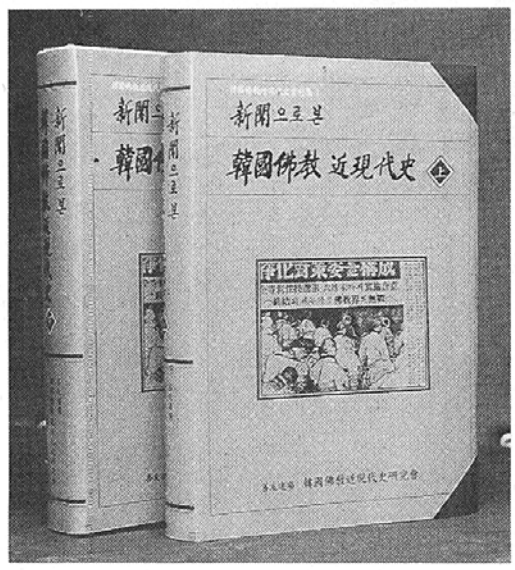
이 자료집을 통해 불교의 왜색화 과정, 국내외 불교인의 독립운동, 승려의 좌익운동 그리고 정화운동 전개과정을 신문기사 특유의 현장성을 살린 생생함으로 재구성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친일승려들의 압력 속에서도 불교가 민족종교로서의 전통을 지켜온 과정을 살필 수 있다.

그러나 일정부분 한계를 지니기도 한다. 신문자료를 모든 것이기 때문에 일부 기사의 오보나 추측기사에 대한 확인작업이 필요하다. 법진스님은 이에 대해 "기사마다 해설을 덧붙여 이용자의 이해를 돕고자 계획했으나 지면과 편집인의 여러 사정으로 싣지 못해 후일로 미루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아뭏든, 현재의 한국불교를 결정적으로 규정하는 근현대 불교사 관계 자료의 빈약함에 시달리는 불교계는 물론 현대사연구자들에게도 귀중한 자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한국근현대사에 큰 영향을 끼쳤으면서도 자료의 부족으로 불교의 역할을 소홀히 다루는 일부의 편견을 바로잡는 계기로도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회는 이 자료집 1천부를 제작, 불교단체와 불교사연구자 언론사 및 공공도서관에 무료배포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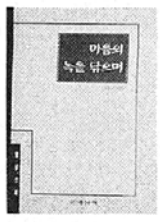
정성운 기자



'신문으로 보는 불교…' 선우도량 3년작업

교단·문화재등 2803건 주제별로 정리

새로나온 책……







▲**불교로 보는 우리역사**2(서경보 지음)=고려와 조선시대의 불교인물과 불교제도를 통해 불교가 한국인의 정신문화에 끼친 영향을 살폈다. 저자는 고려시대는 불교의 쇠미기이며, 조선시대는 고사기라고 규정하고, 오늘의 불교상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를 모색하고 있다. 〈호암출판사, 6천원〉

▲**마음의 녹을 닦으며**(장문선 엮음)=법구경 숫타니파타 선가귀감 등 경전과 선사어록 가운데서 현대생활에 밀접하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가려뽑아 재구성한 운문집. '번뇌의 나무를 자르는 도끼' '눈을 감고 마음으로' 등 4장으로 구성했다. 〈문예산책, 5천5백원〉

▲**불교정보**(이성호 엮음)=불교계 각종단과 사찰, 교육·언론기관 및 불교단체 불교관련업체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수록한 안내서. 〈다모다, 1만원〉

▲**반야심경 강술**(강성진 지음)=불멸도 후 약 900년 이후부터 1100년간 성립된 불교의 핵심ㅁ을 설한 경전인 반야심경을 요즘에 맞는 언어로 뜻을 밝혔다. 뜻풀이와 함께 전체를 통해 보살의 길이란 무애의 삶임을 강조하고 있다. 〈부다가야, 4천원〉

▲**큰법당의 아기참새**(불교아동문학회 엮음)=제13회 불교어린이 문예작품 현상문집의 동아 산문부분 최우수상을 비롯한 우수작품 1백여편을 묶은 어린이글 모음집. 〈명성출판사, 3천원〉

중론송 연구 — 김인덕 지음

'중도' 관련 논문 묶은 본격 연구서



용수의 저작〈중론송〉은 대승불교에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고, 대승불교 2대사조의 한 축인 중관학파를 형성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저술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한국불교학계에서는 그동안 이 책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서를 내놓지 못했다.

용수 〈중론송〉의 핵심은, 불교의 근본진리는 연기의 법칙성에 있으며, 이 연기의 법칙을 '공·공성' 또는 '중도'라고 밝힌 것.

김인덕교수(동국대 불교학과)의 〈중론송 연구〉는 이 분야의 본격적인 최초의 연구서로 기록된다.

'중론송의 내용 개관' '팔불선설(八不宣說)에 대한 제견해' '중론송에 밝혀지는 진리성' 등 중론송 관련 논문과 강의자료를 모아 엮었다.

부록으로 중관학파의 역사와 용수보살의 생애와 저서, 중론송에 대한 주석 및 번역을 실었다.

〈불광출판부, 1만2천원〉

숟가락은 밥맛을 모른다 — 김원각 지음

설화·고승일화 통해 바른삶 안내

화제의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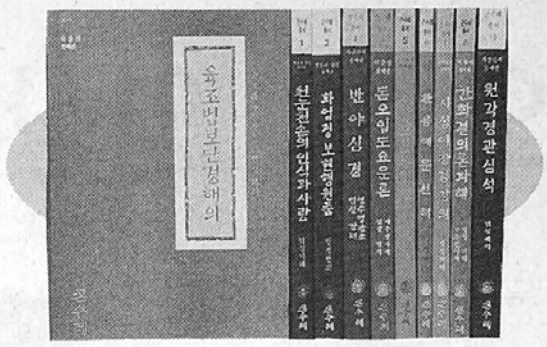
부처님 가르침의 방법은 크게 직설법과 비유법으로 나눌 수 있다. 비유법은 합리성과 논리에 갇힌 감각을 일깨우기 위한 방법이다.

〈숟가락은 밥맛을 모른다〉는 불교의 여러 경전에서 뽑아낸 150가지 우화와 설화에 간략한 주석을 붙이고, 각 이야기의 말미에는 출전을 밝힌 설화집.

부처님과 제자들, 부처님이 살았던 시대의 왕과 권력자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인도 중국 한국 일본의 고승들이 남긴 일화를 망라했다.

때로는 지난친 욕심을 부리기도 하고, 어리석은 집착에 빠지기도 하며, 노력도 하지 않고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기만 하는 우화속의 인물들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자화상이기도 하다. 그런 그들을 갖가지 비유와 행동으로 일깨워주는 부처님과 선사들의 가르침을 삶의 길잡이로 제시해준다.

〈책만드는집, 5천5백원〉





◇법성스님

법성스님 '불전역해' 10권 발간

선·교 재정립 보현행원 실천운동 제창

11·12일 출판기념회

"선(禪)은 교리체계와 다르지 않다. 물론 삶과도 다른 것이 아니다. 우리 시대에 맞는 선수행법을 생산하고 종래의 성과를 재해석해야 한다."

지난 90년 이후 선과 교(敎)와 보현행원의 하나됨을 각운동(覺運動)의 이름으로 추구한 조계종 교육원 역경위원장 법성스님(대승원 원장)이 불전역해 10권을 발간, 오는 11, 12일 출판기념회 및 대승원 도량기금 마련 전시회를 갖는다.

이번에 펴낸 10권의 불전역해는 그동안 13회에 걸친 선수련법회와 근본불교연구소의 경전공부모임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큰수레총서'로 묶어 펴냈다(도서출판 큰수레).

'믿음과 실천' '사상신서' '경전읽기' '대중선' 등의 분야로 나눠 〈천눈천손의 인식과 사랑〉〈화엄경 보현행원품〉〈반야심경현수법장소〉〈돈오입도요문론〉〈지장보살본원경〉〈관음예문선해〉〈사십이장경강의〉〈간화결의론과해〉〈육조법보단경해의〉〈원각경관심석〉 등 10권이다. 이 목록은 불교대중들에게 널리 독송되거나 선원에서 문제의 저작으로 꼽히는 것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한 것이다.

법성스님의 이번 작업은 단순한 역해 이상의 한국불교사상사에 큰 획을 긋는 것으로 평가된다. 교없는 선(暗證禪)과 선없는 교(狂慧)의 양자의 부정을 통한 행, 즉 선을 근본종지로 한 보현행원을 추구하는 것으로 모아진다.

법성스님은 "선을 근본종지로 선과 교, 선과 보현행의 하나됨을 표방하는 각운동의 일환"이며 "미래사회 급격한 문명변화에 적응하고 대중에 이익을 주는 불교가 되기 위한 선·교의 재정립, 즉 불교사상운동의 제창"이라고 밝힌다.

이같은 주장의 사상적 역사적 맥락은 선을 교와 사회적 실천으로 통합한 용성스님과 중국초기선의 남악혜사선사의 선풍에 닿아 있으며, 〈육조법보단경해의〉와 〈돈오 입도요문론〉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한국불교 선종의 소의어록인 〈단경〉을 그 이전의 〈마하지관〉과 이후의 〈선문염송〉 등과 연결지어 통시적으로 풀이하는 데서 나타난다. 즉 간화선이 가장 발전된 수행법이지만, 간화선을 탄생시킨 토대의 종합적 검토가 있어야만 올바른 간화선을 정립할 수 있다는 것. 여기에는 한국의 전통수행법에서 제외된 위빠사나 등 원시불교의 수행법이 포함된다.

법성스님의 이같은 작업은 26년의 출가기간이 극과 극을 달린 시기였다고 스스로 평가하듯 개인적 삶의 행적과 무관치 않다. 출가 이후 16년간의 화두참구, 80년 이후 사회운동의 핵심에 선 것이 그것이다.

법성스님은 이후 〈전등록〉〈마하지관〉을 원전에 대한 개관적인 우리말 옮김은 물론 주와 해제에 충실한 번역서로 출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마하지관〉은 간화선과 위빠사나 두 수행법의 원류를 찾는, 한국불교 선수행의 재검토 작업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예시이론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기도	일 타	효 림
2	소설 등신불	석 용 산	문학수첩
3	티벳사자의 서	파드마삼바바	정신세계사
4	방한암 선사	김 호 성	민 족 사
5	붓다의 가르침	이 기 영	불교진흥원
6	달마의 제자들	고 우 영	불 지 사
7	영원한 자유의 길	성 철	장 경 각
8	윤회의 법칙	김 성 규	큰 산
9	존재론·시간론	사카구치 마쓰요시	불교시대사
10	사찰의 벽화이야기	권 영 한	전원문화사

구입문의:(02)737-0695

해인승가대 동문회 회지 '구광' 창간

해인승가대학 동문회(회장 보광)는 최근 동문회지 '구광' 창간호를 펴냈다.

해인승가대 개원 40주년 기념 창간호에는 조계종 전계대화상 일타스님의 창간법어를 비롯 '나의 강원시절'(월운 철환 법조)과 종단문제(일면, 시현) 불교언론(혜총) 불교교육(수진)에 과한 동문들의 시론을 실었다.

공산 종주국 소련 최초 방문

"禪이란 외적사회를 개혁하자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마음에 혁명을 이루는 길"

숭산 스님 ⑩

모든 이들의 안락을 위하여 ^10v

지구촌 전법이야기

1986년 11월 19일.

행원스님은 홀홀단신으로 모스크바행 비행기에 올랐다. 폴란드의 불자 50여명이 나와 따뜻하게 전송을 했다. 일주일 전까지만해도 비자가 발급되지 않아 소련행이 좌초되는 듯 했었는데 폴란드의 제자들이 이리저리 바쁘게 움직여 준 덕분에 소련행 비행기에 오를 수 있게 됐다.

행원스님은 이미 폴란드뿐 아니라 노르웨이, 프랑스, 유고슬라비아, 이태리등 북유럽의 여러 나라들에 대한 여행길의 가장 정점에 올라 있었다. 폴란드의 혁명도시 그단스크를 찾았을 때의 기억도 매우 진하게 남아 있었다. 스님은 그단스크의 발레크법사 집에서 묵었다. 발레크는 그단스크 선원의 책임자였다. 선원은 50평 가량의 아파트였고 매일 찾아오는 불자들에게 참선을 지도했다.

그단스크에는 법사 자격을 받은 이가 15명이나 됐고 2백50여명이 5계를 받았다. 이곳의 신도는 모두 7백여명이라고 발레크는 자랑스레 설명했다. 행원스님이 소련행 비행기에 오르기 닷새 전, 그러니까 11월 14일 오후 5시30분에 스님은 그단스크 대학강당에서 대법회를 가졌다. 처음은 아니었다. 3년 전에도 이곳에서 법회를 가졌던 일이 있었다. 그날 스님은 1천6백명의 대중들을 향해 인권의 중요성을 설했었다.

폴란드의 수도 월서. 제3의 도시 크라가우 등지를 바쁘게 다녔던 며칠의 일정에 피곤했다. 그러나 스님은 피곤할 수가 없었다. 처음으로 찾아가는 소련, 모스크바라는 도시,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혁명의 깃발을 연상시키는 도시를 향해 하늘을 날고 있는 입장에서 스님은 도저히 피곤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비행기는 1백50여명이 앉을 수 있으나 정작 승객은 20명도 채 못되었다. 폴란드의 발레크 법사가 이미 기차로 모스크바를 향해 갔으니 스님이 도착하면 공항에서 맞을 계획이었다. 6년전에 폴란드로 와서 스님에게 계를 받은 불자 두 사람도 모스크바 비행장으로 나온다고 했다. 저으기 안심이 되는 일이었다.

모스크바 공항에서의 통관 절차와 검문검색은 아주 까탈스러웠다. 웬만큼 성질이 급하거나 모난 사람이라면 "에이 쌍"하고 돌아 가버릴 정도로 세심했다. 더구나 스님복장에 한국인이란 것이 스님을 더욱 힘들게 했다. 물고 또 물고 돈에 대한 관심은 왜그리 대단하고 책을 찾아 꼬치꼬치 내용을 물어보는 동안의 힘겨움도 스님으로서는 힘겨움이 아니게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

이렁저렁 세관을 다 거쳐 공항을 빠져 나올 수있었다. 해방감이 느껴졌으나 이내 그것은 긴장감의 연속임을 깨달아야 했다. 폴란드에서 먼저 출발한 발레크법사가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이국에서 홀로서 있다는 고독감과 긴장감이 온 몸을 오그라뜨리고 있었다. 말도 통하지 않고 지리도 모르는데 어디로 가야 하나. 막막할 뿐이었다.

"스님, 선사님."

귀부인 한명이 스님께 다가 왔고 이내 그녀는 6년전 스님께 계를 받은 마이로키여사임을 알게 됐다. 지네온에서 스님은 "진짜 이곳이 모스크바구나" 하고 새삼 놀랐다.

미국의 2~3류 호텔 수준일뿐인 벨그라도 호텔에서의 첫날. 스님이 묵는 23층 18호실로 뜻밖의 손님이 찾아 왔다. 트루니릿는 청년이 친구들과 찾아와 "우리는 요가를 합니다. 선에 대한 책도 많이 읽었지요"라며 인사를 했던 것이다. 스님은 그들과 선과 요가의 차이점 티베트불교와 선불교의 차이, 장단점등을 두루두루 설명했다.

그 낯선 땅의 어색한 호텔방에서도 이국의 청년을 위해 불교를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스님에게 큰 기쁨이었다. 공산국가의 핵심도시에서 자칫 우울해질 수도 있었을 것이다. 소련이라는 거대한 나라의 과거와 장래를 생각하며 인간 세상의 흥망성쇠를 느끼며 잠을 설쳤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스님은 소련의 청년들과 불교를 얘기하며 첫 밤의 고단함을 달랬다. 크레믈린 광장, 레닌 스타디움 박물관과 문화회관, 지하철등지를 관광했다. 뒤늦게 도착한 마레크 법사의 세심한 설명으로 그 도시의 곳곳을 알게 됐다.

20일에는 제코부스키 정신문화협회회장의 초청을 받아 13명의 협회 회원들과 저녁을 먹고, 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소련의 지성들도 선에 대한 스님의 얘기에 매우 호감을 가졌다.



◇86년 11월 소련을 방문한 행원스님이 현지의 수계제자들과 모스크바 문화회관앞에서 기념촬영을 했다.

21일에는 마이크로키 부인의 집에서도 15명의 불자들과 함께 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전날의 지성인들이나 그날밤의 불자들에게 스님은 무엇보다 "선이란 외적사회를 개혁하자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마음의 혁명을 이루고자 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3일간의 모스크바 일정은 매우 빠르게 지나갔다. 공항에서 그곳의 불자들과 식사를 하고 불란서 항공기에 올랐다.

이제 스님은 파리로 가서 수계식을 주관하고 유고슬라비아, 이태리 등에서 선을 지도하고 12월 3일에 미국으로 돌아갈 참이었다.

파리로 향해 가는 배행기에서 스님은 절절히 생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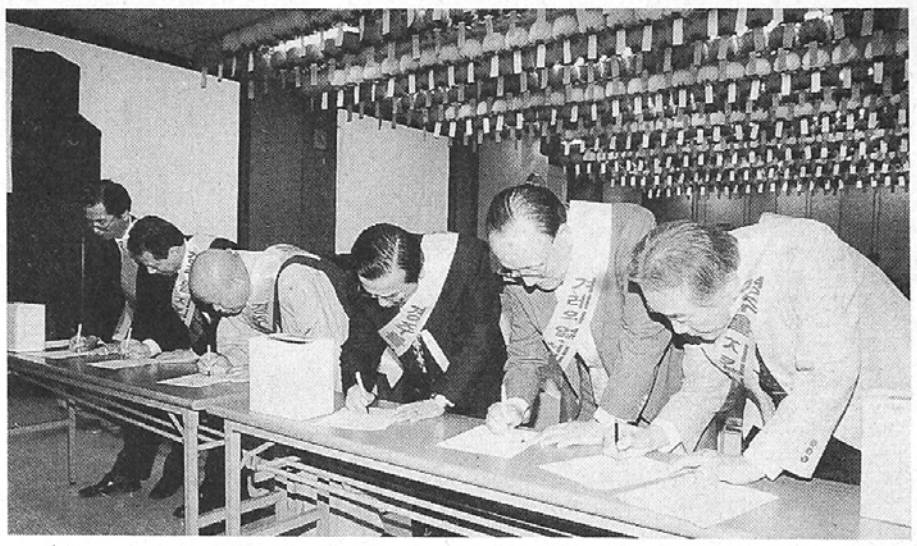
"웃음이 없는 나라, 자비와 사랑이 메마른 나라, 서로 믿지 못하고 감시하는 나라, 봉사와 보살행이라고는 꿈에도 보지 못하는 나라, 어찌 인간 세계라 할 수 있겠는가. 언제 그들이 러시안의 호탕하고 인정많은 대륙인으로 돌아와 참다운 자유와 평등과 행복을 누릴 것인가. 하루빨리 그 땅에 평화가 깃들길 제불보살님께 축원하나이다…."

임연태 기자

특집－古都 경주를 지키자

고속철 제 3 노선 부상 '새국면'

○… 현대불교신문사는 고속철도 경주통과 백지화운동에 …○
○… 적극동참, 특별취재반을 구성 매주 추진운동현황을 심 …○
○… 층보도하고 서명 동참자 내역을 게재한다. 〈편집자 주〉 …○



◇ '고속철도 경주통과 백지화운동본부'는 지난달 18일 발대식과 동시에 1백만명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이날 이기영 추진위원장, 서돈각 진홍원이사장, 김철회 태고종신도회장, btn사장 태웅스님(오른쪽 부터) 등이 서명에 동참했다.

경실련·동대교수 15km 우회안 제시

건교부 "공사비 많고 애로구간" 난색

성보문화재 훼손 우려로 논란을 빚고 있는 고속철도 경주노선이 건천－화천 방면으로 우회하는 제3의 노선이 제기되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지도참조〉

지난 2일 경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개최한 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은 고속철도의 경주통과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3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건천－화천 우회노선 건설에 의견을 같이 했다.

이에앞서 동국대학교 교수불자회(회장 장충식교수)는 지난달 10일 고속철도경주통과에 대한 견해를 통해 "공정의 차질과 예산손실 등이 시내통과 노선 강행의 구실이 될수 없다"며 "잘못이 밝혀졌다면 주저함 없이 설계를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동국대교수들은 "현 상황에서 최선의 방안은 건천－화천방면으로 우회하는 것으로 이 노선은 문화재보호는 물론 미래 경주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고속철도 경주노선 제3안은 고속철도 경주통과백지화 운동본부, 경주를 사랑하는 시민 연대모임 등 시민단체들이 요구하는 '경주남산과 15km 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주장과 일치해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고속철도건설 주무부서인 건교부는 "건천－화천노선은 난공사지역으로 엄청난 공비가 추가로 소요되고 공정이 길어져 전구간 건설에 차질을 빚는다"며 맞서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고속철도 경주통과 백지화 운동본부가 추진중인 1백만 서명운동은 불교계는 물론 일반인의 동참이 줄을 이어 범국민운동차원으로 확산되고 있다.

1백22개 참가단체(산하단체 포함 6백여개) 별로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는 고속전철 경주통과 백지화운동본부는 지난 4일 도봉산과 관악산 등산로 입구에서 등산객과 사찰 참배객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았다.

또한 공해추방운동불교인모임도 4일 종로5가 마로니에 광장에서 전국민에게 고속철도 경주통과 백지화 서명운동 동참을 유도하기로 하고 대대적인 서명운동을 펼쳤다.

이준엽 기자

경주 경실련 공청회 요지

'보존' '개발' 싸고 이견 팽팽

정부 '제3의 수정안' 검토시사 수확

고속철도 경주노선과 관련한 공청회가 열려 건교부안인 도심통과노선(계획노선)과 문체부안인 건천우회노선(기본노선)간에 열띤 공방이 벌어졌으며, 경실련이 주장하는 수정된 건천우회노선(제3의 수정노선)이 새롭게 제기됐다.

경주경실련 주최로 지난 2일 경주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공청회에는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8인의 토론자와 시민 2백여명이 참석, 경주노선의 향방에 대한 다양한 주장을 펼쳤다.

이날 강태호교수(동국대)는 우회노선이 남산을 파괴할 뿐 아니라 최소한 2.4Km 이상의 직선이 필요한 고속철의 특성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굴곡이 심하다는 점을 들어 건천에서 화천으로 통과하는 수정된 우회노선을 주장해서 주목을 받았다.

강교수는 또 자연경관의 파괴와 공사비 과다 등을 들어 도심통과노선을 반대하면서 "북녘들역은 마치 트로이의 목마처럼 교통혼란과 무질서한 도심개발을 야기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대해 신종서 고속철도공단건설본부장은 이조리역으로 역사를 옮기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우회노선으로 변경할 경우 3년의 공기연장과 3조원의 금전손실을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선복교수(서울대 고고미술사학)는 "도심통과노선은 문화재 밀집지역을 통과하는 관계로 문화재 발굴기간이 소요돼 공기가 오히려 길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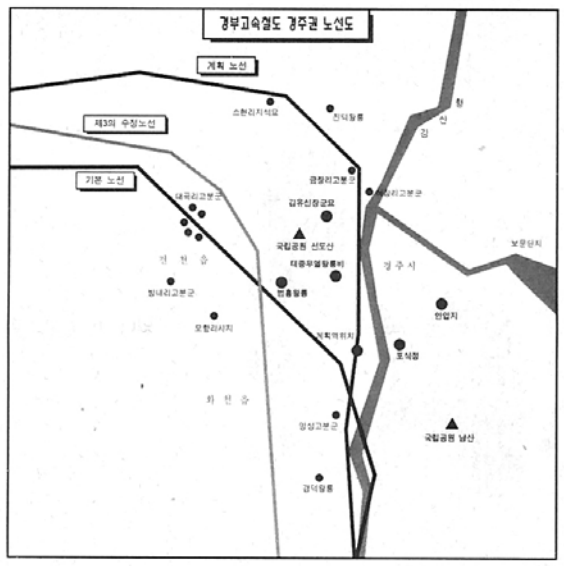
조명래교수(단국대 지역개발학)는 "문화재는 경제적 가치로는 따질 수 없는 시간적 가치가 지대하다"며 문화재 파괴를 줄일 수 있고 건천지역 부도심 개발효과가 큰 우회노선을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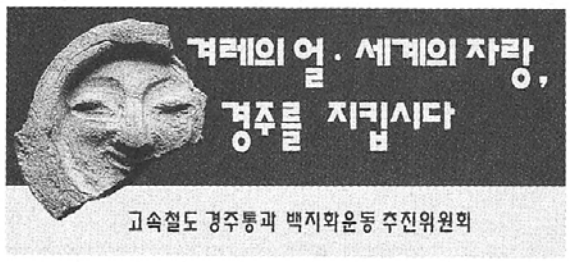
김성수 경주시의원, 박순걸 경주시 문화관광국장, 김재석교수(경북산업대 도시교통학) 등은 관광수입 증대, 우회노선의 경우에도 문화재 파괴의 우려가 있는 점, 일정구간의 지하화 등을 통한 문제해결 등을 들며 도심통과노선을 주장했다.

김성범 문체부 학예연구사는 고속철도 도심통과노선이 경주를 동서로 양분한다고 반대하면서 우회노선을 주장했다. 또 건천역부터 남산까지의 구간을 지하화해서 문화재를 보호할 것을 주장했다.

보존과 개발, 문화재 보호와 고속철 유치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이날 공청회는 결국 팽팽한 의견대립만을 표출한 채 막을 내렸다. 다만 하나의 수확이라면 건교부와 문체부가 새로운 수정노선에 대해 적극 검토하기로 한 점이다.

경주=이윤호 기자





인 터 뷰

● 문화재위원회 임 창 순 위원장 ●



"유물훼손 불보듯…우회노선도 반대"

"세계적인 역사도시 경주고도의 역사환경 훼손과 문화재 파괴를 초래할 건설교통부의 고속철도 경주통과안은 즉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최고의 심의기능을 가진 문화재위원회의 임창순위원장(한림대교수·82)은 고속철도 경주통과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건천에도 지하에 매장된 문화재가 많기에 그것이 그대로 파헤쳐진다면 유물훼손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경주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의 의지가 관건이라는 임위원장은 문화재에 대한 정부의 인식변화를 촉구했다.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임위원장은 고속철도가 경주를 통과하게 되면 문화유적과 경관은 물론 도시형태가 파괴되는 등의 부작용이 명확하기에 "애당초 계획했던 대구~부산 구간의 직선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위원장은 문체부등에서 거론하고 있는 우회노선에 대해서도 "경주지역의 문화재 보존으로 인해 일부 경주시민에게 장기적으로 불이익을 주고있는 무제를 해소하고 경주고도의 효율적 보존을 위해 외곽지역에 신도시건설을 추진하고 고도보존법, 역사고도풍치보존법 등의 특별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김재경 기자

고속철 경주통과 무엇이 문제인가

문화재 70여점 열차진동에 훼손

불교성지 남산·선도산 황폐위기

현재 건설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속전철 경주구간 노선 주변에는 국보1개, 보물 9개, 사적 17개, 천연기념물 1개, 민속자료 1개 등 29개의 국가지정문화재와 유형문화재 2개, 기념물 3개등 7개의 지방문화재가 분포돼 있다. 또한 문화체육부가 제안한 외곽노선일대에는 국보 1개, 보물 6개, 사적 16개 등 국가지정문화재 23개와 유형문화재 8개 기념물 3개등 11개의 지방문화재가 산재해 있다.

이처럼 건교부나 문체부의 노선은 모두가 엄청난 문화재 파괴의 위험을 안고 있다. 특히 이들 노선은 경주남산과 2백m 이내(문체부안은 50m)에서 평행선으로 달리고 있어 남산의 불교유적훼손이 더욱 엄청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고속철도 경주통과때 문화재가 훼손되는 가장 큰 요인은 소음과 진동이다. 프랑스의 TGV 고속철은 시속 150km로 달릴때(최대속도 300km) 200m밖까지도 70dB의 소음과 진동을 준다. 이것은 진도 2의 지진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람이 200m 밖에서도 몸으로 진동을 느낄수 있고, 깜짝 놀라게 되며, 창문이 덜컥거리게 된다. 따라서 프랑스는 주위 500m 이내에는 시설물이 없는 곳으로 TGV노선을 세웠다.

고속철도 경주통과 백지화운동본부는 '환경과 경관의 훼손도 만만치 않다'고 주장한다. 경주의 선도산과 남산 사이에 역사가 지어질 경우 연간 6백만의 관광객과 3백만의 포항, 울산등 주민이 환승하는 역세권이 형성되고 신시가지로 발전하게 된다. 이는 국내 최대의 불교성지 남산과 신라의 성산인 선도산의 황폐를 의미하는 것이다.

환승역 가까이 위치한 22점의 남산성보와 태종무열왕비(국보),서악동 삼층석탑, 효현동 삼층석탑, 배동석불 등 중요문화재가 역세권의 중앙이 되고 환승차량의 집결, 소음과 오염, 행락객에 의한 쓰레기 공해로 1천여년 내려온 문화재가 1~2백년 앞을예측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명약관화하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경주에 산재해 있는 민족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경주남산에서 최소한 15km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제안이다.

불을가득, 법향가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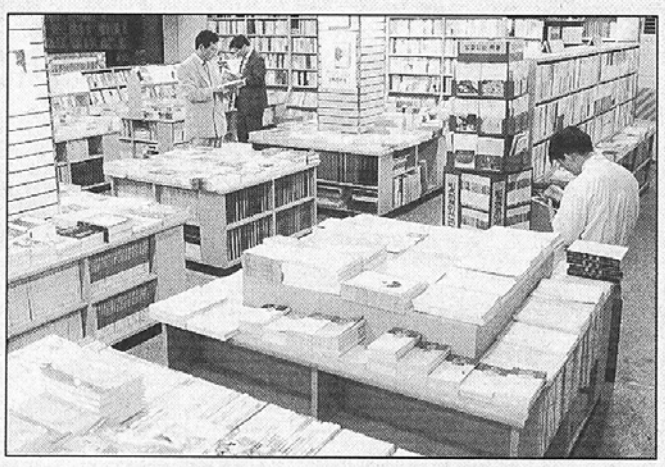
항상 길 떠나는 마음, 책방 여시아문이 함께 하겠습니다

독자와 함께 하는 독서회원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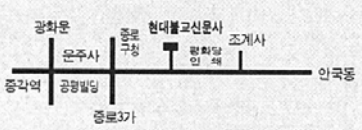
책방 여시아문의 회원이 되시면 언제든지 필요한 서적을 편리하게 구입하실 수 있으며 본 책방에서 발행하는 신간 안내 소식지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언제나 책방 여시아문은 고객의 입장에서 책에 관한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해드립니다. 현대불교신문사와 책방 여시아문이 주관하는 다양한 행사에도 회원 여러분을 최우선으로 모십니다.
회원가입은 책방에 비치된 신청서 및 전화, 팩스로 신청해 주십시오. 가입비는 무료입니다.

항상 독자를 찾아가는 통신 판매

지방에 계신 독자나 산사의 스님, 책방에 나오시기 어려운 분을 위해 통신 판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 주문은 전화, 팩스, 우편으로 신청하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송료는 책방 여시아문에서 부담합니다.



찾아오시려면



매월 발행하는 독자들의 귀와 눈

"책방 여시아문 소식지"

매월 15일 발행하는 여시아문 소식지는 불교 서적에 관한 최신 정보를 가득 담고 있습니다.

- **새로 나온 책**－각종 불교서적 및 불교 관련 신간을 빠짐 없이 수록하였습니다.
- **독자가 뽑은 나의 불서**－애독자와 함께 추천하는 불서
- **불교 출판 편집자가 뽑은 명저**－불교서적 출판에 온갖 정성을 다하는 불교서적 전문 출판 편집자가 추천하는 불서
- **책방 여시아문이 뽑은 이달의 책**－본 책방에서 양서라고 검증된 불서만 가려 뽑아 싣습니다.
- **불교 출판사를 찾아서**－불교 출판 문화 발전에 항상 노력하고 있는 불교 출판사 탐방
- **베스트셀러 20선**－책방 여시아문 월간 판매 집계 20선.
- **책방 여시아문 자세히 보기**－독자 여러분께 보탬이 되고자 본 책방 소장 영인본, 희귀본, 절판본을 계속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책방 여시아문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 737-0695 / 팩스 : 737-0696

특집－古都 경주를 지키자

경주는 민족정신 요람…살아있는 박물관

서명자 명단

한국고대학회

오창헌 황보경 최정필 이보우 김민수 양성혁 최 원 김성남 김동완 신경희 경소영 강인모 심재열 최종모 차준용 강인구 최무장 이승배 김태훈 장윤선 이용조 박병기 김정배 안승모 고일홍 이종찬 백경희 유용욱 강문철 김범철 전세경 김지인 이승민 주현각 한종섭 정덕한 임효재 박종필 이현우 이승훈 박성현 이정수 권오삼 양서운 하경상 김현지 안주식 이진명 김정희 윤근항 홍승혜 설정문 이달순 오세연 홍창민 박활성 안호창 추연식 홍정우 현정훈 김선지 정용환 김용정 안용진 모소배 서기남 최현웅 박중석 임웅암 권순모 허동기 정승우 권영상 이기리 김새날 김민아 최광식 정종권 정복인 이호상 김태식 조대연 이혜진 최종택 박재영 이은영 황규남 정창근 강진철 윤은주 김정언 조윤주 이수원 이주현 오 성 정덕한 우정아 유창훈 정지욱 김선재 이지연 김대륜 서정훈 김용자 이정균 손동유 임수연 박찬문 문기원 정우열 박경선 신은희 김태욱 차경애 남종국 김희연 윤 성 임계순 김인혜 서필훈 김태우 최인숙 소준일 이병우 최호경 임혜연 박용익 노희숙 김현진 이남희 김종락 이혜종 희현정 오수창 김성일 김윤호 지윤정 김윤수 조진희 손기언 이봉호 최진욱 김태웅 이희수 김영화 김재명 박준범 한혜선 황소희 변승재 이형일 서봉수 문연순 민덕기 황보열 김희경 마은정 이혜령 이영희 주경철 정제우 박만수 정환시 김한식 고윤수 구학서 김세기 이소영 나각순 이충호 김진순 소현숙 김재경 최완기 손억상 김효경 임명주 류승주 이태희 김원종 신영호 봉원미 박윤진 유지연 이광재 박민규 이정선 김윤희 손성희 문광철 이석호 공영수 이현주 한지현 김충배 남정화 김현아 유승주 강보경 김지연 조성을 권기석 한경환 윤영균 김명우 배기동 최병식 한승현 김영수 김대일 김병모 박용진 권혁희 박은정 최경숙 고석희 박경자 최연희 임상규 박맹수 이희진 조현주 강혜영 인용민 강래목 김규원 최철상 김정한 모정아 허연실 김의환 김의환 김영한 방영구 디시내 임천환 김남교 유선화 김성종 이창주 장일휴 송승현 김태석 황미숙 이정란 한규철 이준석 김승희 조철수 박대재 김상엽 정진구 남화영 김지연 양민정 고임정 신종완 배진달 승성근 임유경 김호종 구난희 장현희 구자천 김보광 박동일 한병기 김만중 김범정 오진곤 석여곤 이규하 이성무 이명화 윤수진 박영주 한승훈 윤명준 이영문 이장우 이문규 정명호 박악환 이 상 노정환 이성영 김소영 이봉순 영묘자 장은혜 고진영 손상용 박춘래 김용우 홍대한 연연수 소상영 임영욱 최소영 신익수 김성우 권정화 김혜정 조재연 이경희 김옥련 탁성찬 석화정 양은경 윤선영 김호상 소익연 탁주혁 김 철 오상탁 김학수 안용식 박수현 장의식 임영아 박종현 안종철 김 호 임규태 박영근 장득진 최일성 박평식 김민정 이수지 한현숙 안경숙 박성희 김선경 이주희 노현주 디지형 정종연 유선영 반소영 김현숙 김택민 전호태 조정미 박익한 양해웅 정중래 조순희 최현진 김복만 송석희 이경규 박선희 강현숙 김영석 장장희 울명철 박선주 최인현 김석중 김문영 홍민화 주경미 조근혜 고현정 윤정아 구자용 고경빈 김문심 김재승 곽노봉 박수현 지구환 박화진 김수정 김영관 심현정 김현아 심재원 김정현 김희경 이 호 이동린 전우식 구본규 김수정 김양식 이연복 김준석 감무식 채재상 김종원 김현권 김영연 김선주 임인혁 박찬규 최규만 이우춘 김종혁 구범진 박기환 박경자 최연희 임상규 박맹수 이희진 조현주 흥종화 윤명준 최 엽 김용환 정용범 유경로 이현혜 유철화 강정화 유병린 이백규 김관화 신석우 우용진 오현명 정창희 박진형 이수창 양대석 임세진 윤용혁 장명규 임정렬 김선경 윤관백 천령진 전병두 전병광 우음식 최미현 박노식 최인우 하인웅 김우진 육영수 권성숙 한기세 김춘경 김아관 최문선 김건동 송기영 한명진 안종호 박현박 유수준 유빈영 윤상구 성준수 이상길 양진혁 박병옥 박용규 김정화 이영수 박진아 이강승 허영환 강우식 강달송 유용욱 전동길 강지연 이정란 김양수 문명기 한동희 장찬용 한신규 이상훈 최유이 김현준 김수철 박현호 신상엽 신일호 원장혁 성기범 우상민 정길진 김 길 이은화 김지인 이재현 전욱년 이명희 이재인 정기영 위광철 남기학 안재호 이구식 노광태 신대고 조영현 이원철 류은용 이상길 오호용 이원명 임혜철 권혜진 최민아 이정화 임미라 이설희 최선호 박실은 김창근 홍진석 고석용 함순섭 박동석 김혜진 이종찬 김성윤 황선화 전기석 김성희 염창미 서선옥 이향아 조영래 고동철 이현정 변영섭 김정희 강병희 박영복 안덕임 이주형 김지연 송기호 김지정 정중태 시강석 이용우 이재홍 이연희 임혜진 이창윤 이영희 박은화 추연식 하성희 김하진 목기등 구본상 박현숙 송경희 이동희 전성기 민병금 정명아 심현주 문정하 유의주 최성애 최해옥 이형원 김영미 박희연 김우림 이형주 이현정 장성옥 정명수 황창한 신은주 김량희 이상길 동 한 김종철 조준용 이혜련 신경철 이일용 김장식 김재홍 박상권 휴희도 이태희 이동주 노양필 윤정희 송윤정 박중혁 임지영 조대연 송만영 송호종 이호원 이 홍종 박병욱 이재청 한지현 윤명준 강남주 김용등 김혜진 박진환 박선희 양해준 김남교 박은경 정정화 강준구 민지화 최혜연 추윤희 정성원 홍양희 허 진 김울림 이순남 김지선 윤서정 이승인 우대형 김정식 김은미 주덕순 손은정 신석윤 이동진 서민수 김종원 유희수 감형석 유용태 문광석 강수웅 양혜중 김남교 박은경 정정화 강준구 민지화 최혜연 추윤희 조성원 홍양희 허 진 김울림 이순남 김지선

한재각 박진수 이은경 전상운 전용훈 주일우 황석순 주선영 이영호 권응용 부동석 임수연 임세진 안용진 이재청 이승룡 이계한 이지현 이해율 여우삼 이주영 정여렵 김정대 황현산 조영렬 조준구 이상철 연동원 이경용 이형륭 이유성 김성한 박도식 김상훈 임송자 김 헌 조지호 권희경 윤정아 이동아 신우정 손봉희 박동수 정승훈 이완우 김유종 이찬원 김은극 변인석 이대현 박선희 박찬영 이상신 권지용 박병옥 윤인구 서동주 조규희 권일우 김호연 김창석 강선영 김선경 나양미 김혜원 이유정 노중국 조세열 김요우 조은정 조용선 김태문 손현숙 김정화 김미현 송언영 김은선 정동준 권윤경 김영언 하태원 장두은 김민호 최명호 한은희 이환호 송정아 가순규 강진갑 김동철 이칠성 이준식 정한영 조성윤 김용택 함동주 이만열 이완표 정중래 김덕수 최진욱 쥐봉경 유장근 박명진 박거일 조준구 김미선 임혜진 이순미 오승희 조현숙 김용천 벅가영 채세읍 남기학 한인숙 김선희 신주맥 김자현 오영교 이남복 안지원 정기문 정구희 송양섭 이 철 장남원 박혜훈 박도화 박은영 김은아 박계리 조은정 허보인 박한설 이주미 배남주 이공한 이상엽 권민정 김난숙 박미자 이유선 최영태

호남고고학회

윤덕향 곽장근 김수현 유 철 이규훈 유향미 안효성 진혜진 한수영 최홍선 안미경 김선영 이용훈 박영민 박상훈 조두기 강선미 김유신 이승희 김희진 김경술 이덕균 김경희 김미란 강원종 한명자 소정희 민현주 한민경 진명숙 최선희 김혜영 차승이 최형규 김효선 이희경 김 진 이미정 정숙남 이택구 오종석 도금숙 박현경 곽희영 이미영 김선희 원 경 양희종 박선아 박진선 국승란 김순남 박현경 최범호 박성욱 조수진 이양남 김용일 이영택 박청영 전호연 김영례 황보현 이광례 김상수 이정덕 김라미 유경민 이건부 이영문 임영진 조현종 최인선 홍영기 유형균 이동희 박중환 장제근 신상효 송은숙 심승식 오지연 양동욱 곽순화 김주용 김윤아 이진보 류진환 이승현 김영선 김세기 이소영 박용기 권혁희 박은정 최경숙 고석희 박경자 최연희 임상규 박맹수 이희진 조현주 이용우 최 웅 이진희 박종희 노고문 권순국 전영현 김진선 서현주 조진선 황효균 김동수 윤경식 김관용 주현희 김수식 남정락 허승구 류규혁 성석희 류진향 모종민 최지용

고려대

신은주 차승훈 유지숙 김봉준 권혜진 회 민 이미라 박희덕 황선희 홍진식 김정우 고속용 임은아 최지애 이인호 정종우 이선재 현대환 이두연 만성모 우승지 심규한 김미애 최유희 이 샘 이진욱 박석기 윤봉근 주원중 임희진 하창현 김기찬 이현정 박정우 허승호 최혜원 이정일 정관호 곽문정 김재한 이호원 오세록 정종혁 김태연 정인식 허은주 장유정 이혜정 고재용 배성환 전병찬 정주영 박기희 임승구 김성은 민병금 최민아 류근환 정흥규 곽경은 송호종 조용건 이태희 최준호 홍정환 류수형 김현욱 정연수 이지윤 최 원 이정은 김상룡 성지은 성창권 배성오 최원종 이은하 조용빈 김혜운 신동안 김장선 김태진 강한진 이상윤 김주일 이현수 목정하 정태규 박소혜 손자영 김연희 안재진 유승진 이원우 지창수 김재익 안상목 강민성 한대성 나진영 백용재 기 민 임정효 이성렬 김운수 임웅빈 김윤종 박세진 이현승 진정호 조영찬 김준환 한창섭 박상범 김수영 이남기 유장훈 한상준 김영식 공성빈 이상화 윤석한 남용희 강석남 하정훈 주시영 조성재 이성길 강현수 변윤식 주재훈 한상윤 허순호 김윤종 이여진 박성우 이경호 김종원 임재형 이윤숙 박장범 박구용 김준석 고두종 윤영진 박대아 윤석진 최경하 박경양 김봉근 이황석 김학서 정진한 이동성 김명진 전혜진 이정화 김태경 유영현 김 영 안종필 김석기 조경국 공보현 이현혜 유철화 강정화 유병린 이백규 김관화 신석우 우용진 오현명 정창희 박진형 이수창 양대석 임세진 윤용혁 장명규 임정렬 김선경 윤관백 천령진 전병두 전병광 우음식 최미현 박노식 최인우 하인웅 김우진 육영수 권성숙 한기세 김춘경 김아관 최문선 김건동 송기영 한명진 안종호 박현박 유수준 유빈영 윤상구 성준수 이상길 양진혁 박병옥 박용규 김정화 이영수 박진아 이강승 허영환 강우식 강달송 유용욱 전동길 강지연 이정란 김양수 문명기 한동희 장찬용 한신규 이상훈 최유이 김현준 김수철 박현호 신상엽 신일호 원장혁 성기범 우상민 정길진 김 길 이은화 김지인 이재현 전욱년 이명희 이재인 정기영 위광철 남기학 안재호 이구식 노광태 신대고 조영현 이원철 류은용 이상길 오호용 이원명 임혜철 권혜진 최민아 이정화 임미라 이설희 최선호 박실은 김창근 홍진석 고석용 함순섭 박동석 김혜진 이종찬 김성윤 황선화 전기석 김성희 염창미 서선옥 이향아 조영래 고동철 이현정 변영섭 김정희 강병희 박영복 안덕임 이주형 김지연 송기호 김지정 정중태 시강석 이용우 이재홍 이연희 임혜진 이창윤 이영희 박은화 추연식 하성희 김하진 목기등 구본상 박현숙 송경희 이동희 전성기 민병금 정명아 심현주 문정하 유의주 최성애 최해옥 이형원 김영미 박희연 김우림 이형주 이현정 장성옥 정명수 황창한 신은주 김량희 이상길 동 한 김종철 조준용 이혜련 신경철 이일용 김장식 김재홍 박상권 휴희도 이태희 이동주 노양필 윤정희 송윤정 박중혁 임지영 조대연 송만영 송호종 이호원 이 홍종 박병욱 이재청 한지현 윤명준 강남주 김용등 김혜진 박진환 박선희 양해준 김남교 박은경 정정화 강준구 민지화 최혜연 추윤희 정성원 홍양희 허 진 김울림 이순남 김지선 윤서정 이승인 우대형 김정식 김은미 주덕순 손은정 신석윤 이동진 서민수 김종원 유희수 감형석 유용태 문광석 강수웅 양혜중 김남교 박은경 정정화 강준구 민지화 최혜연 추윤희 조성원 홍양희 허 진 김울림 이순남 김지선

김명순

원광대

최명희 이용주 김유진 기을순 윤인식 신원재 김종미 조남향 윤현상 신용철 한정신 송영린 유수진 조은영 김나미 곽스도 홍성희 김진우 신현주 박소영 유샘미 임아랑 최나경 오광수 유광선 김진훈 장재화 문동환 이경재 윤숙희 신종섭 김학권 정종화 김구환 김승희 박현정 김만중 이대승 차영종 최성남 김용민 김랑희 강우석 김선희 이상진 송민승 이민상 김경래 보승희 이은아 박선정 신수인 서기섭 박은규 김종건 김종엽 이은주 정혜영 김규선 김영재 최영철 오경란 이병주 김종선 박승두 박종선 박현경 김선애 이효성 김용대 권태훈 권승민 현제곤 류인영 구묘정 최진숙 정창현 조미자 김택환 서원용 강영건 이영규 김익언 송경진 노미정 이은영 김영숙 최은선 김미화 유한길 오순주 오충렬 고승필 강지연 이진례 조은아 나소영 이수미 김국환 홍석재 김제권 이종현 양상민 한지현 진만강 이석재 나희영 김정섭 한상필 배형기 함백수 서주석 고용진 이주아 김봉우 임신희 윤현숙 황현철 유승곤 정희라 고현주 김은영 이승지 현승철 강경조 류은명 주희정 송지연 정혜정 황윤숙 정한돌 조용우 정상규 석철웅 최종남 임헌미 이미숙 권오성 김선호 이혜정 전찬희 제 석 천진홍 박성수 김수영 박혜준 최재훈 오선주

부산대

전옥년 김영민 안순천 김도헌 김정희 동자숙 안재호 안성희 장용준 정만덕 박영철 정나리 박세민 조원영 임국희 박민정 정계순 윤희영 김경희 이수홍 정길자 서정주 박경찬 김지수 정순우 김봉성 임운지 김동현 박정섭 양경아 오필주 김영애 이명애 차현희 박세민 빈지영 조수정 유 경 노수미 이창엽 김보영 이혜진 박현진 강대호 조경진 박재혁 정정원 김혜영 문선영 이명희 윤현정 정혜주 이병혁 이병오 송언주 이미연 유정혜 권정원 이준규 정재희 김은하 이언주 오영수 조주희 박정아 정상희 박정규 윤정금 이미선 김희정 김형아 윤선희 최은정 이은주 선선영 박선미 이현호 송시내 윤수은 권형숙

충북대

박선주 권학수 박은화 강경숙 이그조 신용대 김종휘 김성기 안성헌 류종정 강창숙 구연철 김문황 최세만 김경석 한석수 이석진 김정화 김영남 이명우 오창자 신영우 임동철 정인상 오제명 전형준 유초하 박한국 이계병 노경희 배병균 김인경 최성호 조항범 황태운 정동호 김유리 신희광 송봉은 윤민경 김인숙 길경화 김윤기 김경희 정항구 김영희 김정민 강우민 임지연 홍희정 김지경 김지연 손애순 백선애 이윤희 최보정 최정수 태병덕 이윤기 강재곤 김상도 백소민 박선미 이희영 최보윤 김정화 최선립 김송이 김동조 성시형 이충희 김진환 박진배 양영록 유 진 구전서 유승협 이재철 허진로 남상일 곽병수 이재형 이준경 우운정 조영재 오현경 정배연 이승진 박은하 김연숙 김장우 전영진 임선영

정경아 윤미현 전기원 나정욱 신은혜 김은순 김기욱 강태혁 장동현 조선영 전장현 정정화 윤정현 권은경 김용재 이현기 변창섭 우미라 김태희 이철우 김금순 강성룡 민갑식 나은주 은승혜 민성기 이은희 김태호 최진우 김윤환 변관우 김영섭 권택용 장성기 강훈구 이승원 양정우 오희정 성은숙 박정국 김미영 이지연 김진구 신재영 윤석렬 장종서 윤종권 홍보영 김경민 이덕로 반오현 김은선 장홍석 안진상 박성주 이정우 유화수 박성희 오준근 김형구 정성문 이승현 윤종하 김은진 임성식 금경옥 김명희 박미라 이성은 이은우 박민하 갑태옥 이의수 이상호 이용인 이광배 최 춘 정삼재 박정복 김준현 송기현 김경환 박민호 신수철 안양수 서운석 최의문 김운희 윤호성 윤 철 박정아 안형진 박동진 김경화 은미현 이춘섭 이은경 김상열 유영범 마선경 갑태성 반승용 임지연 이영호 김남정 김민수 이순덕 염찬성 오윤미 김유리 이택준 김성아 김현정 허혜정 방은희 김종구 정진우 김철호 이미영 박준석 홍기운 이동섭 김용현 손준기 오 준 안미영 박영수 박상민 김재관 조삼동 갑대훈 권상율 안성복 박종구 권득영 이규열 신지원 조영관 김명완 지성현 송일섭 강승감 김도원 최현수 갑태우 이고성 김혜란 박덕규 김성식 홍영진 민병복 안수욱 이은정 이인형 김현일 백인정 정도현 박성필 이상숙 김주영 김인정 정병성 김주향 권진숙 유채미 김민정 배재경 김도현 민영식 이은숙 한금철 박혜령 변현우 황창섭 이수연 우연주 박종학 신대균 노시연 정영배 서지민 연수일 차은월 김선화 장철웅 고유미 이순주 강성진 김준호 김수경 김보숙 김동균 유인봉 오정주 권선하 윤성재 표희숙 허영욱 이민아 갑태혜 권진영 김남현 박현미 천용숙 최승화 윤영민 배영수 박상진 이정훈 진상경 초창원 이연희 이영준 갑혜선 김봉수 갑영교 오수연 임영미 장경순 왕지현 김은숙 강은경 홍재근 이달영 이은진 최미경 윤순악 윤도경 신 철 김기수 홍영옥 김신업 이충호 김남영 홍종갑 류진오 이경원 이종선 성배서 갑영철 윤애리 정미영 정혜정 이은선 송상은 민피라 이성영 이효남 김남희 조기용 임철규 황대연 박선영 김동현 송선호 강민철 손희은 소미진 성주우 유인권 윤효진 강민곤 김진곤 신정아 이성호 이진영 이한성 임종관 이준영 이동일 박은정 정혜정 김지영 유현주 정선하 이재리 박정현 이규현 정진니 정일도 박정희 나하영 배상범 남효승 이정희 김규열 강남걸 황혜정 정경운 박윤규 전채린 이영희 권영란 김오승 염대철

차용걸 회병수 양기석 박중균 양미라 박은선 이영미 김숙정 김창숙 송상학 조록주 김재영 홍운기 엄영식 박진윤 박경석 김용태 한영희 김종원 성기정 김미연 최광철 김영실 조순흡 우철균 이정경 김현정 임정순 황근세 김현주 오지현 이종미 구성회 김경은 강경아 이양미 이은영 안인남 류미영 김진혜 김형주 이금성 이미아 최형진 김양식 이승현 김지은 유상희 이수영 강명희 최영준 김덕수 이세영 구효숙 윤현희 강지선 권영희 민선경 윤미경 김현정 박지아 이정희 김경숙 이은경 김상열 유영범 마선경 갑태성 반승용 이지연 이영호 김남정 김민수 이순덕 염찬성 박정복 김준현 송기현 김경환 박민호 신수철 박정아 안형진 박동진 김경화 은미현 이춘섭 이은경 김상열 유영범 마선경 갑태성 반승용 이지연 이영호 김남정 김민수 이순덕 염찬성 오윤미 김유리 이택준 김성아 김현정 허혜정 이재형 손인염 김희현 안진혁 정원기 민병수 정동훈 박용진 최현배 이경희 이민호 이경은 이황호 김기욱 현연호 이광수 민병규 유정근 이강경 현채호 신일수 장영호 최요숙 이종필 오정민 최은숙 이여진 김지현 윤정현 손정아 안현주 이강호 이정철 박정미 서지민 박준석 김은애 박정녀 박정복 박운서 홍삼희 전영재 김현정 김연희 맹민정 김선민 표희숙 김성아 이은우 정수진 김윤영 조윤정 김진선 한경희 한상윤 최영조 김종범 정지호 황선일 황태호 김필제 김선화 이광호 정혜율 오종락 홍재희 이은영 하진수 이정연 인정진 진종조 신현철 오세윤 김국진 장태주 장수혁 김기동 김진극 안영찬 이정희 김용음 일관빈 안병철 박종열 이상윤 박문성 이광훈 김현철 정지용 정영훈 서동성 김성규 이철원 산준근 조성봉 남기준 이문규 송영훈 윤터일 리형민 이준식 정은숙 곽승근 류재용 고상혁 김은복 김남조 초유경 김이식 이윤선 이종균 김성현 김인숙 최지현 정길자 서정주 박경찬 김지수 정순우 김봉성 이명애 차현희 박세민 빈지영 조수정 유 경 노수미 이창엽 김보영 이혜진 박현진 강대호 조경진 박재혁 정정원 김혜영 문선영 이명희 윤현정 정혜주 이병혁 이병오 송언주 이미연 유정혜 권정원 이준규 정재희 김은하 이언주 오영수 조주희 박정아 정상희 박정규 윤정금 이미선 김희정 김형아 윤선희 최은정 이은주 선선영 박선미 이현호 송시내 윤수은 권형숙

경주는 단순한 관광도시가 아니다. 경주는 우리 민족의 자랑스런 숨결이 숨쉬고 있는 살아있는 박물관이며, 유네스코에서도 10대 유적지로 지정할만큼 세계인이 함께 보호해야 할 역사도시이다. 이렇듯 우리 민족정신의 요람이며, 우리 민족의 자랑이라 할 수 있는 경주 도심에 고속철도를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참으로 문화에 대한 문맹에서 나온 어처구니 없는 정책이라 아니할 수 없다.

성명서

차량 매연이 유적지를 훼손한다하여 도심에 일체의 차량진입을 금지한 아테네를 보라. 국가적인 사활이 걸려있던 피라미드 옆을 지나는 횡단철도 계획을 세계문화유산 지정을 위해 백지화하였던 이집트를 보라. 도심 바로 옆의 형산강을 끼고 고가 철도가 12km를 달려 선도산과 남산을 가로지르며 경관을 헤치고 소음 진동으로 직접적인 문화재 훼손을 일으키는 우리 정부의 이 결정은 얼마나 국제적으로도 망신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인가? 하루 3~5만 명의 유동 인구가 빚어 낼 교통 혼잡과 유흥 공해가 500m 이내에 인접한 남산과 선도산에 끼칠 피해의 심각성, 세계 어느 곳에서도 이렇게 무지하게 고도와 유적지를 파괴하는 일에 정부가 앞장서는 일은 없을 것이다.

경주를 보러 오는 이들은 천년의 문화적 향기를 느끼기 위해 오는 것이다. 경주의 본래적 가치가 파괴된 다음 무슨 관광이 성립하겠는가? 단기적인 도시 발전이라는 미명으로 경주시민을 현혹시키는 것은, 그 동안 불합리한 문화재 정책으로 경주시민에게 단지 불편만을 주어왔던 정부가 거꾸로 그동안 쌓여 왔던 경주 시민의 불만을 경주를 파괴하는 도구로 사용하려는 얄팍한 술수에 불과하다.

문화재는 한 번 파괴되면 다시는 회복시킬 수 없다. 우리 한국인 만의 것도 아니요 또 우리 세대의 것만이 아닌, 세계인의 자랑이요 후세에 길이 물려주어야 할 귀중한 유산인 경주를 어떤 명목으로도 파괴해서는 안된다. 일제가 건설할 철도에 의해 경주가 참혹하게 파괴되었음을 개탄하는 우리가 다시 그보다 더 끔찍한 파괴를 자행할 수는 없는 일이다. 정치적 목적으로, 또 눈앞의 조그만 이익에 현혹되어 이러한 만행을 꾀하는 집단은 민족과 역사의 이름으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또한 우리 불자들의 입장에서는 수많은 불교유적지가 무차별하게 파괴되는 것은 정부 주도 아래 이루어지는 '성보훼손'이라는 사상 최대의 법란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나아가 고속철도의 경주통과 결정이 단순한 문화에 대한 문맹에서 나온 발상을 넘어 불교의 성지를 무시하는 고의적 능멸성을 띠지 않았는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우리 불자들의 반대를 특정 종교 집단 만의 반대로 몰아가려는 어떤 시도도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고속철도의 경주통과는 모든 양식있는 사람들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며, 우리 불자들은 거기에 성보와 성지수호라는 하나의 시명을 보탤 따름이다.

이에 우리는 1천 2백만 불자의 뜻을 모아 [고속철도 경주 통과 백지화 운동] 결사대회를 개최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정부는 세계와 국민의 비웰에 따라 기존 확정 발표한 고속철도의 경주통과 노선을 즉시 백지화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경주 도심과 남산에서 15km 외곽으로 떨어진 새로운 노선과 역사를 설계하라.
2. 정부는 이번의 사태를 계기로 고도보존법(古都保存法), 문화시특별법(文化市特別法) 등을 제정하여 문화유적지가 집중되어 있는 지역의 문화재를 엄중 보존토록 하며, 그곳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겪는 불이익을 없애고 권익을 보상하라.
3. 경주의 선도산 성지와 남산 성보 훼손 등 대법관의 만행을 즉각 중지하고,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민족문화의 유실 및 훼손의 현상을 즉각 개선하라.

이상과 같은 우리의 요구가 원만히 이행될 때까지 오늘부터 각 종단의 유수 단체와 일반 국민과의 유대 아래 각종 홍보사업과 행사를 개최하여 국민의 여론을 환기시킬 것이며 아울러 1백만 서명 운동을 벌이고자 한다.

뜻있는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하며 아울러 정부 당국과 국회의 양식있는 개선 조치를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다.

1995. 10. 18.
「고속철도 경주통과 백지화운동」 추진위원회

특집—古都 경주를 지키자

통과계획 백지화 촉구…"남산 15㎞ 밖으로"

조 직

고문
송월주 (조계종 총무원장)
박서봉 (태고종 총무원장)
전운덕 (천태종 총무원장)
김락혜 (진각종 통리원장)
조정근 (원불교 교정원장)
서돈각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
윤경렬 (경주 향토사학가)
윤무병 (학술원 회원, 고고학)
이윤근 (전 부산불교신도회장)
임창순 (문화재위원장)
조흥식 (불일회 회장)
진홍섭 (전 이화여대 박물관장)
황수영 (전 국립중앙박물관장)

추진위원장 이기영 (한국불교재가회의 이사장)

부위원장
고 은 (한국불교재가회의 공동의장)
김유혁 (천태종 전국신도회장)
김철회 (태고종 전국신도회장)
박윤흔 (한국불교대원회 이사장)
안동일 (한국불교재가연합 공동의장)
한상범 (한국교수불자연합회장)

자문위원
법 하 (문화재위원, 성보문화재 연구원장)
김병모 (한국고고학회장)
김원주 (신리박물관 회장)
신영훈 (한옥연구소장)
장충식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자교수회장)
홍윤식 (동국대 박물관장)

상임추진위원
강건기 (전북불교대학 학장)
곽상인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김덕수 (경주 남산 사랑 모임 회장)
김무원 (전남불교신도회장)
김묘주 (사단법인 한국여성불교연합회장)
김재일 (동산반야회장)
남지심 (우리는 선우 공동대표)
도 각 (태고종 전국청년회회장)
류진수 (부산불교신도회장)
목정배 (사단법인 대한불교법사회장)
박광서 (생명공양실천본부 운영위원장)
윤청광 (맑고 향기롭게 운동본부장)
이상번 (대한불교청년회장)
조호정 (삼보법회장)
한정섭 (한국불교교화원장)

운동본부장 윤청광

사무국장 김형균 (한국불교재가회의 사무국장)

임은주 강석현 심선형 김순화 이선희 김현정 김혜영 양광규 김성종 김도원 한송희 유이상 김정미 권오분 공경숙 변승진 김영재 지종원 심선주 박재일 강병현 박지영 이동화 김영기 이혜정 박인실 이병준 조석현 이지영 김주성 성미선 이교정 박용 박주덕 이은실 구은영 전병노 허정해 임창호 하기호 장독식 남창우 조영식 남두현 곽호종 한선주 최은희 김진선 이수창 김태경 신철혁 최정화 안부표 최학식 안영호 양승헌 구효숙 이세영 서주연 이민아 윤동진 강호상 정산희 임현아 김현정 김경수 조병하 손원희 윤승환 박광수 이소영 강호준 김균미 정경보 이미제 박연서 임순례 정진성 장영욱 김중기 김행임 최덕란 옥오준 합명근 장성관 박재형 구민정 김은아 김현정 민정화 임은희 최영임 이화종 윤성희 조희승 현연호 한경희 신종현 박용선 이창주 전찬호 서동배 인혜영 채영진 이상화 박경섭 주철진 김문경 장우영 서정윤 구연주 김은주 김도연 송진섭 권용창 이미혜 김두현 김영권 안정민 윤은영 장명화 이동복 이희진 조은화 이진경 이윤미 한승희 김동운 신성희 배미라 박선영 백미경 이재복 이종진 서형석 우시권 만현기 엄광신 반동섭 정성환 김채경 권순자 김은희

대중불교기자단(진주) 김상화 주규현
최경숙 권순동 김만봉 김정애 배의정 정수조 김미옥 김영숙 손주영 김말희 신숙자 허형숙 구순임 김상환 문명숙 김영숙 하귀만 김영호 박영미 정현숙 임병근 김민영 양인숙 유정님 임동자 하미숙 최연국 박정미 최영자 하문헌 이달주 김진홍

대전법동종합사회관 김복순 박 진
강현주 김선희 김난희 황효영 이경미 이상연 김현채 김면호 이용선 김승미 이기호 김은미 이은희 손인철 윤남선

지필수 김영락 이일승 이양구 이미경 황재영 전윤임 박정은 서영자 전해순 한금자 이용우 최영인 강달순 이송순 이경온 김점용 김정희 김옥순 이경자 권순희 김숙희 이동은 조형준 박종례 이경진 예경자 김근환 김기동 이수남 김분자 조영애 손인상 임경숙 정옥점 홍혜진 홍명희 오정희 이혜진 유용희 박용찬 호임준 박재신 장영희 최효숙 강국서 김용환 김춘화 고영자 강정숙 안주영 김순자 유동수 이경희 신화제 심진연 고화자 이명환 김우옥 서종금 한우형 조옥례 한선규 한혜원 이기인 허만옥 이정윤 이재육 박의철 김옥준 장세현 서기술 김옥자 정임용 김영민 김한울 배원정 전정애 염철종 이남화 윤재욱 정병욱 윤준호 임애화 신옥순 김홍경 박계택 김옥선 김원중 김창호 김경남 김상훈 김상연 김영민 김문주 이승초 조연숙 오옥순 최연숙 김봉환 김기생

명성여고 유춘장 조수영 최유자 문희웅 전태근 황병환 민병희 조광호 김영명 박태화 장미은 배용먼 고의류 김영인 박재권 민선하 안옥자 김재호 이승조 지대식

유석국민학교·마포중고등학교
김재순 김동양 박동숙 이문벌 문춘경 김희숙 여재근 양경희 유미경 김순덕 박종철 박동진 원경하 이정관 전성희 황성철 사공창 손종빈 신중현 한영호 김제익 김양상 백주현 황옥현 전대훈 이상종 유용호 이영구 박미경 김호상 정정일 김성희 박희성 문병진 강용숙 박영미 권병률 신경숙 전병성 강용숙 박영미 권병률 신경숙 전병성 최규철 엄정숙 엄재중 조규인 김승환 김 건 이동우 만인철 박은수 정은주 남정률 이영환 손문식 김성안 신금식 김영수 황기환 김정서 임진성 하지연 여은근 고원욱 한재만 정한상 하지영 박희창 나상술 주광진 박동욱 박동진 이윤경 정재진 김봉석 박동진 이현수 안성수 진혜자 김정이 김정남 박춘임 김제학 심규철 김성수 김충현 송기용 이홍표 박남홍 권경철 송준오 양은모 김성철 조욱분 김인철 윤경환 김수희 한승봉 김윤경 김경문 박인아 경주선 경우선 경재용 경재문 박옥분 김지영 이혜진 박용선 김경배 김승표 임재경 이슬기

대한불교진흥원 박분옥 조병미 주경화 주분수
주경애 고옥순 백광수 박행자 최화숙 김효섭 주정원 정행연 이연자 강석남 김선혜 임채숙 박현준 김칠선 정명희 송춘미 임준경 손병현 방정분 송용선 주희자 윤순아 김경연 이재연 류숙현 이보영 안동기 주시돈 고 공 배숙미 주석돈 주길돈 김희자 김혜정 전규선 정순조 이금선 이숙희 김일순 박태숙 박선애 백말순 김휘숙 나영희 한상기 이수명 이덕명 배혜자 박정희 김말순 진미숙 오옥자 장영희 주혜숙 나행대 김상섭 정일술 윤성자 강미순 홍외선 최점례 주정승 신복덕 김유주 김석분 이명숙 이경옥 김옥자 백양자 임기순 백계봉 정점순 정영희 주수돈 유연옥 대범례 김재철 유연옥 윤덕자 최정모 송복동 안삼연 주수돈 조진희 박귀순 이재선 이재숙 최규애 윤철영 김맹심 안순선 심종순 김만식 이종한 지광식 안갑수

대한불교법사회(불교대학) 한정현 이규현
한세욱 이경옥 윤상근 박이순 오기원 차유연 안병길 정태동 김용식 한상구 엄옥희 이기무 이영우 이언주 김광자 김준환 김영언 신갑선 박래옥 원동일 허양희 윤원희 손정양 정필순 이규숙 서길자 박월희 한영경 이정지 박영애 이순희 조춘연 천양자 박진근 김명순 이갑세 정운자 홍정주 박덕희 박현신 김용훈 이덕희 박순옥 최종남 김명심 김계림

봉은사 최삼봉 김찬양 윤숙열 김길례 김부춘 박영헌 권정희 정영숙 박명선 변용숙 신용유 윤경은 권혁윤 전혜정 신현숙 송봉자 박미옥 정채영 정영숙 강보원 심삼남 임영빈 영태옥 이민구 홍문자 전대식 안나영 서귀선 주미경 박상만 김묘현화

불교자원봉사연합회 김향화 송정숙 변재열 김현자 유덕종 류상영 이은주 김규연 임 천 안강수 김옥자 고영금 정태현 최옥환 서현수 김종문 박순자 엄태영 조은주 박선애 한의정 서정호 최창현

불교방송국(다보법회) 이동훈 김금임 이강님 이종순
신동윤 장경숙 배혜경 박정희 이학자 이호진 왕정미 왕청미 기진수 오옥희 진순자 정경분 인경달 황혜정 정동환 강인영 육자연 신화순 김진기 송진섭 이원영 홍은순 신혜숙 김영지 이석철 여영주 이정숙 김현익 김형준 김범준 박보순 조명숙 김미순 김관하 남경자 이상한 홍영자 김선자 전양예 김종순 김성수 홍경의 노순현 정정혜 이정숙 이명희 최점순 최영자 김정옥 최옥주 정법안 김찬순 김경자 이용찬 김정희 이정철 이정문 김영승 김인숙 김정은 김민섭 서주영 경하정 정형자 민문옥 김무치 이금선 민수연 유창순 단현숙 박용주 정동근 박민선 박성숙 김형석 조금희 최영희 최복경 이애란 이경출 김종수 김종옥 김성혁 김종수 김종옥 문경남 장원자 신명승 황보분화 함길례 이희복 유경자 김혜성 주화자 허숙임 구정인 최하자 이남옥 황정화 강계순 이선화 법륜스님

조계사 손순화 김정순 김진옥 황석선 한복희 이정철 문경도 박명원
김은선 김정식 서미로 신금자 강재열 김정희 한정혜 김광식 유복이 허정숙 임금자 진창희 태부자 전양자 구 원 서말영 안효진 김옥수 허춘자 김숙한 김영경 신점향 정민호 윤혜숙 전재선 박종례 이명희 심용희 박부자 최청자 변용순 김영순 손문자 김동환 배수림 윤순준 이희자 안현자 이인수 양병용 조영자 최덕인 양영수 심상운 편정희 안명자 방영숙 전윤희 한복수 오귀례 손은숙 이영자 문성희 이은철 우재순 송경철 김미자 이선희 김성애 강정희 김은희 박선영 김보연 윤승모 민철기 김 준 박은정 김정은 김정남 이재육 권미선 배재용 오은경 정주휘 김영대 김정희 이성재 김현경 이주남 보광심 유서원 김혜숙 안인숙 김병선 이선숙 유보행 최정의 손인희 손용앤 윤영숙 조동창 박옥숙 이복희 김부임 장옥매 심순식 정심화 정진명 이혜숙 김순자 최희숙 조광택 현명이 최계자 이명옥 정득희 심미경 유복진 조원정 조응희 남상숙 송향구 하대철 장준원 장정윤 박춘자 송현희 황보희 김두연 전순태 황 경 권귀덕 강희숙 이용란 김승희 백정자 최진원 성윤선 이열자 박광지 이상윤 정관자 권순담 정승열 최연자 김종금 김호순 최정숙 박남선 김문자 김영자 배귀순 김양수 원공화 김상완 임나비 박세자 배성렬 김봉남 김혜영 이해명 유정애 이정자 백유순 최 란 박명원 한상춘 박차순 원종례 조순자 정유나 황영숙 오애순 이영자 김춘자 김주희 유권준 김동애 정경원 고화자 윤경숙 조경진 이혜정 김성환 김남교 한 순 이순덕 정의순

현대불교신문사 김광삼 김록인 최정희 위영란 차차석 이경숙
임연태 이준엽 박상균 박래철 정성윤 김원우 김재경 도필선 한명우 김준근 이은자 남수미 오종욱 고영배 김정란 하혜경 김성경 이계동 박장훈 이동격 최상철 이승철 원병재 이신정 이보경 변은숙 윤제학 서윤아 최정근 고 연 조동규 김경숙 김학표 김선영

서명자 명단 다음호에 계속

결의문

우리 112개 불교단체 대표 일동은 고속철도 경주통과 백지화 운동 추진대회를 개최하며 정부의 무분별한 문화파손정책이 철회될 때까지 합심단결하여 반대할 것을 다짐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一. 고속철도의 경주도심 통과를 결사 반대한다.
一. 성보문화의 훼손에 끝까지 투쟁한다.
一. 계속적인 민족문화보존운동에 앞장선다.

오종민 손복례 김보숙 이은경 정명숙 임기준 이재숙 권오순 손현숙 최희정 법 일 이은규 소중호 유순애 이헌숙 김경순 마영희 정윤민 한명숙 손경옥 이상국 공정희 최영순 허성순 손복자 박기서 최의십 전순영 지영옥 강옥형 박석란 김유미 강영미 송연희 김영철 이강화 박우진 김춘기 박성규 김옥순 유정희 김정희 조필자 지용숙 지주환 황규선 박미성 김순선 김정선

불교방송국(다보법회) 이동훈 김금임 이강님 이종순
신동윤 장경숙 배혜경 박정희 이학자 이호진 왕정미 왕청미 기진수 오옥희 진순자 정경분 인경달 황혜정 정동환 강인영 육자연 신화순 김진기 송진섭 이원영 홍은순 신혜숙 김영지 이석철 여영주 이정숙 김현익 김형준 김범준 박보순 조명숙 김미순 김관하 남경자 이상한 홍영자 김선자 전양예 김종순 김성수 홍경의 노순현 정정혜 이정숙 이명희 최점순 최영자 김정옥 최옥주 정법안 김찬순 김경자 이용찬 김정희 이정철 이정문 김영승 김인숙 김정은 김민섭 서주영 경하정 정형자 민문옥 김무치 이금선 민수연 유창순 단현숙 박용주 정동근 박민선 박성숙 김형석 조금희 최영희 최복경 이애란 이경출 김종수 김종옥 김성혁 김종수 김종옥 문경남 장원자 신명승 황보분화 함길례 이희복 유경자 김혜성 주화자 허숙임 구정인 최하자 이남옥 황정화 강계순 이선화 법륜스님

조계사 손순화 김정순 김진옥 황석선 한복희 이정철 문경도 박명원
김은선 김정식 서미로 신금자 강재열 김정희 한정혜 김광식 유복이 허정숙 임금자 진창희 태부자 전양자 구 원 서말영 안효진 김옥수 허춘자 김숙한 김영경 신점향 정민호 윤혜숙 전재선 박종례 이명희 심용희 박부자 최청자 변용순 김영순 손문자 김동환 배수림 윤순준 이희자 안현자 이인수 양병용 조영자 최덕인 양영수 심상운 편정희 안명자 방영숙 전윤희 한복수 오귀례 손은숙 이영자 문성희 이은철 우재순 송경철 김미자 이선희 김성애 강정희 김은희 박선영 김보연 윤승모 민철기 김 준 박은정 김정은 김정남 이재육 권미선 배재용 오은경 정주휘 김영대 김정희 이성재 김현경 이주남 보광심 유서원 김혜숙 안인숙 김병선 이선숙 유보행 최정의 손인희 손용앤 윤영숙 조동창 박옥숙 이복희 김부임 장옥매 심순식 정심화 정진명 이혜숙 김순자 최희숙 조광택 현명이 최계자 이명옥 정득희 심미경 유복진 조원정 조응희 남상숙 송향구 하대철 장준원 장정윤 박춘자 송현희 황보희 김두연 전순태 황 경 권귀덕 강희숙 이용란 김승희 백정자 최진원 성윤선 이열자 박광지 이상윤 정관자 권순담 정승열 최연자 김종금 김호순 최정숙 박남선 김문자 김영자 배귀순 김양수 원공화 김상완 임나비 박세자 배성렬 김봉남 김혜영 이해명 유정애 이정자 백유순 최 란 박명원 한상춘 박차순 원종례 조순자 정유나 황영숙 오애순 이영자 김춘자 김주희 유권준 김동애 정경원 고화자 윤경숙 조경진 이혜정 김성환 김남교 한 순 이순덕 정의순

현대불교신문사 김광삼 김록인 최정희 위영란 차차석 이경숙
임연태 이준엽 박상균 박래철 정성윤 김원우 김재경 도필선 한명우 김준근 이은자 남수미 오종욱 고영배 김정란 하혜경 김성경 이계동 박장훈 이동격 최상철 이승철 원병재 이신정 이보경 변은숙 윤제학 서윤아 최정근 고 연 조동규 김경숙 김학표 김선영

서명자 명단 다음호에 계속

김영희 우오희 정법규 곽금화 김선모 류정만 이혜진 이윤성 작노선 서석범 박선배 변재운 권영락 송인성 우동권 강귀용 김장수 김현민 송상학 김미정 최지인 남궁용 황상길 박정훈 허현진 김지영 김정범 최기현 안지현 김형표 강경신 김태현 이영석 이남경 이성은 박효정 김혜정 정용걸 조재연 허혜정 허태주 임종필 김영호 곽호상 권봉준 송정화 박필순 최진구 권익기 신호선 송윤희 권순호 석용수 김기효 권명순 김재영 오현정 황주연 김영자 권혜정 정정선 김신정 엄영식 조록주 김용태 김용환 황병운 최 식 나명진 유재섭 이홍규 성태경 황동주 김홍주 신영진 서은정 안상미 최향선 박월순 임혜영 채연화 이상현 변선욱 김미영 백주연 신완수 문일식 이계순 박호영 차혜명 이운석 이지혜 조일희 김연옥 김수경 이나영 김방실 정인호 김하연 장순화 정윤영 김종환 김건영 백현우 이용만 권혁재 이철원 김재원 하덕권 임용진 김현정 장달현 최은혜 이병희 김진경 송진섭 오석진 이지혜 조주연 한주희 이호학 박지흡 유택근 장민호 오유영 서원일 이동기 이소정 백승진 이승성 임형수 백종철 김창현 김태수 류진석 류승렬 백충혁 백노달 전호철 정규철 권봉수 피의섭 송효선 윤태중 이오행 정상길 김기수 오재욱 서용원 김명희 김정의 배선영 송지연 이영수 김재형 김연실 손정아 사석현 남윤식 박찬호 김희영 방선경 박사일 정수기 문연수 양세화 조남식 장수동

류재희 임영민 강현숙 김영순 이수옥 이홍연 한창영 백종열 김수진 권정순 송수경 임성현 김동일 김민영 이기종 허명숙 한용운 서화자 황순례 우미자 이종욱

총주불교청년회 윤주성 최면원 도승규 진광남 박규형 이경원 이미자 황세훈 황연숙 이경희

보덕학회 김경일 박찬종 구관모 서병천 전정남 김성연 홍화순 김의성 장남천 정영호 변구섭 오동근 김진학 박영기 박수란 곽춘식 신정자 박수길 조영직 김기도 조명수 김점옥 전병규 윤상걸 김도영 김주경 이유석 박원택 마홍자 양정희 박광훈 김완주 정이식 전정미 유영희 윤지철 정환호 서상규 서석찬 김정현 김순한 최정이 김은정 최진자 고윤훈 이혜연 양연나 정의순 이강분 남순오 김용순 김현선 윤용수 오철자 김정주 권영순 양승환 조순행 조경순 백종환

김웅(선우) 한혜자 허영선 박재기 임경수 손미혜 이숙희 김희숙 김경자 이봉선 김명희 김 웅 강춘근 송길순 김홍곤 권영자 홍영남 권창훈 박은주 양재열 오숙행 강춘근 평길순

구룡사 이재홍 추성남 오 간 김현숙 송순경 권순정 박소윤 정용자 정향숙 조기공 박순여 민문자 권춘미 오갑자 안효정 서동수 손희순 김향순 최윤정 권언모 고경순 박종호 윤화자 김환규 김은하 방극희 최현우 장상달 박명순 김영자 정병순 손정수 윤준희 김효단 한교순 김성숙 김순주 박은순 강원순 손병모 김영희 정말순 김광용 맹윤재 정명순 최숙희 권시완 김명분 김화자 도중남 김영숙 최경자 이정희 양영자 변영자 이상은 김소연 이정숙 진귀숙 윤경희 김재대 차종엽 김희중 김경아 박정심 김석중 김행중 박선자 유경숙 신순명 신금례 박효일 박주연 신승주 백경희 박순옥 이인숙 윤정숙 김혜숙 김경숙 배종범 박복혜심 박혜숙 홍재순 이남희 이군휘 이희준 이은비 박종기 김호진 김재화 손문원 송민규 배수양 이규훈 황희숙 목지순 이옥희 양순란 박동범 이공덕림 보리심 불국화 관음행 조강신 묘길상 정인숙 김우정 노규호 정한욱 박신아 박기태 김호식 김영신 김용화 한화순 김상진 김용진 김용득 김경숙 정상휴 윤귀선 정봉애 장영재 이순재 김영신 한진용 박용진 이주임 최영주 최영희 양현만 이범숙 이상애 서희숙 이금선 김석수 이혜선 김선미 이우숙 문행권 김해숙 채혜승 채 은 한영옥 성 화 윤혜금 이영희 안기유 이준실 서종선 조연숙 이화식 이후철 윤송지 김남순 조각현 이선주 윤지현 진동관 이숙열 정양자 홍장길 이권기 최옥길 성병희 송용자 류경훈 이기희 정용순 전병학 허상도 박혜란 추성남 황영희 송인춘 안영숙 송재희 박순여 김창선 김선우 서정순 석기태 백운영 정미란 이의주 서복선 이현경 채옥기 김양원 정호진 박종희 김경숙 전병성 배성숙 이석구 이애자 김외수 손병표 김복녀 권옥재 이준자 홍봉금 남순자 남기숙 박순진 이숙경 전병학 현명옥 나영이 안정열 김옥선 유영옥 김명숙 이수덕 홍태순 이명석 김명숙 송인호 이덕수 유영필 유 정 유민정 유민상 정칠영

대한불교진흥원 정재각 박지현 안정인 고영인 홍현표 엄치용 한은영 홍승희 김표진 박우석 정윤숙 문현규 이종택 양승범 김용진 김현안 김선오

여성문제연구회 이명희 김명숙 서청자 이주영 박현주 이혜경 한미란 조미자 허수산나 이순례 한호용 안정숙 허정오 임희철 윤현주 송숙자 김소영 김학범 권윤정 김연주 최향란 이원창 김영실 김숙희 오경철 이우선 한거청 구인숙 김미자 최영옥 허두강 안은경 윤용순 최경순 한은경 최금희 주향미 최성희 홍복림 홍영우 한경아 한순희 최정희 진선미 진은영 한순희 한혁형 김성신 김용환 박진영 김은영 진선화

보리방송모니터회 이혜란 민병두 이진자 전의자
윤광윤 고윤경 서태부 이상옥 김영선 박희성 박미연 김정옥 여정연 김현숙 김재일 이유진 정경숙 이장윤 이득오 이지호 김경숙 김윤아 류필순 홍근화 김일조 양향미 김번웅 김동순 박종순 문지희 홍영희 어재수 이유래 김영순 한순례 이락진 정희선 이춘하 양영예 이윤임 김은주 나각순 이예경 권지현 권승원 정영애 김정원 방희경 윤형지 박은경 김순자 이부남 김민철 김형숙 채은희 이은옥 박인순 김성숙 진숙희 이일형 김미선 천석기 최종근 김희영 윤경숙 박규산 이필순 황정숙 이보라 강숙자 박정옥 김연아 최영인 이희선 임계련 정금옥 박임태 안윤경 김찬재 심수희 신성준 김용양 신기부 박세준 이애지 권오자 김복례 염창동 김근순 정순자 정희지 정혜옥 이혜순 최영인 조미연 이혜영 한양숙 박옥남 김정진 유양화 전재현 안선주 노연수 채경숙 정준호 신민형 김기홍 전선미 신민형 박정애 김정아 송재욱 권재홍 임승미 유정길 이명옥 김순성 제경숙 박상준 장재형 장두일 김정애 이상학 갑대식 고봉희 박순남 김현철 신 우 안숙원 신계성 정미경 신은나 허은경 박은경 심은현 최현주 임재경 이순자 김경원 강형미 조채희 지은정 정재은 김은숙 오문영 우성배 우명수 손연희 최윤영 이수자 이명주 김인숙 강영복 태영희 이춘희 권진형 이 민 김인숙 김현찬 이인순 이신애 길혜희 지을규 임수현 선순희 이정화 이충한 김지석 임문홍 박용희 이영한 안수정 배성수 홍승례 홍경숙 김미경 임사용 송연경 신혜선 황명옥 김경순 장희재 김석민 박성남 임승수 황영식 김숙영 정선미 김정아 김기홍 박정애 하경숙 이춘명 오수연 성후모 정정숙

연암불교학생회 임국영 정민호 김입종 임은영 정민호 김입종 임은영
정화숙 정길용 배재용 신경호 전경미 최현미 최수신 노태두 허명옥 정문자 김주영 박현철 강수미

한국불교교화원 방하준 허기립 한연선 김미숙 최운선 홍연숙
김부권 김법촌 이원철 권연식 구자원 유상호 김승익 윤여광 권기식 이경숙 정연선 우혜제 류도안 윤충신 이동정 이정직 김민수 김분화 이용이 이필희 장각성 김호현 박승재 이성탁 한준식 류승준 박명종 권용득 권필상 전동기 엄한규 손종례 박옥자 최이분 김순이 이혜수 김종숙 김종식 이혜경 윤복순 배미자 김영숙

권기선 김선진 박소영 이명희 김수희 송진혜 김미미 김명미 정소영 김영희 손우선 이군자 김춘자 박성균 곽서연 지연숙 정현숙 김창주 서혜리 류종진 손정희 김인자 송상현 김근학 김성숙 정용희 송석구 신동진 김선자 도귀현 최옥숙 이진수 조순례 임복순 김정숙 박광욱 천수자 조명자 이현숙 신성희 김연옥 김병희 방정분 송용선 주희자 윤순아 김경연 이재연 강순애 박인자 윤향선 이계자 강양석 방정수 김미숙 장인강 김규현 조옥순 한판용 정경애 한명희 차영순 임배섭 김봉희 한노마 이희철 박동희 신기설 박초자 방흥석 이유순 장경작 장진숙 장지영 장수경 유순애 최희준 신문자 권혁규 신옥순 박경미 김진희 정경덕 이영자 송경화 서문도 이주아 장순옥 홍선우 박연희 김정애 장광자 배영희 장명옥 류경숙 황경순 김민선 오영희 강남구 지정미 차옥규 송경호 김민선 정경남 정기호 김여여심 권민자 구애자 권오경 송인숙 최순자 김지수 김 란 이상문 이선화 최순덕 이명순 오세은 류동열 류안수 이현숙 민경희 이덕영 박수임 이종란 권인순 박덕엽 보 천 안현수 이삼보화 오태화 주경자 김상관 정향철 고해룡 고현자 권상옥 박현선 장명자 함귀천 김선녀 서남순 문계자 이금자 한보광 이복숙 고평심 유경순 최명연 현영실 노정님 정영자 김금임 마경숙 김갑인 이순자 강옥순 문유선 오경혜 이춘례 조덕순 안선아 정명학 김금왕 권옥선 정운신 이정임 채명환 김영희 김영용 윤부경 최상희 김기동 박흥조 박정희 김희옥 김주안 김정희 안길자 안정각심 김복배 김범환심 김동숙 현천숙 고현자 김의자 구복순 김명희 엄유복 한상철 김도연 최윤경 안은순 지숙자 최수남 신순희 이선득 송근호 오영교 오종원 서기동 이현자 이영희 이양숙 정명희 윤정자 김교심 이종란 김교심 이종란 김영숙 이영자 최금숙 노재범 송인숙 박수경 황필규 김순선 윤선자 최반야심 조영례 복기자 유항자 황선화 최창기 진옥주 이정복 박선자 최민자 하화숙 장은정 유영륜 이정선 주상은행 김창남 조선님 신선우 한인자 유인홍 오세옥 윤혜경 자은성 이경애 김유심심 김월명화 김유환 전은주 곽경숙 장 영 주경자 금강심 조순자 권화자 이학남 이정례 김봉희 이정선 변대근 공영식 서봉숙 박죽실 정평자 이영자 유정순 유환재 김송연 원용준 김경희 박초자 윤성완 김현숙 이길륜 김미경 공예숙 이현숙 최연숙 최유정 김형일 서승해 이시화 허민주 허행택 고영희 이인순 윤정자 김창열 최옥화 이복숙 신두호 이법기 조정원 최은식 최재열 박용희 하선수 나문영 이정학 이봉숙 이옥주 허순희 이소현 이연춘 이태수 김희열 김효선 맹민순 강정옥 유덕준 서경숙 한경연 이태호 최정숙 조현숙 오춘옥 민혜경 정정이 임경숙 박영자 이경애 김명순 방용자 장숙자 이관종 김동근 최금자 김월순 곽은주 김희신 송희옥 임형숙 류경적 허영자 김형옥 이방현 배광숙 정영숙 이갑식 황보해자 김현자 조애달 손창숙 차영희 공근숙 박승호 최세란 윤순병 이완영 우애경 지송스님 서덕귀 박진도 박재천 이은순 박금문 김현순 고삼여 김정숙 전광웅 박송희 금묘덕행 홍현안주 구금이 정경자 김봉경 오석근 김기민 이효영 김봉진 한정숙 이정웅 류국히 최군자 이희선

박지영 김이순 박주호 은표자 이종희 이윤화 한금만 정춘식 최진택 고광희 장수연 류선혜 이주헌 조종순 방희경 김주례 강창순 윤계순 정화영 조남연 김관순 양정자 장부열 방옥영 김영광 유진택 종 성 장대진 허우진 장혜숙 신하숙 박수현 박마진 엄차숙 양미한 이민영 김석준 홍성광명 박우현 김명희 한옥이 여옥수 윤일술 김정자 박선희 이경자 김홍숙 이일달 이혜숙 박봉희 김영옥 민현대 김복순 김청용 이종수 정일룡 문순희 최희선 오노미 채수연 목해숙 전영식 한희섭 정일국 조정임 신철균 김귀례 양현숙 김호란 손병숙 오 숙 백순희 이성순 이혜호 박종두 이종완 유승애 장영숙 김미수 이유정 김기정 박경이 최성옥 이근혜 김종남 양두보 차대녕 이춘자 문애자 원미경 박경자 전영숙 고정림 이양희 이홍복 이복순 김광주 김길홍 윤춘자 이정숙 윤복영 화미정 배재춘 최금자 김순희 김선희 방문상 김화자 박현숙 김옥경 강상화 황봉기 박성현 양행자 이옥자 정원순 장성대 신유순 정순임 김대식 이규자 노외영 이영자 한태경 이민희 김대식 이현자 이인수 양병용 김경희 이명희 김인영 김현숙 이정철 이재호 이정철 김재남 김정순 김진옥 박정희 김정임 김현주 김정희 김경숙 이이숙 김종인 김종윤 서명지 이병권 강재윤 이성원 김인선 박노영 이이옥 김정희 김정선 박혜란 노유식 이승현 박민선 박노영 윤병조 장지수 김대우 이춘택 김용연 이호윤 최은영 김혜원 최영호 김성렬 김현경 이규호 손영주 전주연 이종서 안재기 방춘배 김완수 허선경 황의수 장호진 조혜연 양부선 정진용 최성식 주두만 오정규 신성현 황정숙 백순주 최원섭 강민구 신인선 구운호 장은지 최승일 강청구 신금미 이유미 최상범 박광호 김인덕 묘 공 이 지 우 석 법 선 권준희 김인성 김선희 조묘덕 이지수 김병균 김상헌 박노혁 김종환 이현옥 최근호 주병운 김민진 한상민 고진용 박경숙 전지영 남정옥 최선미 박성형 김덕자 박현주 정희준 김천덕 조민호 정은성 김광원 김은정 류성일 이상훈 김현경 김진태 조명림 지희숙 정직한

연세대 박상훈 최봉석 이지선 김홍식 김내리 이일호 김정원 이경미 이인성 박기향 구경혜 김경민 장종철 김홍석 한상균 신재현 윤봉규 문소윤 이지선 최성희 김종인 김종윤 서명지 이병권 강재윤 이성원 류정안 김상현 김진성 박혜란 노유식 이승현 박민선 박노영 윤병조 장지수 김대우 이춘택 김용연 이호윤 최은영 김혜원 최영호 김성렬 김현경 이규호 손영주 전주연 이종서 안재기 문현주 심강섭 이승렬 문수종 선대인 김진용 이승원 황지훈 윤희정 김태욱 유원식 김병국 조문수 김정규 김영희 권병근 김종현 김장현 김남일 전희정 오정균 전지영 박영기 전수영 김승준 민상법 김준엽 김현중 이범수 강송지 박진민 강재휘 박성애 홍선정 감상오 김선혁 장은하 황현수 이정욱 박영기 신동진 연혜자 박주홍 권은희 양원영 최명환 이근만 김도영 안선영 천정아 차상진 최성인 노민형 이준섭 김창윤 김종일 유재순 최선영 정식한 방상인 이옥희 홍용식 안규희 이병훈 최명옥 이해영 김정숙 이한철 이후남 보광심 유서원 김혜숙 안인숙 김병선 이선숙 유보행 최정의 왕순희 손월앤 윤영숙 조동창 박옥숙 이복희 김부임 장옥매 심순식 정심화 정진명 이혜숙 김순자 최희숙 조광택 현명이 최계자 이명옥 정득희 심미경 유복진 조원정 조응희 남상숙 송향구 하대철 장준원 장정윤 박춘자 송현희 황보희 김두연 전순태 황 경 권귀덕 강희숙 이용란 김승희 백정자 최진원 성윤선 이열자 박광지 이상윤 정관자 권순담 정승열 최연자 김종금 김호순 최정숙 박남선 김문자 김영자 배귀순 김양수 원공화 김상완 임나비 박세자 배성렬 김봉남 김혜영 이해명 유정애 이정자 백유순 최 란 박명원 한상춘 박차순 원종례 조순자 정유나 황영숙 오애순 이영자 김춘자 김주희 유권준 김동애 정경원 고화자 윤경숙 조경진 이혜정 김성환 김남교 한 순 이순덕 정의순

불광사 이용준 남영주 김동호 손화정 이석현 손은숙 장현식 추영자
김원중 조근화 영명옥 황규녹 유명숙 이계숙 이정희 김한조 이명숙 이효순 정각성 박상진 최양숙 이한선 최명숙 심재민 최영옥 이은숙 이양숙 이홍일 김소연 신규호 김명자 홍을표 김혜연 주현옥 박옥희 김형곤 이애영 오희연 김훈규 신명자 오정예 정승훈 안미영 전중숙 방재원 강경아 김희자 안순희 이경아 최상원 홍승민 고은정 권효진 최수번 곽여상 박영희 김두연 전순태 황 경 권귀덕 강희숙 이용란 김승희 백정자 최진원 성윤선 이열자 박광지 이상윤 정관자 권순담 정승열 최연자 김종금 김호순 최정숙 박남선 김문자 김영자 배귀순 김양수 원공화 김상완 임나비 박세자 배성렬 김봉남 김혜영 이해명 유정애 이정자 백유순 최 란 박명원 한상춘 박차순 원종례 조순자 정유나 황영숙 오애순 이영자 김춘자 김주희 유권준 김동애 정경원 고화자 윤경숙 조경진 이혜정 김성환 김남교 한 순 이순덕 정의순

동국대 김성준 강석구 남은영 김효선 이수열 김승식 채형숙 조정호
최준호 김수양 정일섭 김덕래 고영길 노지운 성연주 김정은 백승철 정재연 백경호 김예경 김용기 한지윤 손봉오 황만수 박공순 최철복 원종화 유재원 허광도 조아담 민선예 한성우 이종인 강명석 이재형 오주영 김경모 박성환 신혁진 백시영 황수연 허석헌 고성희 최제현 박묘원 서한서 이기홍 민기은 이영진 이상돈 금 강 유 방 월 서 원 능 정 도 유 진 진 문 허미애 윤현수 신병삼 정창수 박용환 임광규 최미경 강현정 이선향 김희정 강정임 최경희 이승미 유선영 류은형 강상대 김보현 목경환 김상훈 이관순 이창원 음보현 고관철 이동규 이종호 조운국 최진철 노치윤 김경희 부종철 장석영 이혁원 신영용 이정호 김창수 한덕환 박상준 최원석 박재풍 노길태 양경미 금 강 김승국 유지영 김선우 안필섭 권문영 강혁철 이경한 김민규 현재경 이승호

서명자 명단 다음호에 계속

방송가 소식

불교방송 고승음성법어집 출시

불교방송은 큰스님의 오도와 열반의 세계를 드라마로 엮은 음성법어집 '균여대사(15집)' '대각국사의천(16집)' '보조국사 지눌(17집)' 등 고승열전시리즈 3편을 지난 10월 30일 오디오로 출시했다.

한국불교사의 격랑속에 불교의 맥을 이어온 균여대사, 대각국사, 보조국사의 삶을 드라마로 엮은 이 법어집은 불교방송의 인기프로 '고승열전'을 통해 방송된 것을 오디오로 재편집한 것.

특히 오세영씨(문학평론가)의 솔직한 문체와 박용기위원의 힘있는 연출로 재현된 이 드라마를 통해 마치 큰스님들의 회상에서 만나는듯한 생생함을 느낄수 있어 눈길을 끈다.

불교방송 사업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고승열전시리즈는 10만여개가 판매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면서 "12월경에는 새로 '일연스님'을 출시할 계획으로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1월에는 불교설화 2집을 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철스님 2주기 특집 '백일법문'

불교방송은 성철스님의 열반 2주기를 맞아 11월 6일부터 12일까지 특집방송을 내보낸다.

'백일법문'(6일~11일 19:20~20:00)은 성철스님이 남긴 육성법어인 백일법문을 주제별로 나눠 3편으로 재편집하여 들어본다. 또 12일에는 토론 프로그램 '성철스님의 정신을 사회화 어떻게 할 것인가'가 1·2부로 오후 6시15분부터 2시간여 동안 방송된다.

중국상해에 한국어 교육방송

중국에서는 최초로 내년 3월1일부터 한국어교육이 텔레비전으로 방송된다.

불자실업인 엄상호 건영그룹회장은 지난 10월 24일 중국 상해시 교육텔레비전 방송국에서 한국어교육을 위한 방송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내년 3월부터 매주 화 목 일요일 오후 8시부터 매회 15분씩 방송된다.

KBS '찬란한 여명' 시청소감문 공모

개화승 이동인(김갑수 분)을 주인공으로 하는 KBS 찬란한 여명(이녹영PD 토-일 21:40~22:40)이 시청소감을 공모한다.

시청소감 공모는 10월 28일에 방영된 첫회분부터 연말까지 방송될 12회까지의 방송분에 대해 2백자 원고지 10매내외로 작성하면 된다.

마감은 12월 9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781~1418 KBS홍보실.

KBS 불교연구회 29명 5계수지

KBS불교연구회(회장 김학선) 회원 29명이 10월 23일 사내법회장소인 KBS어린이 합창단실에서 삼보사 주지 윤지원스님을 계사로 신도 5계를 받고 불자다운 삶을 발원했다.

'소림사 달마대사' 비디오 나와

부와 명예를 버리고 불도의 길을 걸은 달마대사를 주인공으로 하는 홍콩영화 '소림사 달마대사'가 비디오로 출시돼 인기를 끌고있다.

이 영화는 인도 향지국 왕자 달마가 왕위를 버리고 구도의 길로 들어서 득도한 뒤 불심지극한 양무제와 만나지만 뜻하는 바가 서로 달라 소림사에서 제자들을 양성하게 된다는 것이 주된 줄거리.

후원단체 방송포교 주춧돌

재정지원·홍보등 자발참여로 '질 향상' 기여

BBS 프로그램 후원회
BBS 교통통신원
btn 후원회
btn 자원봉사단
염불공양 모임

방송포교의 기쁨을 함께 하는 사람들, 그들이 뛰고 있다

좋은 방송 정법을 펴는 방송 만들기를 위해 허드렛일에서 재정지원까지 도맡아 하는 숨은 후원자들의 손길이 분주하다.

최근 불교텔레비전의 'btn 자원봉사단'과 '염불공양모임'이 창립되는 등 방송을 외호하는 후원단체들이 속속 결성되고 기존 방송후원단체들의 활동이 활발하여 교계의 눈길을 끌고 있다.

포교방송 발전의 추춧돌이 되고 있는 방송후원단체들은 'btn 자원봉사단' '염불공양모임' 'btn후원회'와 불교방송의 쌍두마차인 'BBS 프로그램후원회' 'BBS 교통통신원 불자회' 등 5개 단체.

방송후원단체의 맏형격인 BBS 교통통신원불자회(회장 양재국)는 90년 불교방송 개국과 함께 창립돼 '달리는 포교사'로 교통제보와 프로그램 차량지원, 자원봉사 등 불교발전에 한 몫을 하고 있으며 5백여명의 회원이 가입하고 있는 탄탄한 신행단체로 자리잡고 있다.

이에 뒤질세라 BBS 프로그램 후원회(회장 상륜스님)도 '더욱 알찬 프로그램을 듣고싶다'는 청취자들의 자발적인 원력으로 91년 창립되어 기금 2억2천여만원을 적립해두고 매달 6백여만원을 프로그램 제작비로 지원하고 있다. 이뿐아니라 회원만도 3천5백여명에 이르고 있어 타방송사도 부러워하는 방송후원회의 대표적 단체로 성장했다.

이와함께 불교텔레비전의 후원회들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불교TV의 원조격인 btn후원회는 부산후원회(회장 이윤근)와 광주후원회(회장 이범식)가 창립돼 의욕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부산 지역은 4백여 회원이 가입해 자체적으로 월간잡지도 발간하는등 부산·경남지역에 불교TV를 알리고 뒷바라지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또 지난 10월 19일 btn 부산지사는 '염불공양모임' 발대식을 가졌다.

염불공양모임(회장 하선정)은 불교가족의 장례등 봉사활동과 불우가족 지원사업을 펼치게 된다.

지난 10월 27일 창립된 1백6명의 btn자원봉사단(단장 강국서)은 프로그램제작 보조와 자비봉사활동을 펴나갈 계획이어서 불교TV 발전에 견인차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불교방송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꾀해온 BBS프로그램후원회가 지난 10월 15일 2차 가족모임에서 회장 상륜스님과 사무총장 정목스님이 사퇴함에 따라 해체여부까지 논의하는 등 문제점을 노출해 뜻있는 불자들을 안타깝게 하기도 했다.

이러한 여론에 따라 5인비상대표들은 지난 10월 31일 기자회견을 갖고 "해체될 수 없다"고 의견을 모으고 "빠른 시일내로 20인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새집행부및 운영방안을 논의키로 했다"고 밝혀 제 2의 출범을 다짐하고 있다.

김원우 기자



◇ 불교TV 자원봉사단이 지난 10월 27일 발대식을 거행했다. 사진은 사장 태응스님이 강국서 단장에게 봉사단기를 전달하는 장면.



새스님 304명 탄생

지난 10월 26일부터 시작된 조계종 제16회 단일계단 구족계 수계산림법회가 지난 1일 오전 범어사 금강계단에서 여법히 회향됐다. 이번 수계산림에는 비구 1백48명, 비구니 1백56명이 계를 받아 법계 중생제도의 길에 들어섰다.

경주고속철도와 朝三暮四

목탁소리
이 준 엽
〈취재1부 차장〉

고속철도의 경주통과를 둘러싼 정부 부처간의 갈등이 첨예하다.

고속전철의 주무부서인 건설교통부와 문화재 보호를 담당하는 문화체육부간의 경주통과 노선에 대한 이견이 갈등의 정체다. 건교부는 92년 경주를 통과하여 경주남산과 나란히 하는 고속철도 노선을 발표했다.

건교부의 결정에 경주시민과 학계, 불교계는 충격과 함께 반발로 이어졌다. 건교부가 제시한 노선주변에는 수많은 문화재가 산재해 있고 이들 문화재의 파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반대여론이 거세지자 지난 8월22일 문체부가 중재안을 들고 나왔다. 건천을 따라 경주를 통과하는 노선을 제시하면서 건교부가 추진중인 노선의 문화재발굴을 취소했다.

이러한 정부부처간의 갈등은 오히려 지역주민과 학계간의 갈등보다 더욱 심하게 노출되고 있다. 국민을 대신하여 정부부처가 앞장서서 싸우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국민은 두 부처간의 주장을 듣고 결정만 내리면 될것 같은 분위기다.

그러나 이러한 분위기에는 무언가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 국민적 시선을 호도하지는 않나하는 의구심이다.

가장 큰 이유로는 건교부나 문체부가 제시하고 있는 노선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일단 경주도심을 통과하는 것은 두 노선이 동일하여 문화재 훼손이 자명하다. 또한 문화재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회노선이라며 내놓은 문체부의 안은 경주남산과 50m거리를 두고 설계되어있어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또하나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건교부의 발표에 반대여론이 일던 지난해 10월, 문체부가 건교부의 노선에 대해 문화재 발굴허가를 내준 일이다.

더욱 어처구니 없는 것은 것은 문체부가 제시한 우회노선은 건교부의 기본노선이라는 사실이다. 건교부는 92년 관보를 통해 기본노선을 발표했었다. 그러나 당시 이 노선에 대해 여론이 좋지 않자 현재의 노선을 내놓았던 것이다. 이런 노선을 문체부가 대안이라며 국민앞에 내놓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조삼모사(朝三暮四)'로 원숭이 농락하듯, 결국 정부가 국민을 대상으로 두개의 노선을 내놓고 장난을 치는 것은 아닌가 하여 씁쓸하기 그지 없다.

복지·특위법등 신설키로

태고종 종헌종법개정위…28일 종회상정

태고종 종헌종법개정위원회(위원장 김보안스님)는 지난 10월 27일 총무원 회의실에서 기초위원 및 전체회의를 갖고 제71회 정기중앙종회에 상정할 종헌종법개정안을 최종확정했다.

이날 회의는 △남북교류와 통일·환경·인권등 종단의 대사회적 현안을 담당하는 특별위원회법, 사회복지사업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사회복지원법을 비롯 감사원법, 교육원법, 분담금징수법 등 신설 △총무원법, 사정원법 등의 개정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밖에도 득도자격과 승려의무강화를 위한 승니법과 중앙사정원과 지방사정원간의 원활한 업무추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정원법을 일부 개정키로 했다.

봉원사 삼천불전 점안

혜경스님 주지 진산식도

태고종 봉원사 삼천불전 점안식 및 제34대 김혜경스님 주지진산식이 지난 1일 오전 10시 봉원사 삼천불전에서 봉행됐다.

이날 법회는 1부 삼천불 점안법회, 2부 주지 진산식이 중요무형문화재 50호 송암스님을 증명으로 불교전통의식으로 치뤄졌다.

지난 87년 3월 기공식을 시작으로 8년 7개월만에 회향되는 삼천불전은 건평 1천4백평 4층규모로 5천여명이 법회를 볼 수 있는 매머드 법당이다.

한편 제34대 주지로 취임한 혜경스님은 1940년 봉원사에서 이만성대화상을 은사로 득도, 중앙종회의원, 감찰부장, 중앙선거관리위원 등을 두루 역임했으며 현재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보존회 회장직을 맡고 있다.

대구 진각회관 불교방송에 찬조

진각종 종의회(의장 혜일)는 지난 10월 20일 오전 9시 통리원 종의회 회의실에서 제300회 정기종의회를 개최, 대구시 중구에 건립중인 진각회관을 대구불교방송국에 찬조하기로 결의했다.

재적의원 37명 가운데 33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날 종의회에서 원정각 대종사 추모비 건립, 제29대 사감원장으로 진당대정사를 선출, 전국 소재 각 심인당 인접부지 및 토지매입 등을 결의했다.

'사랑의 소리방송' 교계참여 가능

"장애인에 자비펴는 매체로 활용"

12월 20일 개국될 장애인 전문방송 '사랑의 소리방송'에 불교계의 참여가 가능하다.

사랑의 소리방송은 장애인관련 생활정보를 실은 일간신문 낭독, 장애인 복지, 취업, 재활을 위한 상담, 장애인이 제작한 드라마, 장애인의 생활상 등을 다룬 프로그램으로 편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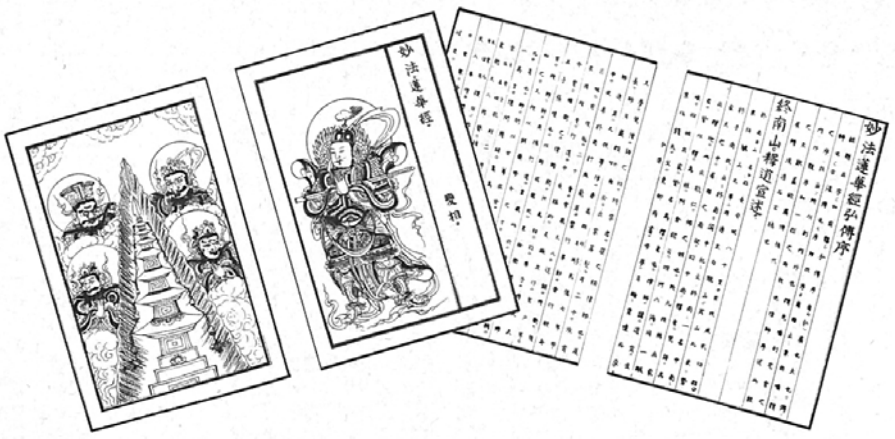
사랑의 소리방송은 점진적으로 외부의 공영기관은 물론 종교, 사회단체에도 제작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놓고 있다.

이와관련 작가 방귀희(전 조계종 상임포교사)씨는 방송작가 연구자료집인 '장애인 방송에 대한 소고'에서 "장애인방송이 장애인에 도움되고 일반인들에게는 감동적으로 보여야 한다는 것 때문에 장애인과 일반인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고 전제하고 "장애인 프로그램은 장애인 위주의 전문성을 가지고 출발해야 하며 청취율에 신경써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원효스님의 종요·
김시습의 별찬이
수록된 법화경
한장본

모법연화경

현재 발간된
영인본과는 달리
각 품마다 대의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본서는 이미 발간되었던 법화경과는
다른 도광 10년, 170년전 필사본으로
귀중한 사료로 남을 것입니다.

첫째, 원효대사의 법화경 종요 序수록
둘째, 淸寒子 김시습의 법화경 별찬·별찬서 수록

■ 내용. 최고급한지 인쇄. 수제본
■ 표지·케이스는 최고급 한지배접 제작
■ 전7권 최고급 한지 케이스 입
■ 한정판 출간 예정

값 200,000원
※ 선 주문시 15% 할인해 드립니다.

佛書專門出版
大興企劃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18수성B/D 101호
전화 : 738-6270, 735-7202
FAX : 733-1016

정부 문화재 관심 '뒷전'

내년예산 '제자리'…관리·보수등 역부족 '불보듯'

정부의 내년도 문화재관련 예산도 여전히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일 문화재관리국에 따르면 12월2일까지 국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96년도 문화재 관리국 예산은 8백74억원이며, 이중 문화재보수비는 4백53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올해 문화재관리국 총 예산 7백28억원, 문화재보수비 3백48억원에서 각각 20%(1백46억원), 30%(1백5억원)증가된 액수다.

그러나 96년도 문화재관리국 총예산의 증가율은 올해 18%에서 불과 2% 증가한 20%에 그쳐 내년에도 예전처럼 심각한 예산부족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관리국의 예산은 크게 기관운영, 고도정비, 문화재보존, 공·능원정비의 네분야로 나뉘어 집행된다. 이중 불교문화재(국보 2백82건중 52%, 보물 1천2백10건중 64%를 점유)의 보존 관리를 포함하는 문화재보수비는 국가·지방지정 문화재의 관리 보수를 위한 국비 예산으로 쓰여진다. 현재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관리·보수비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50%씩 부담하며 지방지정 문화재는 국비 25%, 지방비 75%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서 문화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1.5%미만이며 그중 문화재관련 예산은 0.5%가 채 안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문화재관련 예산은 재정경제원이나 시·도의 심의과정에서 늘 불요불급(不要不急)한 것으로 지적돼 삭감이나 유보대상이 되곤 한다.

이와관련 문화재관리국의 한 관계자는 "경제성장과 건설일변도의 시기가 지나고 문화와 문화재의 가치가 재인식되는 시대를 맞아 예산 담당자들의 인식이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만 말했다.

한편 문화재관리국의 96, 97년도 중요 석·목조문화재 보수계획에 따르면 보수대상인 문화재는 각각 67점, 43점이며 96년도에 석조(21건)·목조(35건)문화재 56점에 국비 40억9천5백만원, 97년도에 석조(46건)·목조(8건)문화재 54점에 국비 70억1천5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다.

〈김재경 기자〉

기금부족 공사중단
'나눔의 집' 후원답지

건립기금 부족으로 공사중단 위기에 처했던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원장 혜진스님)에 각계의 후원이 답지하고 있다.

나눔의 집 건립추진위원회는 지난달 17일 전국 주요사찰에 공문을 보내 건립기금모금을 실시, 도선사 낙산사 화계사 등 전국 10여곳의 사찰에서 후원금을 전달해왔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같은 후원에도 불구 나눔의 집 공사를 완료하기 까지는 아직도 많은 기금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불교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호국영령 천도법회
금강산 건봉사

금강산 건봉사(주지 현소스님)는 지난달 30일 지역민과 군장병등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사찰에서 호국영령 위로 합동 천도법회를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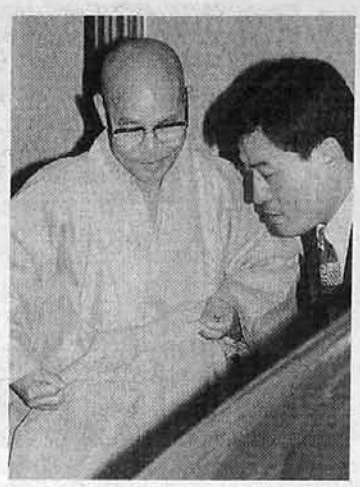
이날 법회에서 현소스님은 "6·25로 산화한 모든 영혼들이 극락왕생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불교인권위 장기수 북송회담 무산
통일원 불허방침

불교인권위(공동대표 진관·한상범)가 추진해온 비전향장기수 북송에 관한 북측과의 실무회담이 무산됐다.

통일원은 지난달 31일 인권위에 실무회담 불허방침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북한 불교측과의 만남은 월주스님 방북 무산이후 또다시 원점으로 되돌려졌다.

한편 인권위는 창립 6주년을 맞아 오는 20일 오후 6시 인권법당 길상사에서 김근태(국민회의 부총재)씨등을 초청해 창립기념식 및 강연회를 연다.



◇직지사 주지 녹원스님은 파계사 주지 도원스님과 함께 10월31일 연희동으로 노태우 전 대통령을 위로 방문했다.

교계중진스님 盧씨 잇단방문

헌정사상 최초로 노태우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두하는등 비자금 파문이 날로 확산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조계종 종정 월하스님의 언급과 중진스님들이 잇따라 노태우 전 대통령을 방문해 세인의 눈길을 끌고 있다.

사찰은 세상사람 누구나 포용

○…조계종 종정 월하스님은 10월 31일 동아일보 오명철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노 전대통령의 입장 표명은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기 보다는 뭔가 감추고 우물쭈물해 국민의 용서와 이해를 얻지 못했다고 본다"면서 "노씨는 불의하게 모은 전재산을 내놓고 진심으로 참회하며 국민들의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또 "세상사람들이 어느때고 올 수 있는 곳이 사찰인데 그분들이라고 해서 못오게 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고 말해 사찰에서 노씨 내외를 받아들일 용의가 있음을 시사했다.

"청정심 찾는 노력 필요" 편지

○…10월 31일 직지사 주지 녹원스님 파계사 주지 도원스님이 연희동으로 노태우씨를 방문한데 이어 1일에는 동국대에서 이들 스님을 방문 강력히 항의했다.

화풍의 4대인 이몸도 虛假이거니 어찌 재화에 집념하여 세상에 시비를 분분하게 하리까. 모두를 있는 그대로 떨쳐 버리시고 본래의 청정심으로 돌아가심이 시시비비를 멈추게 하는 상책일까 합니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녹원·도원스님뿐 아니라 신흥사 조실 오현스님, 가평 백선사 대주스님이 31일에, 해인사 전주지 봉주스님, 대흥사 주지 우각스님이 11월 1일 노태우를 방문하고 돌아갔다.

盧씨처벌 5·18 진상규명 촉구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구속처벌을 요구하는 교계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실천승가회(공동의장 지선·청화스님)와 불교인권위(공동대표 진관·한상범)는 지난달 27일과 31일 각각 성명을 통해 노태우씨의 구속수사, 5·18광주 학살자들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불련(회장 곽상인)도 31일 녹원스님과 도원스님이 노태우씨를 방문한데 대해 이를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한데 이어 1일에는 동국대에서 이들 스님을 방문 강력히 항의했다.

3·27구종법회 '긍정 평가'

2천명 설문 자정능력 갖는 계기…과정에는 이견

조계종 개혁종단의 단초를 마련했던 '3·27구종법회'의 역사적 의의가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등 재평가되고 있다.

이는 개혁종단 출범 1주년을 맞아 '종단개혁과 불교자주화 계승대법회 행사추진위원회'가 전국의 스님과 재가신도 2천여명(응답 52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 나타났다.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비불교적 관행을 바꾸고 내부구조를 개혁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자정능력을 갖는 좋은 계기였다'는 대답이 대다수로 나타나는등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종법회의 목적과 방법론에 있어서는 약 60%가 '목적과 취지는 동의하나 폭력사태를 유발했다는 것은 제고해 봐야 할 사항이다'고 답한 반면에 20.2%만이 '종단개혁을 위한 구종의 선택이었다'고 응답해 대부분의 응답자가 구종법회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과정에 있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총무원의 바람직한 대정부관계의 질문 사항에 58.7%가 '정부로부터 자주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응답, 종단과 정부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하는 문제가 현 집행부의 주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또 민주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아직도 비민주적이 요소가 산재해 있다' 41.6% 등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우대사 문화재 봉행

서울 강남 봉은사(주지 무상)는 허응당 보우대사 순교일을 맞아 10월26일부터 11월1일까지 보우대사 문화재를 봉행했다. 이번 문화재기간에는 10월31일 대웅전에서 8쌍의 부부가 무료합동결혼식을 올리고 11월1일 1천여 불자가 참석한 가운데 정대불사를 봉행했다.

또한 봉은사는 경내에서 소년소녀가장돕기 우리농산물 알뜰장터를 열었다.

경불련 회장에 설조스님·안동일씨



◇설조스님



◇안동일씨

경불련 제3기 회장에 설조스님(불국사 주지)과 안동일 변호사가 선임됐다.

경불련은 지난 2일 조계사 총무원 1층 법당에서 창립 4주년 기념식을 개최한 자리에서 공동대표외에 수석부회장 종후스님(노적사 주지)등 40여명의 임원진을 확정 발표했다.

자비의집 회원등 2백여명이 참석한 이날 기념식에서 신임 회장 설조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것은 불교의 당연한 몫이며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동일 변호사도 "경제정의 실천에 미력이나마 전력을 다하겠다"며 경불련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경불련은 이번 3기부터 보다 활발한 시민운동을 위해 2인 회장제와 지도법사제를 도입키로 규약을 개정했다.

'선교육 후득도 제도'
불발연 추계세미나

한국불교발전연구원(이사장 월탄스님)은 11월13일 오후2시 소피텔엠베서더호텔 서궁에서 '21세기 한국승가의 선교육 후득도 제도 방안'을 주제로 추계세미나를 연다.

기조강연에는 현혜스님(월정사 주지)이 '한국불교 出家衆의 교육제도에 관한 시론'을 발표한다. 주제발표에는 홍선스님(중앙승가대교수)과 윤원철교수(서울대)가 '선교육 후득도 제도의 구체적 방안' '21세기 한국사회에서 성직자의 역할'을 각각 발표한다.

"경승단 체계적 불법홍포 나선다"

협의회·진흥회 구성…법요집·회보등 발간

법우회 명칭 개정 검토

경승협의회와 경승진흥회 구성을 통해 경승단이 체계적인 불법홍포에 나선다.

대한불교 경승단(단장 법타스님)은 지난달 31일 총무원4층 회의실에서 열린 경승지단장 회의에서 스님 위주의 경승협의회와 재가자 위주의 경승진흥회를 구성키로 결의했다.

포교원 관계자와 각 지단장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경승협의회의 경우 각 경찰서 경승실별로 경승과 그 지역의 스님이, 경승진흥회는 실업인, 포교사등 재가자들을 포함시키자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또 각 경승실별로 '불교신도회'를 구성키로 하고 현재 일부 경승실에서 운용되고 있는 '법우회'를 불교신도회로 명칭을 개정할 것을 검토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경찰공무원 포교정책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경승법요집과 경승활동지침서, 경승회보 발간으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포교사업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

이외에도 경승단은 △경승정원, 위·해촉과 관련 정부와의 협의 △포교원내 기초자료 및 관리 시스템 구축 △공찰 주지의 경승 의무화 및 경승활동 연구 위원회 설치등을 골자로 한 경승단 활성화 추진방안을 마련 실행키로 했다.

국제학술심포지엄
한일 과거청산 운동본부

한일과거청산범국민운동본부(상임의장 서돈각)는 오는 8일 오전10시 세종문화회관대회의장에서 '한일협정과 과거청산의 과제'를 주제로 광복 50주년 기념 국제학술심포지엄을 연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고은씨(시인·본지 논설고문)와 한상범교수(동국대)가 '한국과 일본, 무엇을 청산할 것인가' '한일협정의 문제점'을 각각 발표한다. 또 강만길교수(고려대)와 오다 마코토씨(일본 작가)가 '한일간 과거청산의 실제와 과거' '새로운 한일관계를 위하여'를 각각 발표한다.

범종단 승가개혁 앞장

선우도량 18일 창립 5년 기념행사

선우도량(공동대표 도법·현봉·혜담스님)은 오는 18일 오후2시 조계사 문화회관에서 〈신문으로 본 한국불교근현대사〉를 출간하는등 창립5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관련기사 12면〉

개혁종단을 이끌어 내는데 선두역할을 했던 선우도량은 개혁종단의 출범과 함께 지난 3월 제8회 수련결사대회를 개최하고 그간의 정체기를 벗어나 새시대 불교의 주역으로 거듭나고 범종단 승가개혁에 앞장설 것을 천명했다.

선우도량 2기는 1년여라는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불교사에 뚜렷한 족적을 남겼다.

그러나 선우도량이 내세우고 있는 올바른 승가상과 승풍진작이 아직까지는 곳곳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선우도량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는 몫이다.

"전인교육풍토 조성하자"

천진불회 '어린이포교위한 토론회' 개최

21세기 어린이교육 포교를 위한 토론회가 지난달 27일 천진불회(회장 덕진스님) 주관으로 조계사 문화회관에서 개최됐다.

조계종 포교원·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의 공동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첫 주제발표에 나선 황옥자교수(동국대 불교아동학)는 "아동교육이 전인교육의 형태를 벗어나 편중된 교육, 지식 제일주의 교육을 지향하는 교육풍토가 오늘날 아동교육의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또 '어린이포교의 문제점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장학사 출신 박정자씨(어린이지도자연합회 부회장)는 "통일된 경전의 부재와 교사가 응용활용하기에 질적 낙후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교육지침서 등의 교재부족과 의식부재"를 어린이포교 문제점의 첫번째 이유로 꼽았다.

한정섭법사(불교사상연구회 이사)는 화엄경입법계품(華嚴經入法戒品)등 수백가지에 이르는 재가어린이교육 등 경율론 3장에 나타난 '어린이 교화의 불교 경전상의 근거'에 대해 소개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한편 토론자로 참가한 화암스님(조계종 포교원 연수국장)은 "어린이포교에 대한 다각적인 방안마련에 종단과 일선 지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촉구된다"고 강조했다.

청년지도자 연수교육
대불청 광주지구

대한불교청년회 광주지구(회장 박태학)가 지난달 28~29일 광주 향림사에서 전국불교청년지도자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연수교육에서는 신입회원관리방안 및 재정현황과 자립을 위한 방안 등 불청 조직관리와 운영방법에 대한 다각적 방안이 토론됐다.

특히 수련교육(수련회)에 대한 분과토론에서는 불교청년을 대상으로 한 전문프로그램의 개발과 회원확보가 다양하게 이뤄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중앙승가대 '승가원' 승인 신청

장애인·아동·노인 복지센터로 운영 계획

중앙승가대학(학장 송산)이 사회복지시설 지원법인 '승가원' 승인 신청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은 오는 8일 정식승인 될 것으로 전해지며,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노인복지, 청소년복지 등 보호를 요하는 주요 복지 분야에서 종합사회복지센타로 운영된다. 승가원은 또 전문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각종 연구와 교육, 홍보도 담당하게 된다.

한편 중앙승가대는 소쩍새마을에 270평 2층 규모의 새 보금자리를 마련, 올해 말 완공할 예정으로 공사를 진척중에 있다.

3천불탱화 봉안식
대전불교중앙회관 10돌

대전불교중앙회관(관장 경원스님)이 지난 1일 동회관에서 지역불자 6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 10주년 기념식 및 3천불 탱화 봉안식'을 봉행했다.

또 대전불교중앙회관은 5일 지역불자들을 대상으로 보살계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어산 중요성 재인식
학교설립 세미나 개최

조계종에서 소홀히 여겨왔던 어산의 중요성을 재인식, 어산학교설립에 관한 세미나가 개최됐다.

인묵스님(영산재 전수자)은 지난 2일 '어산학교 설치방향과 교과 구성에 대하여' 주제로 한 발표에서 "어산의식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불교의식으로서 맥을 이어가는 어산학교 설립은 꼭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교육생 선발기준 범위, 교재, 교육도량, 기간 및 일정, 교수진 등에 관해 의견을 제시했다.

24일 장학금수여식
부산불교실업인회

부산불교실업인회(회장 김정태)는 오는 24일 오후 2시 국제문화센터 대강당에서 불교발전대강연회 및 장학금 수여식을 갖는다.

이날 강연회에는 근일스님(부석사 주지)과 송석구박사(동국대 총장)가 불국정토 실현을 주제로 강연을 펼친다.

실업인회는 중·고·대학생 24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한다.

낙동강 연등법회
2만명참석 성황

2002년 아시안게임 성공개최 기원 제5회 낙동강 연등대법회가 지난달 28일 낙동강 하구인 을숙도에서 2만여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1부 법회에 이어 식후행사에서는 불자 노래자랑 및 불자연예인 공연에 이어 사부대중 유등행사가 펼쳐졌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이 지난달 8일 대행스님 부산법회 때 접수된 보시금 5천만원을 중앙승가대 발전기금으로 월주스님에게 기탁했다.

한·일 불교문화 교류대회 참관기

"진정한 한일양국의 관계수립을 위해 양국 불교지도자가 발벗고 나서서 과거의 불교관계사를 공동 연구하자."

서울대 최병헌교수는 10월 30일~11월1일 경주에서 열린 제16차 한일 불교문화교류대회 기조강연을 이렇게 마무리했다. 그러나 이 말에 박수친 사람은 없었다.

이번 16차 대회의 주제는 '세계종교의 갈등과 불교의 평화노력'이다. 최병헌교수와 일본측 발표자인 호오죠오겐쇼 대정대교수는 한 목소리로 관용과 이성주의, 실용성과 보편성을 지닌 불교야말로 세계를 하나로 만들어 조화와 평화로운 불국정토를 실현시킬 수 있는 거룩한 가르침이라고 역설했다.

기조강연이 끝나자 질문이 하나 던져졌다.

지난 1877년 강화도조약 이후 부산개항시기에 일본 정토진종이 한국 침략의 첨병 역할을 했고 일제시대 때의 왜곡된 점도 정확히 규명 청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발언이 나오자 분위기가 어색해지기 시작했다. 앞에 앉은 일본대표자에게서 강한 어필이 나왔다. 주최측이 발언을 중단시켰다. 친선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에서 이같은 발언은 행사취지를 벗어나는 발언이라는 강한 반박이 뒤따랐다.

일본측 다이겐쇼이사장은 어색해진 분위기를 무마하려는듯 마이크를 잡았다.

"불자들의 공동 노력으로 하나하나 실마리를 풀어가자"라며 일본 헌법상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합리적인 발언이었지만 논지를 피해간 느낌이다.

지난 77년부터 시작된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는 16회에 이른다. 웬만큼 기초는 다져지고 어느정도 상대에 대한 친목과 이해도 생겨났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단순한 친목과 관광차원을 떠나 진정한 한일관계의 선도적 역할을 해야한다는 지적이 최병헌교수에 의해 제기된 것이다. 미묘한 문제라 해서 피해갈 것이 아니라 '불교'라는 공통이념으로 뭉쳐진 불교도들이 진실로 제 역할을 해야하고 사회에서도 이러한 것은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작은 해프닝으로만 지나치기엔 아쉬운 점이 느껴진다.

경주=이경숙 기자

"양국불교사 연구의지 미약"

앙금남은 과거 사죄·반박등 헤프닝

"한일간에는 아직 앙금이 남아있다. 어떻게 이 문제도 해결하지 않고 세계 종교갈등 해소에 나아갈 수 있느냐"하는 날카로운 질문이다.

이에 대해 호오죠오교수는 "임란과 일제시대에 대해 일본 종교인의 한 사람으로 참회한다"고 답변이라기 보다 사죄를 하고 있다.

최병헌교수는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역사적으로 친한 사이였지만 극한 감정으로 치달은 적도 많았다"며 "한일양국의 진정한 관계수립을 위해서는 한일문제를 양국 불교지도자들이 앞장서 풀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진정한 한일불교의 친목과 교류를 위해서는 과거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이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불자들이 적극 나서자는 것이다.

그림이 있는 불교 에세이

만다라



몇년전으로 기억되는데 선생님 그림의 포커스는 어디냐고 어느 제자가 물었을 때 보이는 부분과 아스라하게 지워져 보이지 않게되는 언저리라고 말한 뒤로 나는 곰곰히 그 연유를 생각하게 됐었다.

내 어린시절 어머니에 대한 진한 그리움으로 몸살을 앓았는데 아버지는 시골국민학교로만 전근을 다니시고 어머니는 증풍으로 누우신 할아버지 수발하시며 농사 짓느라 우리 형제들은 나이따라 저절로 이산가족이 되었다. 나는 취학전 일찍부터 아버지를 따라 이곳 저곳 옮겨 이사다니며 텅빈 교장관사에 혼자남아 면산만 바라보았다. 누나 형들 아버지 다 학교에 가고나면 나는 툇마루에 둥그러니 혼자 앉아 고향쪽으로 난 고갯마루를 쳐다보는 것이 일이었는데 어쩌다 운이 좋을 때는 흰 옷자락 펄럭이며 누군가 지 하늘과 땅 사이로 난 길을 따라 산길을 내려온다.

보이지 않는 생명의 실체 잡힐듯 다가서면…

이번엔 틀림없이 어머니다하고 다짐해놓고 기다린지만 땅거미 내리는 저녁 어스름까지 텅빈 운동장 가로질러 관사로 들어서는 이 아무도 없다. 가끔 눈앞이 안개처럼 뿌옇게 흐려지고 가슴이 메어오면 나는 마음을 돌려먹고 엎드려 그림을 그린다.

마음에 들때까지 어머니 그림을 그리고 또 그린다. 항상 내 그림속의 어머니는 돌아 앉은 뒷모습이었는데 너무 보고 싶은 사람 마주보다 내 마음 들킬까봐 수줍고, 내 서투른 그림솜씨로 어머니의 아름다운 환상을 깨뜨릴까 겁이 났다.

77년부턴가 빛을 주제로 줄곧 그려오는 지금의 그림에서도 '생명의 근원-나의 절대 이상'은 보일게 지워져 암시만을 남긴다. 한발 두발 걸음마를 배워 이제껏 세상을 살아오는 동안 보이지도 들리지도 더구나 만질수도 없는 곳에 우리의 소중한 그 무엇이 있음을 자주 잊은 채 주변만을 두리번거리며 무명속을 헤맨다.

잡힐듯 다가서면 그만큼 물러서는 무지개를 따라 끝없이 옮겨가는 발자취- 그림앞에서 보여지는 것은 다만 빛을 향한 징검다리일뿐 그 실체는 보는 이의 마음속에 자리잡게 되기를….

하동철 〈서울대학교 미술대학교수〉

거친 파도를 넘어서 ③

주부신행담



"널 사랑한단다 언젠가는 꼭 데리러 오마"

떨리는 마음으로 일주문을 들어서서…

뉘엿뉘엿 날이 저물 무렵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어디서 내렸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산 길을 걷고 걸었습니다.

엄마를 걸었는지… 인가는 보이지 않고 밤이 깊어가자 근처에서 잠 잘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10시가 훨씬 지나서야 하룻밤 지낼 곳을 찾아들었습니다. 아이는 울다 지쳐 잠들어 있었고 내 손에는 엄마 전 아이를 위해 만든 좁쌀을 넣은 작은 베개가 만져졌습니다.

아이와의 마지막 밤, 눈물이 마구 쏟아졌지만 아이에게는 못으며 말했습니다. "널 사랑한단다. 언젠가는 꼭 널 데리러 오마." 이런 내 마음을 아이의 마음에 전했습니다.

밤새워 아이를 품에 안고 잠을 이루지 못했던 나는 새벽녘 남편의 제안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스님께 말씀드리면 허락하지 않을테니 그냥 법당에 놓고 품속에 편지를 써서 넣어두자는 것이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일주문을 들어서서 법당에 들어가 참배를 한 후 주위를 살펴보았습니다. 마음씨 좋아 보이는 보살님에게 따뜻한 방에서 잠시 쉬었으면 좋겠다며 방을 안내받은 후 그곳에 아이를 뉘여 놓았습니다.

'이젠 정말 이별이구나…. 아가야 미안하다. 이 엄마를 용서해다오' 눈물도 훔치는둥 마는둥 뛰쳐나왔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않고 서울행 버스를 타기 위해 뛰었습니다.

"형님, 아이는 어디에 두고 오셨어요?" 동서가 묻는 말도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큰 아이를 데리러 동서집에 들렀더니 무슨 일이 있었음을 금방 알아차린 동서가 심요하게 물었습니다.

마침 그날엔 시아주버님을 비롯한 시댁 식구들이 모두 동서집에 모였습니다. 꼬치꼬치 캐묻는 식구들의 고집에 하는 수없이 사실대로 다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시아버지께 남편이 밉다고 원망도 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모두 놀라 말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당장 가서 아이를 데려오라는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남편은 시아버지께 사정없이 뺨을 맞았고 급기야는 눈물을 흘리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가, 이놈은 내자식이지만 이제 자식으로 생각하지 않겠다. 그러니 더 고생하기 전에 모진마음 먹고 새출발 하거라."

동네 어귀에서 동서의 뒤꽥 말아이가 익살스럽게 웃으며 노는 모습을 보니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이를 두고 온지 얼마가 지났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 악몽같은 시간이 반복됐습니다.

동서들은 이왕 독한 마음을 먹은 김에 독하게 살라며 나를 위로했지만 아이에 대한 죄책감은 날이 갈수록 파멸감만 더해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문득 부처님을 찾아 가야겠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곧바로 북한산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연화사를 찾았습니다. 물꽥 아이의 이름으로 등을 하나 켜고 모든 마음을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말만 들던 명동길은 참으로 복잡했습니다. 의상실을 찾아 취직을 하려 했지만 서울이란 곳은 그렇게 살아가기에 쉬운 곳은 아니었습니다.

아이문제로 힘겨운 세월을 이겨내던 내 옆에서 남편은 늘 말없이 나를 지켜보았습니다.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남편은 내 아픔을 잘 이해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 아이는 복이 많아 잠시 내 품을 빌렸을 뿐 좋은 부모 인연을 만나 분명 행복하게 잘 살거야.' 이젠 이런 믿음이 사실이기를 바라며 하루하루 경전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내가 지은 모든 업을 소멸하고 아이의 복을 빌었습니다.

이때쯤 돼서 남편과의 충돌은 잦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벌것도 아닌 일로 큰소리 내는 일이 많아지다보니 자연히 큰 아이는 늘 불안한 얼굴로 눈치보기에 급급해 했습니다. 어떤 때는 아무 죄없는 아이에게 화풀이로 손찌검까지 하는 경우가 생겼고, 그러다보니 남편은 자연히 직장과 가정 어느곳에서도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내게 매를 맞은 큰아이는 늘 아무 불평없이 보살펴주곤 했는데 그건 물꽥 아이에 대한 내 심정을 이해할 수 있다는 묵언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면목동으로 이사간지 얼마 지나지 않아 마침내 우려하던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남편이 몇번이고 옮겨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야 만 것입니다.

오 정 숙 〈홍제동 정토포교원〉

영어로 배우는 경전 — 숫타니파타 ⑮

♦ Wishing for the destruction of desire (Nibbana), being careful, no fool, learned, strenuous, considerate, restrained, energetic, let one wander alone like a rhinoceros.

애착을 없애는 일에 게으르지 말고, 범어리도 되지 말라. 부지런히 배우며 마음을 가다듬고 진리를 깨닫고자 노력하면서 저 광야를 가고 있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 Like a lion not trembling at noises, like the wind not caught in a net, like a lotus not stained by water, let one wander alone like a rhinoceros.

큰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물에 젖지 않는 연꽃과 같이 저 광야를 가고 있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 As a lion strong by his teeth, after overcoming (all animals), wanders victorious as the king of the animals, and haunts distant dwelling-places, (even so) let one wander alone like a rhinoceros.

이빨이 강한 사자가 뭇 짐승을 제압하고 능히 정글의 왕으로 군림하듯 궁립하고 외딴 곳에 거처를 마련하고 저 광야를 가고 있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 Cultivating in (due)time kindness, equanimity, compassion, deliveranec, and rejoicing (with others), unobstructed by the whole world, let one wander alone like a rhinoceros.

사랑과 연민, 기쁨과 평정과 해탈을 때때로 익히고 이 세상을 아주 저버림도 없이 저 광야를 가고 있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stain 더럽히다, 얼룩지다.
*haunt (사람이)빈번히 방문하는 곳.
*rejoice 기뻐 하다, 행복하게 하다.

한명우 기자

"좋은 품질이 편안함을 만듭니다"

화려했던 낮만큼이나 소중한 나만의 시간
나만의 공간이 있습니다.
편안한 휴식으로 다가서는 이름-그랜드
우아한 분위기, 세련된 디자인으로
더욱 편안하게 다가갑니다.
늘 사랑이 넘치는 공간! 그랜드로 오십시오.
감미로운 음악이 흐르듯 아름다운 꿈이 펼쳐집니다.

그랜드 침대, 이래서 좋습니다

침대전문 회사 20여 년 간의 전통과 기술을 바탕으로 좋은 침대를 위한 한길만을 고집해 온 전문 업체입니다.

좋은 품질, 편안한 가격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제품에 25mm 강선을 사용한 하드 스프링 공법으로 제작되어 가장 좋은 품질의 침대를 생산하고 있으며, 또한 합리적인 가격대로서 큰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투 매트리스 사용 각기 다른 2개의 매트리스 사용으로 압력을 배로 견딜 수 있으며, 수명이 2.5배 연장되기 때문에 경제적입니다.

다양한 모델 전문 회사만이 가능한 다양한 모델을 갖추고 있으며 한 모델마다 선택의 폭이 넓어 더욱 자유롭게 개성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GRAND FANTASIA

꿈의 나래를 편다 그랜드침대

• 본사: 경기 파주군 광탄면 마장2리 180-18
• 전화: 0348-945-2233 / 팩스: 0348-945-9607

생활속의 불교 ㊽

빈 맷돌로는 아무것도 갈 수 없다

우리의 육신은 지·수·화·풍 사대가 인연따라 뭉친 것이고, 인연이 다하면 다시 사대로 흩어진다고 한다. 고로 육신은 실체가 아니라 가(假)화합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꿈 같고 그림자 같고 물거품 같은 존재라는 것이다.

그러나 소도 연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하듯이 육신이 있기에 보고 듣고 말하고 느낀다. 육신이 있기에 불법을 공부할 수도 있다. 육신이 없으면 상대를 알 수 없고 현상계니 우주니 하는 말도 의미가 없게 된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배울 수도 없게 된다. 우리가 죽어 모습을 잃으면 업식·혼백만 남아 더할도 덜할도 없게 되니 수행을 할 수도, 지혜를 넓힐 수도, 마음을 계발할 수도 없다. 견성성불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고로 육신을 허망한 것이라 하여 그 모습을 학대하면서까지, 그 모습을 하찮게 여기면서까지 불법을 알려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육신은 마음의 진화, 지혜의 터득을 매개하는 도구이기 때문이다. 계·정·혜 삼학을 닦는 도구이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는 6년의 고행을 마감하고 우유공양을 받으심으로써 육신을 학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셨다. 도구를 망가뜨려서는 일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 주신 것이다. 육신의 균형(건강)은 불법공부를 잘 하기 위해서도 절실한 것이다.

육신은 과거의 저장고이다. 사대를 재료로 삼은 인연 도리의 뭉치이다. 과거에 신·구·의를 빚아 올린 업식의 산물이다. 고로 불법을 바로 알자면 먼저 오늘의 내 모습이 이렇듯 살아 움직이는 도리를 알아야 한다. 그래야 인연이 무엇인지, 업식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그래야 본래적인 자유가 어찌해서 속박을 당하는지도 알게 된다.



불법을 알려거든 먼저 스스로 행하고 스스로 느껴야 한다. 육신이라는 도구를 통해 직접 부딪쳐 보아야 한다. 나의 일거수일투족 일상의 행을 통해, 내게 다가오는 모든 경계와의 만남을 통해 느끼고 집집하고 배워야 한다. 팔만대장경을 달달 외우고, 교학을 가로세로로 꿰뚫는다 해도 직접 부딪쳐 보지 않고서는 안다고 말할 수 없다. 집짓는 데 필요한 자재의 이름을 다 외우고 있다 해도 그 재료를 이용해 직접 집을 지어보지 않고서는 집 짓는 도리를 안다고 말할 수 없고 유명한 건축가로 행세할 수 없다. 먹어 보아야 맛을 아는 것이다. 고로 몸이 있을 때 공부하라. 육신 멀어지면 불법도 멀어진다고 하는 것이다.

우리의 삶 그 자체를 불법의 실천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깨어 있는 삶이 아닌 습관적인 삶은 실천이 아니다.

매 순간순간 나의 언행, 내게 주어진 상황을 밝게 꿰뚫어 볼 때 비로소 우리가 육신을 통해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느끼는 것은 불법공부의 재료가 될 수 있다. 고로 우리는 모든 일에 초심자 같은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비록 해본 일, 아는 일이라 해도 처음 마주하는 것처럼 긴장감으로 몰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몸 살림은 빈 맷돌을 돌리는 것과 같아진다. 불법은 공허한 메아리가 된다.

협찬: 김 숙 례 主 慧

불법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